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9월 19일(음력 8월 9일) 수요일 (주간) 제646 호

조계종 법계위 "법계 심사 더 철저하게"

징계경력증명서 제출 등 검증 강화
원로의원 추대 종헌 개정 요청도

신정아 前 동국대 교수 문제로 한국사회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검증시스템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가동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계종이 스님들의 법계 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해 주목된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혜정)는 9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회의를 열고, 법계 심사 시 모든 대상자들이 징계경력증명서와 분가하기 전 원적이 포함된 호적등본, 전과 유무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계위원회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경력을 확실하게 살피겠다는 뜻이다.

법계위의 이 같은 결정은 신임 원로회의 의원스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논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안건이 상정되자 회의 참석자들은 특별전형 대상자들의 사미계 수지 후 징계 자료 제출을 호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호법부장 심우 스님은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종헌종법에도 본인 이외에 징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회의에 참석한 법계위원 전원은 "현 상태로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을 심의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데 동의하며, 법계 심사시 각종 검증서류를 제출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신임 원로회의 의원스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은 차기 회의로 이월시켰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된 원로의원 중 사바라이죄를 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바라이죄(四波羅夷罪)는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큰 죄로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을 일컫는다.

원로회의는 지난 4월 제29차 회의에서 도문(대각회 이사장), 원명(통도사 방장), 밀운(봉선사 회주), 명선(흥국사 주지), 월서(봉국사 주지), 혜승(고운사 회주), 정무(석남사 주지), 현해(월정사 회주), 고우(전국선원수좌회 선립지도위원), 법흥(前 송광사 주지) 스님을 신임 원로의원으로 선출했었다.

회의에서는 또 "원로의원은 대종사 중에서 추대한다"로 종헌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종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종헌에는 "대종사급에서 추대한다"로 돼 있다.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중앙종회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비구니 명사 법계 품수자 법계 품서식을 10월 23일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혜운(前 운문사 주지), 정화(前 견성암선원 선원장), 광우(前 전국비구니회 회장), 정훈(영화사 회주), 묘엄(봉녕사 주지), 지원(금련사 주지), 명성(전국비구니회 장) 스님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혜정, 보성, 인환, 종진, 설정 스님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Tip 법계란?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질서의 기본이다. 모든 법계 품수자는 종단책무와 사회교화를 감당할 책임을 갖는다. 법계는 고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종정이 수여한다. 그러나 법계1급인 대종사는 특별전형에 한한다. 비구법계는 1급 대종사, 2급 종사, 3급 1 종덕, 3급 2 대덕, 4급 중덕, 5급 견덕으로 구분된다. 비구니법계는 1급 명사, 2급 명덕, 3급 1 현덕, 3급 2 혜덕, 4급 정덕, 5급 계덕으로 나뉜다.

법계위원회는? 법계위원회는 각급 법계의 품서, 특별전형, 포상법계 등을 관장하는 기구다. 법계품서를 위한 고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계품서를 사정하고 그 시행을 관장한다. 대종사 및 종사의 특별전형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이를 종무원에 통보한다. 또 법계에 따른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행복 밥차로 사랑 나눕니다" 웅진코웨이(사장 홍준기)가 9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또또사랑 행복밥차 기증식'을 열고, 1톤 냉동 탑차 5대를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에 기증했다. 탑차는 사회복지관 5곳에 배치돼 무료급식 등에 이용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기증식에 참여한 문대골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강명순 목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홍준기 웅진코웨이 사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념 스님, 신필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재일 신부(성공회 푸드뱅크). 글/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현안 해결 대책기구 동국대 문제 등 주요 의제로

조계종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기구는 9월 12일 조계사 인근에서 첫 모임을 갖고 의제와 소위 구성 등을 결의했다. 대책기구는 이날 모임에서 △동국대 문제 △종단 주요 문제 사찰 △종책 · 종법 · 문화재관람료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또 대책기구 위원장에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을 당연직으로 추대했다. 간사는 양진수 중앙종회 사무처 팀장. 대책기구는 영담, 지홍, 수현, 장적, 향적, 성직, 현문 스님 등 7명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대책기구는 오는 11월 정기중앙종회까지 결과물을 도출하고, 중앙종회 의장 스님이 개원 인사말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차기 회의는 9월 19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추석 연휴 신문 배송 안내

본지 647호는 9월 21일 제작하여 22일 정상적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나 우체국의 추석 연휴 업무 정체 관계로 독자여러분께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휴 관계로 648호는 10월 6일 발송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告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7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 2008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82
- 이메일 접수 : jygang@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지관 스님 "학력위조 아니다"

"불교계 이력 인정받아 특별전형으로 마산대 편입" 해명

학력위조 논란 여파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에게도 미쳤다. MBC는 9월 12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지관 스님이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 대학에 편입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대학졸업장을 자격으로 석 ·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9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산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지관 스님은 "1961년 해인사에서 설립했던 마산대 3학년에 특별전형을 통해 편입학했다"며 "편입학 시기에 즈음해서 마산대로부터 불교계의 수행이력과 불교교육기관(통도사, 해인사 불교전문강원) 이수 및 교수 경력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편입학 제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관 스님에 따르면 편입학 과정에서 해인사 불교전문강원 이수와 강의경력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마산대에서 특별사정을 통해 3학년 편입학을 허용한다는 통지를 받아 학교에 등록했다. 또 편입한 뒤 일주일에 이틀은 마산대에 강의 받으러 갔으며 졸업했다는 것이다.

지관 스님은 "동국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 학력문제가 발생해 당시 문교부와 안기부까지 나서 한바탕 나리를 쳤으나 결국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관 스님은 "이 문제로 말썽을 일으켜 창피스럽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산대 학적부와 관련 총무원은 "학적부에 3학년 편입학 이전의 학력 기재사항은 지관 스님과 무관하게 당시 마산대 담당자가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지관 스님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MBC 보도에 대해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지관 스님의 마산대 졸업증명서를 공개하며 "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최근 종단 상황과 관련 "그 동안 능력이 부족해서 매끄럽게 종단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장윤 스님과 만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관 스님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글=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3-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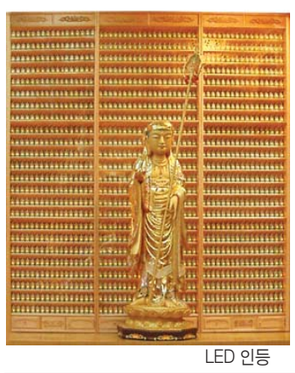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LED 인등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청사초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삭바소고 신임대사, 지관 스님 예방

삭바소고 달라이 라마 법왕 동아시아 대표부 신임대사가 인사차 9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삭바소고 신임대사가 "달라이 라마는 불교의 자비사상과 인간의 가치를 널리 알렸고 종교간 화해의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소개하자 지관 스님은 "각국 불교의 형식은 다르지만 일불제자로 부처님 가르침은 같다"고 화답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찰 곳곳서 개산대제 행사 풍성

조계사, 종단 최초 이주노동자 수계 ·유아 수기법회 개최
범어사선 禪문화 체험행사·통도사는 산사음악회 등 마련

개산대제의 계절이 왔다. 사찰 창건일을 기념해 열리는 법회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이어 다채롭게 봉행된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창건 97주년을 맞아 종단 최초로 이주노동자 수계법회와 유아 수기법회를 개최한다.

이주노동자 수계법회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중 스리랑카, 네팔, 몽골, 베트남 출신 400~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10월 7일 오전 11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 후, 낮 12시부터 무료진료와 무료법률상담 등을 포함한 화합마당과 솟대만들기 등을 포함한 체험마당으로 이어진다. 오후 3시부터는 야단법석 등 문화마당이 펼쳐진다.

10월 6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되는 유아 수기 법회는 유아들을 불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된다. 총무원장스님이나 포교원장스님이 계사로 300여명의 유아에게 수기한다.

왕이 스님들을 초청해 차를 대접하던 행사인 궁중선다례제도 재현된다. 10월 11일 낮 12시 20분 명원문화재단 진행으로 열린다. 역대주지스님인 월탄(8일), 지홍(9일), 법등(10일) 스님 초청법회도 봉행되며, 조계사의 창건의의와 현대 한국불교에서 조계사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나아갈 방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대중강연회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제5회 회화나무음악회(12일), 농산물 직거래 장터(4~11일), 조계사 사진전(5~10일), 불교교양강좌 작품 전시회(6~10일), 3000배 용맹정진(6일)도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산 1329년 선문화축제-행복참선으로의 초대'를 봉행한다.

행사는 불자대상을 받은 방송인 강부자씨가 출연하는 '행복불자가족 참선법회'를 시작으로 법요식, 박범신 명지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강의하는 '명사초청 행복불자강연' 등으로 이어진다.

합창제, 산사가족음악회 등 각종 공연도 열리며, 불무도 체험, 한국 전래문화체험, 범어사 가람순례 선문화 체험 등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또 가족사랑 명상걷기대회, 의상 대사 백일장 및 사생대회, 다비식도 열리며 행사기간 동안 템플스테이와 사찰선차 다과체험, 각종 전시회도 선보인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1362주년 영축총림 개산대제'를 개최한다. 개산대제는 산사음악회 및 영화제, 자장 율사 학술토론, 우리농수산물 장터, 농악한마당, 도자기전시회, 사생대회, 부도헌다제, 괘불탱화특별전, 점등식, 바라춤 및 영·호남 수륙 염불, 띠 달기, 재롱잔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산 7년 개산문예축전-함께 밝히는 용두산 佛빛 등대'를 마련한다.

행사는 선차 시연, 천년자비 삼천불 삼천등 점등식, 어린이그림 전시회, 선방참선체험, 사찰음식시연 등으로 꾸며진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불교계 단체 교단청정총 구성 협의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계 출·재가단체들과 교단청정위원회 구성을 협의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9월 12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열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을 비롯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수석부회장 법안 스님,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등 출·재가단체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교단청정위원회 구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현실적인 여건으로 봐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단 총무원 실무자들과 만나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빠르면 내달중으로 총무원 기획실, 총무부 등 종단 실무부서와 불교단체 관계자들은 '교단청정위원회 구성'을 주제로 모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일 기자

진명 스님, 관음사 소송 '없던 일로'

중원 스님, 총무원장선거무효 訴

제주 관음사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스님이 소송 일체를 취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진명 스님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 △제주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주지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중앙지법에 계류중인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본안 소송 등 총 3건을 취하했으며, 소 취하서와 함께 향후 관음사 주지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제출했다"고 9월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진명 스님은 불교신문(9월 15일자)에 "제주도 관음사 사태와 관련해 종도와 불자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참회를 올린다"라는 참회문을 발표했다.

한편 제주 관음사 前 회주 중원 스님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상대로 '총무원장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사서 임명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는 9월 12일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을 중앙종회의장 사서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중앙종회의장스님의 의전 문제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의전 보강 차원에서 사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현종 스님은 1987년 사미계, 9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구족계 수계산림연수 후 한자리에 모인 참석자들.

삼보조계종 구족계·승가고시 시행

스님 198명에 법계품서

삼보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9월 6일부터 7일까지 칠곡 위봉사에서 수계산림과 승가고시를 시행했다.

이날 증계3화상, 전계3화상, 7존아사리를 모시고 법계품서를 받은 스님은 대종사 5명, 대선사 5명, 종사 10명, 선사 8명, 종덕 32명, 대덕 38명, 중덕 50명, 선덕 30명, 학사 15명, 전교사 5명이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승가 위계 질서를 바로잡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 나갈 것"이라며 참가한 사부대중을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개최

제1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북경과 상해 등지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본대회 및 보타낙가산 일대 성지순례 일정을 9월 5일 확정하고, 120여명의 대표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번 대회는 북경에서 10월 26일 오전 9시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중한일 국제학술강연회(주제: 부처님의 지혜로 세계화합을 촉진하자)가 펼쳐진다. 이어 27일부터는 중국 관음성지인 보타낙가산과 상해 옥불사 등을 순례한다.

김주일 기자

간화선 실참수행 향상과정 진행

조계종 교육원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안암동 중앙승가대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제1회 간화선 실참수행 향상과정'을 진행한다.

교육은 선원장급 스님의 특강과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총 10품)을 위주로 진행된다. 40명 선착순 마감이며, 연수비는 10만원.

이 연수를 이수한 스님 중 현직 사찰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경우 올해 본말사 주지연수를 대체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02)2011-1807~9

남동우 기자

태고종 전통사찰 주지協 구성

태고종이 중앙과 지역 전통사찰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수행환경 풍토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9월 12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총무원장 운산, 승정원장 남파 스님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사찰 주지 종회'를 개최하고 '전국 전통사찰 주지협의회'를 결성했다. 회장에는 선암사 부방장인 지허 스님(금둔사 주지)을, 부회장에 혜공(대구 관암사 주지), 원봉(청주 보현사 주지), 법운 스님(전주 용화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김주일 기자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 법정 구속

공주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이 국고보조금 횡령과 말사주지 품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공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9월 14일 진각 스님에게 징역 1년과 4억 6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圓 輔國佛教 念佛宗 宗正 金海堂 晴峰 大宗師 永訣, 茶毘 奉行 寂

삼보님께 지심 귀의 하옵니다.
보국불교염불종 종정 금해당 청봉 대종사께서 **양력 2007년 9월 11일 저녁 11시 30분**에 세록을 다하시고 원적에 드셨음을 고합니다.

◆ 永訣日時 : 佛紀 2551(2007)年 9月 17日(陰 8.7) 午前 10時
◆ 永訣式 및 茶毘場 : 鷄足山 圓光寺 道場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229-10 전화 042)282-6936 / 전송 042)285-4488

• 49재 안내

초재(다비)	양력 9월 17일(월) 10시	원광사
2재	양력 9월 24일(월) 10시	원광사
3재	양력 10월 1일(월) 10시	원광사
4재	양력 10월 8일(월) 10시	원광사
5재	양력 10월 15일(월) 10시	원광사
6재	양력 10월 22일(월) 10시	원광사
7재(49재)	양력 10월 29일(월) 10시	원광사

• 증 명 법 사 : 해 월, 덕 산
• 장례위원장 : 원 광
• 儀 典 : 송 산, 법 장, 백 륜
• 弘報 · 財務 : 해 천, 호 륜
• 上 佐
갑륜, 법륜, 법장, 현각, 대륜, 월륜, 송륜, 혜륜, 종륜, 등륜, 향륜, 흥륜, 광륜, 경륜, 백륜, 호륜, 정륜, 복륜, 장륜, 몽륜, 양륜, 묘륜, 도륜, 여륜, 보륜, 범륜, 태륜, 원륜, 일륜, 재륜 해원, 혜명, 보원, 원공, 성수, 무량, 광법, 혜월, 혜인, 자은, 자애, 지원, 도일, 상원, 경원, 정원, 청정심, 대법신, 길상화, 원력화, 원명

輔國佛教念佛宗 總本山 總務院 圓光寺 總務院長 圓光

김지하 시인 동국대 석좌교수로

"불교생태학 등 특성화에 큰 도움 될 것"



시인이자 생명운동가인 김지하씨(66, 사단법인 생명과 평화의 길 이사장 · 사진)가 동국대 강단에 선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9월 1일 자로 김지하씨를 석좌교수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김지하 교수는 앞으로 동국대에서 생명과 환경 등에 관한 특강을 맡게 된다.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1969년 시 '황톳길'로 등단해, 시집 <황토>, <타는 목마름으로> 등으로 유명한 김지하씨는 6,70년대에는 반체제 저항시인으로, 80년대 이후에는 생명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동국대는 "생명과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지하씨를 석좌교수로 임용함으로써, 동국대의 불교생태학 및 생명공학 등의 특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는 이밖에도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널리 알려진 미시간 공대 조벽 교수와 연극연출가로 활동 중인 前 서울예술대학 학장 안민수씨를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조벽 교수는 동국대에서 공학교육의 최신교수법 등에 관한 자문 및 강연을, 안민수 교수는 연극 연출 분야에 관한 특강을 맡게 됐다.

김주일 기자

30억 상당 토지 동국대에 기증

이순희 할머니 쾌척…장학금 신설 계획

병상에 누워있는 80대 할머니가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시가 30억 상당의 토지를 동국대에 기부했다.

올해 81세의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순희 할머니는 9월 10일 대학본관 교무위원회실에서 여동생 부부를 통해 동국대 오영교 총장에게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토지 2,669㎡(약 810여평)을 학교에 기증했다.

이순희 할머니는 한국전쟁으로 남편과 생이별 후 아들마저 세상을 떠 지금까지 홀로 살아왔다. 이순희 할머니는 평생 삯바느질해 모은 전 재산인 이 땅을 동국대에 기증했다.

할머니는 동새부부를 통해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어 장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학생들을 키워줄 것"을 당부해 왔다.

김주일 기자

"학력 위조 아니다 발언에 책임"

동국대 학사 부총장 · 지원본부장 사퇴

"조사결과 신정아씨의 학력위조가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한 동국대 부총장과 학사지원본부장 등 학사 담당 보직 교수들이 사퇴했다.

9월 13일 동국대 측은 지난 8일 한진수 학사부총장 겸 경영부총장과 이상일 학사지원본부장, 이형우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동국대의 한 관계자는 "한 부총장과 이 학사지원장 등은 신 교수 학력위조 사건 조사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느껴 스스로 사퇴했으며 이 전략기획본부장은 개인적 사정으로 사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부총장과 이 前 본부장은 신 교수의 박사학위 위조 의혹이 제기되자 7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진상 조사결과 신씨의 박사학위가 진짜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 부총장은 경영부총장만 맡게 되며 학사부총장에는 최순열 국어교육과 교수가, 학사지원본부장에는 이명천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전략기획본부장에는 홍성조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김주일 기자

우리 사는 세상 깨끗해지길

환경책큰잔치 조계사서 15일까지 열려



조계사에서 열린 환경책큰잔치에 불자들이 관심이 높았다.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 도서 전시회가 9월 10~1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렸다.

환경정의(공동대표 김일중)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 조계사(주지 원담)가 공동주최한 '2007 환경책 큰잔치'는 2002년 처음 열린 후 이번이 6번째 행사다.

조계사 앞마당에 마련된 부스에는 환경책 큰잔치 실행위원들이 선정한 '우리시대의 환경고전 18권'과 '올해의 환경책 12권' '올해의 환경책 10권' 등이 전시됐다.

개막식에서 환경책 큰잔치 공동추진위원장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류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을 담은 환경 도서를 통해 환경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꾸준히 환경도서를 발간해온 출판사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한우물상'의 올해 시상자로는 <몽실언니> <강아지똥>을 지은 故 권정생 선생이 선정됐다. 환경책 큰잔치 추진위원회는 실상사 작은학교와 부산 반송동 희망세상도서관에 환경책 32권을 각각 기증했으며, 9월 13일에는 윤구병 변산생태공동체 대표를 초청해 저자와의 만남 시간을 마련했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흥덕사 건립 촉진 결의대회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인쇄된 흥덕사를 복원하기 위한 '흥덕사 건립 촉진 결의대회'가 9월 8일 청주 흥덕자시 앞마당에서 열렸다.

흥덕사 건립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박명의)는 이날 각의 스님과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흥덕사 건립을 발원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 흥덕사 건립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흥덕사를 우리 민족의 문화 유적지로 조성해 직지의 세계화, 청주의 세계화를 이룩한다는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불교정책토론회 준비위 발족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불교 관련 정책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남배현)와 불교정책기획단(공동대표 승원)은 9월 3일 '제17대 대선 후보 불교 정책 토론을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발족된 준비위원회는 불교 관련 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단일 창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여수령 기자

사찰서 추석 지내세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고향을 찾아 조상에게 예를 올려야 하지만 남북분단 때문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또 번잡함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나 홀로 여행족'도 있다. 길게는 9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동안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내면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구례 화엄사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달빛아래 다섯 날'이라는 주제로 한가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부안 내소사는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석맞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해남 대흥사 또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송편 빚기, 차례지내기, 윷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구례 천은사, 동해 삼화사, 서산 부석사 등도 추석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

남동우 기자

사찰명	프로그램명	일 정	참가비인원	전화번호/홈페이지	프로그램 내용
화엄사	달빛아래 다섯날	9월 22일~26일	(4박) 50명	061-783-7600 www.hwaeomsa.org	사사자탑 달빛아래 참선, 송편빚기, 조상을 기리는 합동추모제, 암자순례, 유언노트작성 등
내소사	추석맞이 템플스테이	9월 22일~25일, 9월 22일~25일, 9월 23일~26일, 9월 22일~26일, 9월 22일~29일	7만원(2박) 9만원(3박) 10만원(4박) 50명	063-583-3005 www.naesosa.org	변산반도 트래킹, 108염주 꿰기, 송편 빚기, 보름달 맞이 참선
대흥사	한가위 템플스테이	9월 23일~26일	3만원(1박)	061-535-5775 www.daeheungsa.co.kr	송편빚기, 차례지내기, 달빛아래 참선, 달빛아래 고구마 굽기
천은사	지리산노고단 산행템플스테이	9월 22일~24일	30명	061-781-4800 www.choneunsa.org	코스:천은사-성삼재-노고단오르기, 주먹밥만들기, 천은사 계승 민요 배우기, 생태체험
골굴사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9월 23일~26일	4만원(1박)	054-744-1689 www.golgulsa.com	솔잎따기, 송편빚기, 주지스님과의 차담, 차례지내기, 전통민속놀이(윷놀이 등)
부석사	추석 템플스테이	9월 22일~23일, 9월 24일~26일	4만원(1박) 6만원(2박) 20명	041-662-3824 wwww.busuksa.com	실크스카프 염색체험, 조상추모제, 윷놀이
삼화사	한가위 템플스테이	9월 23~25일	성인: 7만원 청소년: 4만원 40명	033-534-7676 www.samhwasa.or.kr	가을산행 프로그램 A코스: 삼화사-관음암-하늘문-신선봉-사원터-쌍폭포 B코스: 삼화사-관음암-하늘문-쌍폭포-용추폭포-수도굴-12폭포-두타산성-삼화사
연등 국제선원	염화미소 선수련회	9월 23일~26일	일반:13만원 학생:10만원 선착순 20명	032-937-7033 www.lotuslantern.net	참선, 좌선, 108배, 마니산 산행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 5cm, 5 x 7cm으로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진공청소 · 물걸레청소 · 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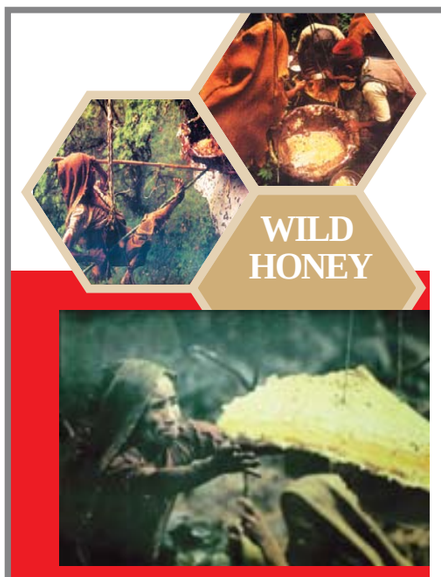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Intelligent Home Robotics K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I Love Buddha / 과정

용정운(www.zentoon.com)





놀라운 히말라야 석청(꿀)

히말라야 석청은 지역, 환경, 높이, 계절 등에 따라 A급,B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최고급의 A급 석청은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해발 3,500~4,000m 사이 험지의 계곡, 절벽틈사이에 있으며 이곳에서 채취하는 석청은 최고급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석청은 보통 같은 장소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채취가 가능하므로 그만큼 귀한상품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석청은 한번에 많이 복용한다고 빨리 약효를 보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간혹 많이 아픈분들이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 많은 양을 복용하시다 하루종일 고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석청을 복용하는 네팔의 왕족이나 티벳의 고승들도 하루에 10mm 정도를 2~3번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효과

히말라야 석청은 다양한 질병과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몸의 독소를 내보내 체질을 개선시키는가 하면 피를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의 면역력을 높여 만성질병을 치료하는데 으뜸입니다.
또한 간혹 석청을 적량 이상 드셨을때 '명현현상'이 일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던 석청이 몸속의 독소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자연적으로 몸의 아픈곳을 공략하여 치료를 해주는데 이 과정이 차츰 몸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청은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고혈압, 야맹증, 아토피,관절염, 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고질병, 혈액순환장애 등에 효과를 나타낸다.

신체균정이란?
신체불균형 예방과 균정술(均整術)을 통해 자세와 골반을 바르게 교정하여 잘못되었던 모든 기능들을 현저하게 회복 시키면서 운동능력을 향상 시킨다.

현대인의 병명이 없는 병, 무기력, 만성피로, 두통, 생리불순, 요통, 성기능강화, 학업능력 향상, 집중력 강화에 최고의 수기요법이다.

대한신체균정
중풍.만성피로.혈액순환.비만.오십견
디스크.골반.짝다리.척추.자세균정 등

신체 균정 氣 순환 운동요법 | 네팔 약재 무역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과 교도소 수행자 기금으로 쓰여짐을 알려드립니다.

구매문의 : 011-9750-8434
국민:650701-01-176636(예금주 : 원용대)

상기 상품(신발, 석청)구입시 대한신체균정 협회에서 무료 교정 및 시술해 드립니다.



마사이족처럼 걸어라!

한국원천기술로 국내특허를 획득하고 부산최고 생산공장에서 완성도 높게 제작된 마사이워킹슈즈 거품을 뺀 합리적인가격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바르게 걷는 방법
01 RYN을 신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다.
02 기만히 서서 뒤에서 앞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발목을 돌려가며 발목과 무릎근육등 긴장을 풀어준다.
03 발뒤꿈치 바깥쪽부터 닫는다.
04 발중앙에 무게중심을 옮긴다.

"발과 가장 닮은 신발, 구름위를 걷는듯한 편안함, 건강해 집니다. 그리고 행복해 집니다."

전국 130여개 대리점에서 절찬 판매중 입니다.



가격:198,000원
SIZE / 225 – 250
●재질 : 가죽

캐쥬얼 그레이 민트 Masaian Casual Series

가격:198,000원
SIZE / 225 – 250
●재질 : 가죽

캐쥬얼 레드 Masaian Casual Series

캐쥬얼 블랙 Masaian Casual Series

가격:198,000원
SIZE / 225 – 285
●재질 : 가죽

캐쥬얼 드림 Masaian Casual Series

가격:198,000원
SIZE / 225 – 285
●재질 : 가죽


RYN워킹모습
곧은 자세, 무릎 곧음


일반워킹모습
허리굽은 자세, 무릎굽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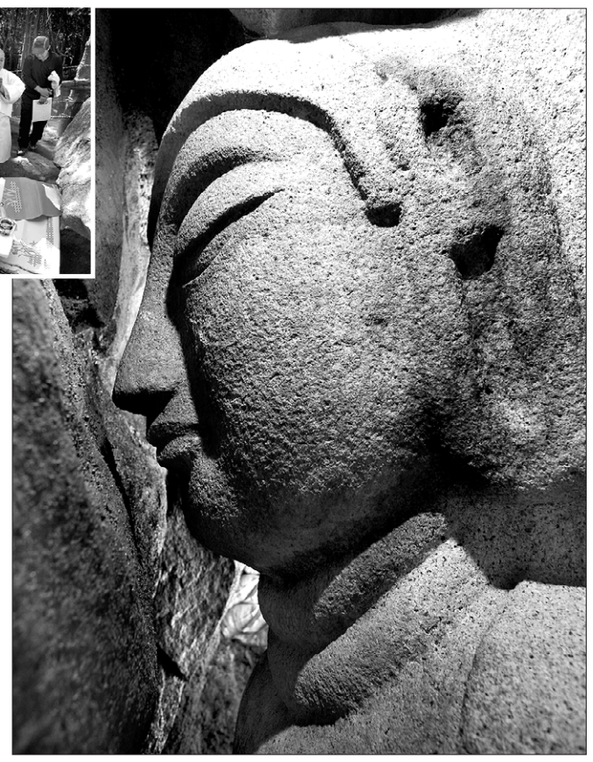
RYN Awards | 마사이 워킹슈즐린 수상내역

헤럴드경제 베스트상품선정 | 주간여성 히트상품대상 | 헤럴드경제 베스트상품선정 | 주간여성 히트상품대상

‘천년의 미소’ 드러낸 신라 마애불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9월 10일 마애불상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오똑한 코·도톰한 입술 등 원형 간직
지관 스님 열암곡 방문 친견법회 봉행

땅 속에 묻혀 있던 천년의 미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9월 10일, 지난 5월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곡의 통일신라 대형 마애불의 상호(相好)를 공개했다(사진 오른쪽). 열암곡 마애불상은 높이 6m에 무게가 70톤에 이르는 화강암에 조각된 것으로, 발견 당시 앞쪽으로 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불상의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마애불은 타원형의 얼굴에 오똑하게 솟은 코와 아래로 내리뜬 길고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도톰하고 부드럽게 처리된 입술 등이 표현되어 있으며 육계가 높고 민머리[素髮] 형태를 하고 있다.

특히, 귀는 발제선(髮際線, 머리털이 난 끝선)에서 어깨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고 평면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어깨는 넓고, 가슴은 펴고 있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인인데, 보통 시무외인 여원인과는 달리 손등을 바깥으로 향한 채 왼손은 가슴 위에, 오른손은 하복부에 대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마애불의 볼륨 있는 상호와 날카로운 눈매에서 느껴지는 엄숙함 등 통일신라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8세기 후반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불상이 위치한 열암곡은 입지가 협소해 중장비의 접근이 어려워 불상을 일으켜 세우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불상을 90도 회전시켜 와불(臥佛) 형태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이날 경주 남산을 방문해 열암곡 마애불상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부장 현문 스님과 불교중앙박물관 관장 범하 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등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1300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보존이 잘 돼 있는 것은 부처님의 신력”이라며 “독립된 돌에 조각한 것이므로 마애불이 아닌 석조여래입상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금복사, 300년 된 불상서 사리 발견
국·한문 혼용 <법화경>도

김제 금복사(주지 도선)의 불상에서 사리와 국 · 한문 혼용 <법화경> 등이 발견됐다.

금복사는 조성된 지 300여 년 되는 이 불상의 복장에서 나온 사리 2과와 사리함, 국 · 한문 혼용 <법화경> 4권을 9월 10일 공개했다. 또 사리함에서는 사리와 볍씨 등 5곡을 싸고 있던 5색의 비단이 나와 17세기 직물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리함을 싸고 있는 발원문에 따르면 이 불상은 강희 15년(1676년) 5월에 조성돼 완주군 고산면(현 운주면) 대둔산 안심사 소속 화장암에 봉안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누군가에 의해 익산시 황등면 황룡사로 옮겨졌다가, 1986년 도선 스님이 현재의 금복사에 봉안하게 됐다고 사찰측은 설명했다.

<법화경>은 총 6권 중 1~2권은 소실된 채 3~6권만 남아 있는데, 제작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내용이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 있는 이 <법화경>에는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읽는 법과 뜻풀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있어 한글 변천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복사 관계자는 “최근 불상을 개금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복장에 부처님 사리와 <법화경> 등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초심자 위한 호계불교대학 개강



울산 연화사(주지 덕륜)는 9월 12일 제4기 호계불교대학 개강식을 봉행했다(사진). 개강식에서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은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법문했다.

2005년 문을 연 호계불교대학은 수강생 중 초심자들이 특히 많다는 것이 특징. 덕륜 스님은 “호계불교대학에는 처음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포교의 참된 열매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불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052)293-5550

하성미 기자

대불련 제5회 총동문회·전진대회 개최
“초발심으로 새롭게 도약”

1965년부터 역사의 중심에서 불심으로 주춧돌 역할을 담당해왔던 대학생 불자동문들이 모였다.

‘초발심으로 미래도약!’을 마음에 새기고 지난 9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에 모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전보삼) 동문 300여명은 제5회 대불련 총동문회를 개최하고 법회, 수계식, 대불련 희망 띄우기 및 전진대회를 통해 미래를 향한 발전을 기약했다.

또 나눔과 봉사를 위한 사단법인 ‘(가칭)자비실천연대’ 설립 경과보고를 통해 앞으로 복지 및 봉사와 아울러 대학생 불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및 대학생 포교에 주력할 것을 결정했다.

입제식에서 전보삼 총동문회 회장은 “1963년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창립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4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이 땅의 중생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을 위해 용맹정진 해왔다”며 “우려를 금치 못할 지금의 불교계 현실과 세계적 흐름 속에서 44년 전 대불련의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원력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초발심을 되새겼다.

이날 참석한 이성균(부경대 75학번) 대불련 동문회원은 “추석을 맞아 바쁜 시간 중에 참여했는데 과거에 함께 활동했던 동문들을 만나니 기쁘고 즐겁다”며 “과거에 비해 활동하고 있는 불자대학생들이 적어지고 있어 안타깝지만 설립 중인 ‘자비실천연대’를 통해 대학생 포교 및 복지 지원을 할 수 있어 희망이 보인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입제식에서 대불련 총동문회는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 기관 협의회(회장 혜종) 이춘성 사무국장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자비의 쌀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13개 복지관에 전달된다.

하성미 기자

“강릉지역 포교 새 場 연다”
교동에 불교문화원 개원

강릉의 신도시인 교동에 솔올불교문화원(원장 현종, 현덕사 주지)이 개원했다.

솔올불교문화원 개원법회에는 9월 8일 등명낙가사 주지 청우, 범어사 선원 방두, 강릉 선혜원장 무승스님을 비롯해 심종인 강릉시 의원, 임용수 교1동장, 조수현 교1동 자치위원장, 김진철 현덕사 신도회장, 박용자 공덕회장, 최정규 솔올불교문화원 운영위원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원장 현종 스님은 “오늘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개원법회에 동참한 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문화원을 잘 운영해야겠다는 원을 세웠다”며 “향후 영동지방의 중심지가 될 이곳에 택지가 조성된지 10년만에 법당을 세운만큼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청우 스님(강릉불교사암연합회장)은 법문에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문화원이 됐으면 한다”며 “시민들에게 불교문화와 다양한 신행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침체된 지역포교를 위한 포교당이자 문화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50여평의 솔올불교문화원은 요가, 민요(아리랑 회심곡 등), 야생화 분재, 불화 및 민화그리기, 웰빙 사찰음식, 참선 및 하심수행, 다도, 어린이 한문, 사경, 천연염색 등의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한다.

특히 9월15일 입학식을 개최한 솔올불교대학은 1년 과정으로 불교입문, 불교사의 이해, 불교사회복지 등의 교과목을 통해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체계적인 불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033)655 -5878

김원우 기자

대구·경북 재가연대 창립

대구 · 경북 참여불교 재가연대(대표 박운식)가 9월 8일 창립했다.

8일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2층에서 열린 창립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원장,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등 5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대구 · 경북 참여불교 재가연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사부대중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운영하는 청정교단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한국불교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며 “대구 · 경북 참여불교 재가연대의 창립으로 참여불교 운동이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어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운식 회장은 “대구 · 경북 재가연대 창립을 위해 3년간 애써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불교계와 우리 사회가 청정하고 투명한 사부대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경북지사장

경불법우회 10주년 기념 법회

경북대병원 의 · 치과대학 불교법우회(회장 이원길, 이하 경불법우회)가 9월 10일 경북대병원 대강당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 스님은 ‘해체주의와 화엄’ 주제 특강을 했다.

경불법우회는 1997년 6월 창립한 이래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달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등을 봉행하는 한편, 불우이웃돕기 등의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원길 회장은 “경불법우회 회원들이 부처님 가르침 아래 더욱 정진하고 회향에도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연내에 캄보디아 우물 파기 성금 150만원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경북지사장

파라미타 11주년 기념 행사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는 9월 8일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열고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과 연극 ‘목련존자 지옥문을 열다’ 등 다양한 문화의 장을 마련했다.

8일 부산 동래중학교 체육관에 모인 청소년 500여명은 춤, 노래, 마술쇼 등 다양한 재능을 뽐냈고 법회에 참석해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 등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날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회는 지역 학생들에게 모범상과 봉사상, 참가봉사상 등을 수여했다.

하성미 기자

중앙불교대학원 남 · 여 <승려 교육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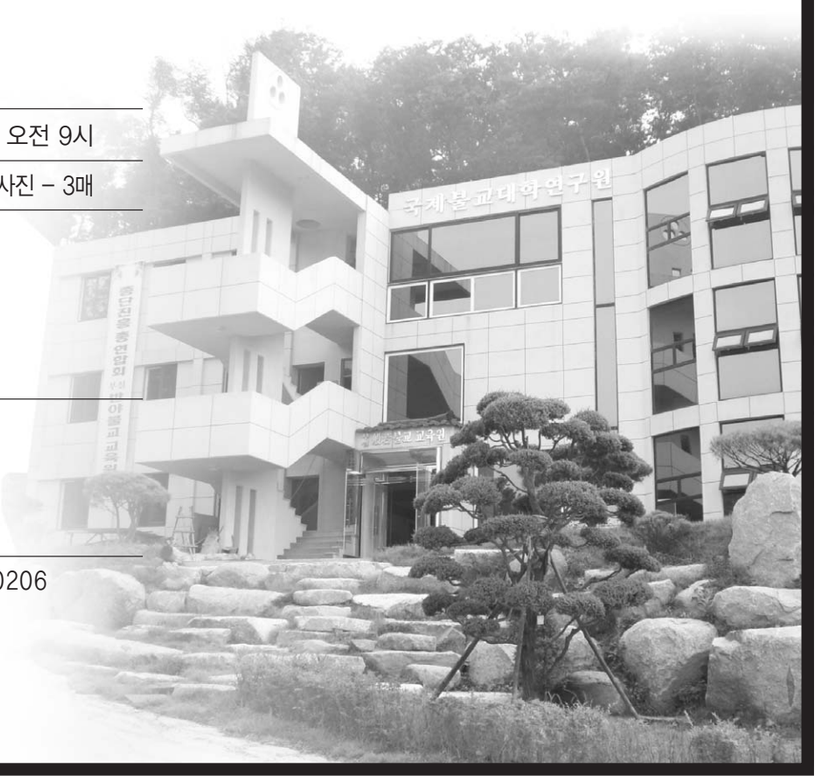
기본과정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범음,범패,작법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계작법(나비춤)등
불교학 개론	대승불교, 초기불교, 화엄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선사상, 밀교사상, 유식사상,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초발심자경문

※ 불교학을 알아야 법문(설법)을 잘한다. 교육하면서 지도자적 발성 지도함.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1-212404 (예금주 :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 모집인원 : 30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개강일시 : 2007년 9월 15일 오전 9시
◆ 제출서류 : • 입학원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 1통 • 반명함판사진 – 3매
◆ 중앙불교대학원 교수진
– 회암스님 · 前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지.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학 출신. 철학박사
– 마정스님 · 종단진흥회 부회장 겸 임제선학원 원장. 철학박사
– 혜성스님 · 바라범패 전수자. 구화종 총무원장
* 기타 필요강사 초빙 강의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전사항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단 숙식 거주자만 접수함(한달숙박비 50만원)(지도강의료는 무료임)

◆ 문 의 : 본대학 사무국 : 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5-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공)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부설 중 앙 불 교 대 학 원

구시바위·국사암 등 도선 국사 전설 가득



석조여래좌상(보물 제89호).



도갑리.



범종각과 주초만 남아있는 건물 터.



대웅보전과 3층석탑.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28 월출산 도갑사

상가, 주차장서 먼 거리에 위치 주민들 이전 희망
사하촌 역사 30년…불자보다 등산객 많이 찾아와

주차장을 지나 한참을 가서야 상가 건물들이 보인다. 걸어 들어오기에는 꽤 먼 거리다.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가게는 텅텅 비어 있다. 산나물이나 계절 과일 등을 파는 노점상도 하나 없다. 칠팔 년 전쯤 와보았을 때와는 영 딴판이다. 가게의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하고, 나를 바라본다. 행여 손님이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빛들이다. 평상에 두어 사람이 앉아 있어서 말을 붙인다.

"등산객이 있기 짜울래 묵고 살제. 절만 있는 디는 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그럴 때만 딱 있고, 끊어지는디, 여기는 그라든 않제."

다른 지역 절 근처 상가에 비해 이곳은 월출산이라는 명산이 있기 때문에 사철 손님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 보인다.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유를 묻자 한참 동안 침묵이 지속된다.

"화장실이나 한나 지서주락 하시오."

한 사람이 참았던 방귀 뀌듯 말을 툭 뱉는다. 그 말끝에 저마다 후렴을 넣는다. 상가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 상가 전체의 화장실이다. 식당은 많아도 화장실이 멀리 있으니, 한 번 불편을 겪은 손님이 다시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전에 왔을 때는 훨씬 활기가 있었다는 말을 하자,

"전에는 다른 디가 장사라는 것이 없었어. 영암군에서 갈 디는 여그 밖에 없었어. 근디 지금은 다섯 발짝 가면 한 집 있고, 또 한 집 있고 그라듬마. 한 삼십 집 너머 되는 거 같어. 딴 디 가면 빤듯빤듯한 건물 지서놓고, 그란디 여그 오것오? 풀밭에다 그림 그레 놓고 있는디 여그를 오겄어요? 글고 전에는 초파일이라면 초파일로 한 일 년 묵고 산닥 했는디, 지금은 초파일도 다른 디 가불제. 여그 오겄오?"

물꼬는 터졌다.

"글고 주차비 받는 뒤로 더 안 되불어. 볼 것이 없제."

가게가 꽤 크다. '부자네요?' 하였더니, 고개를 잘래잘래 젓는다.

"아이고. 절 땅이제. 여그는 개인 땅 없어요. 건물만 개인 거제."

상가마다 화장실이 따로 없는 이유도, 절에서 짓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세는 얼마나 내느냐고 물었더니, '아. 인자. 사찰이라 많이는 안 내' 라고 대답한다.

"군서면 사람이 서울 가 잘 되갖고 와서 산장, 요것을 지섰어."

산장이 생기기 전에는 마을이 없었는데, 산장이 생기고 난 후 한 집 한 집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상가가 형성되었다는 얘기다. 산장은 35년 전쯤 생겼고, 서씨는 32년 전쯤부터 장사를 시작했다. 대개의 사하촌은 연원을 알기조차 어려운데, 이곳은 30여 년밖에 안 되었다. 가장 젊은 사하촌인데, 기력이 빠져 있다.

"여그도 잘만 해노면 무쟈게 잘될 것이오. 물 딱 가둬불고, 배라도 띄우고 그라면 잘 될 것이오. 그란디 안 하드라고."

왜 이렇게 사람 사는 문제는 다른 생명들의 터전을 빼앗는 쪽으로 향하는 것일까. 상가가 형성되기 전 이곳은 풀과 나무의 터전이었을 것이고, 귀뚜라미, 지렁이, 거미, 쥐며느리들의 집이 있었을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누구나 욕심쟁이다. 나서는 발길이 더 조심스러워진다. 행여 발에 밟힐 지도 모르는 작은 생명이 염려되어서이다.

영암=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주차장 얘기가 나오자, 다들 할 말이 많다.

"주차장도 동네 사람들 좋게 가게 하락 한당께, 동네 사람들 다 나서서 도장 찍어 줬제. 근디 주차장만 해놓고, 안 된닥 해부러. 그랑께 우리만 손해 봐부렀제."

"주차료 사천 원 받어 불고, 입장료 받고 긍께 둘이만 와도 돈 만 원 내야 된디, 누가 올락 하겄오? 다 돌아 가불제. 긍께 우리 장사 하는 사람만 죽어 놨제. 군수도 와서 여그 제대로 해야 되겄다 글듬마는 인자 쏙 들어 가부러."

주차장을 할 때, 상가도 그쪽으로 옮겨준다는 약속을 하여, 그것을 믿고,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아래쪽에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상가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완의 대웅전 뒤에 대웅보전이 있다. 대웅보전의 마당이 넓어졌다. 도갑사는 통일신라말 도선이 지었다고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영암은 도선의 고향이다. 그래서 도갑사에서 그리 멀지 않는 구림리 일대에는 도선 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국사의 어머니가 빨래를 하였다는 영암 성기동의 '구시바위', 처녀인데다 명분없는 아이라서 아이를 버렸던 반석인 국사암. 아이를 비둘기 떼가 품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된 마을 이름 구림(鳩林). 모두 도선 국사와 관련된 전설의 구체적 증거물이다.

대웅전 뒤로 이어지는 숲길을 걷는다. 계곡을 지나면 석조여래좌상을 모신 미륵전이 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 석불의 모습이 말끔하다. 십여 년 전 처음 보았을 때는 어떤 신비감 같은 게 느껴졌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세월의 더께가 벗겨진 것 같은 석조여래좌상. 결가부좌를 하고 항마촉지인상을 하고 있는데, 현판은 미륵전이라 붙어있다. 흔히 미륵부처의 모습은 반가사유상으로 표현되는데, 언제부터 미륵으로 모셔졌는지 알 수 없다.

오직 상가뿐인 도갑리로 다시 든다. 마을의 내력에 대해 알 만한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니, 번영회장을 찾으라 한다. 가르쳐준 가게로 들어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앉아있다. '번영회장 댁이 맞냐?' 고 물으니, 그렇다고 한다. 번영회장을 맡고 있는 서금단(70)씨다.

"천연 염색한 옷 입고 아토피 완치"…색(色)으로 건강한 삶 살기 실천

'참살이' 천연염색방 **서수현** 사장



오월이 되어 꽹나무 가지 끝에 돋아나는 새잎의 색을 무어라 할 수 있을까. 찔레꽃 필 무렵의 그 여린 감잎의 귀를 무슨 색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그래서 색(色)은 신비하다. 그 색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꿈꾸며 사는 이가 있다. 도갑사 매표소 근처에서 '참살이' 천연염색방을 하고 있는 서수현(44)씨다.

서씨는 단순한 염색장이가 아니다. 철학이 있고 경험이 바탕이 된 산지식이 있다. 그에 의하면, 현대에 질병이 많이 생긴 이유는 우리 몸이 거부하는 염료를 너무 많이 쓴 탓이다. 천연염료로 된 옷을 입으면 안 걸릴 병이, 참살이에서 벗어난 염료로 만든 옷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둘째가 중이염에 아토피였어요. 병원에 다녀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천연염색한 옷 입고 나서 완치 됐어요."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 옷이나 이불이기에 그것들은 그만큼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 자연에서 추출한 섬유나 염료는 우리 몸을 자연 속에 두지만, 화학 섬유나 화학염료는 우리 몸을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피부암 같은 질병 속에 둔다는 것이다.

그런 염색장이 엄마를 둔 탓에 막내아들은 세 살 때부터 천연염색 옷을 입고 살았다 한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자 아이들의 시기가 심했다. 할 수 없이 유치원 갈 때는 청바지를 입혔다.

"건강에 좋다고 이것저것 찾아서 먹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옷과 이불은 항상 우리 몸에 붙어 있잖아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지 생각해 보라는 말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www.njutcm.edu.cn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내신 80점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 사 과 정	3년	3명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및유학생전용기숙사,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삼화불교 교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10월 12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조기유학생모집
초 · 중 · 고1,2학년(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 학교)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10매 · 입학신청서 1통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일주문



마하출라롱콘대학과 자매 결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법산 스님은 9월 10일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동국대 불교대학과 태국 마하출라롱콘대학의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제3회 금강산림대법회 개최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0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경내 사자루에서 '제3회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061)755-0108



월산대종사 10주기 추모법회
보은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9월 15일 성림당 월산대종사 10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월산대종사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과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명절차례 특강·시연법회 개최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은 9월 18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열린선원에서 명절 차례 특강 및 시연 법회를 봉행했다. (02)386-4755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찻집
대한가수불자회 김흥국 회장은 9월 1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마포 불교방송국 지하 다보커피숍에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찻집을 개최한다.(02)713-2905

롯데 이대호 선수 군포교 홍보대사 위촉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9월 11일 잠실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이대호 선수를 군포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일면 스님은 "이대호 선수의 뛰어난 활약으로 군포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주일 기자**

인사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9월 12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열린 제93회 정해년 하안거 해제식에서 부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무원 스님(인천 황룡사 주지) = 총무부장 △용암 스님(포항 황해사 주지) = 재무부장 △경천 스님(대전 광수사 주지) = 사회부장 △영제 스님(부산 삼광사 주지) = 규정부장

부고 △보국불교 염불종 종정 금해당 청봉 대종사(사진)가 9월 11일 오후 11시 30분 원적에 들었다. 청봉 스님의 영결식은 9월 17일 보국불교 염불종 총본산 대전 원광사에서 봉행됐다. (042)282-6936



△본사 박재완 사진기자의 부친 박선오옹이 9월 1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장지는 부평 화장터다.

고침 지난 645호 '일주문'에 실린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의 기사 중 스님의 사진이 잘 못 게재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허운 스님께 사과 드립니다.

"인문학의 출발은 인간에 대한 호기심"

서울대 강단 떠나는 오세영 교수… 정년퇴임 기념 강연 가져

오세영 교수(한국시인협회 회장 · 사진)가 강단을 떠났다. 서울대에서 23년간 봉직한 오 교수는 9월 11일 오후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정년퇴임 기념 강연을 끝으로 학교에서의 강의를 마쳤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들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문인들이 참석한 이날 강연의 제목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

오 교수는 순수인문학의 쇠퇴를 걱정하는 시대 흐름을 지켜보면서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순수인문학의 중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군부시절 최루탄 가스가 캠퍼스를 뒤덮은 상황에서도 순수문학 강의를 고집하며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던 오 교수였기에 마지막 수업에서 뿜어내는 순수인문학에 대한 옹호는 처연하고 아름다웠다.

"이름을 얻지 못한 사물은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에 대해 나는 관심을 덜 갖거나 갖지 않게 된다. 시인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인문학의 출발이 사물의 인식에서만 출발한다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과 다를 것이 없다. 오 교수는 "인문학의 진정한 출발은 인간의 근원에 대한 호기심과 이성적 판단"이라며 "인간과 공동체, 인간 삶의 환경 등을 시간(역사)과 공간(철학)의 축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도외시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능적 호기심을 초월해 지적 호기심이 충족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근원을 탐구하고 그것을 알아낸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학은? 오 교수는 "모든 학문은 논리적 진리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문학은 모순의 진리를 추구한다"며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과 달리 문학은 모순의 진리를 통해 역사와 철학의 축에서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을 중심에 둔 창작과 학문적 접근에 많은 무게를 실어 왔던 오 교수는 "정년퇴임이 보다 깊은 창작의 세계와 학문의 길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단과 학계에 더 푸른 활동을 예고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청소년기 교육이 평생을 좌우"

부산 푸루나 김진성 신임 회장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마음에 심어준 불교는 저에게 삶의 지표이자 교육의 근본이 되어 진실한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더욱 매진해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9월 11일 부산 안국선원에서 열린 푸루나 창립법회에서 만난 부산 푸루나 김진성 신임회장(사진)은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학교법인 학산 이사장을 역임했고, 한국스카우트 부산연맹장, 한국UNESCO 부산협회 청소년분과위원을 맡아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에 매진했다. 또 김 회장은 동아대 교수 및 학산여자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김 회장은 "학력위주의 평가와 가정경제의 불안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인도하며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하성미 기자

"불교 가르침 외로움 극복에 큰 힘"

故 윤이상 선생 부인 이수자씨



"현 정부에서 초청해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젠 윤이상 선생이 남긴 유산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것이 진정한 예술적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11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故 윤이상(1917~1995) 선생의 부인 이수자(80 · 사진)씨는 "40년 만에 고향땅을 밟아 기쁘다. 윤이상 선생이 살아 있어서 함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하지만 이번 방문은 선생 때문에 왔고 그분의 영령과 함께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수자씨는 "예술가 특히 작곡가는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는 것이 가장 큰 명예요 행복이라고 생각 한다"며 "앞으로 150여곡 되는 선생의 작품을 연주하며 그분의 정신과 혼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젠 한국이 낯설어 앞으로 자주 왕래하며 마음과 정을 붙이는 것이 먼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씨는 1967년 동백림사건 이후 남편의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베를린 자택과 평양 윤이상음악연구소에서 지내며 한국 방문을 미뤄왔다.

이씨는 10월 3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윤이상 선생의 고향인 통영 등을 비롯해 '2007윤이상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리는 윤이상음악상 시상식에 참가한 뒤 평양에서 열리는 윤이상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수자씨는 9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윤이상 선생이 돌아가신 후 몇 년간 정말 힘들었는데 그 당시 많은 힘이 돼 주었던 불교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조 때부터 집안의 종교가 불교여서인지 독일에서 자라 현대 기독교식 교육을 받았지만 왠지 기독교가 멀게만 느껴져 40여년동안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외로움을 극복해 왔다"고 불교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옥천사암련 4대 회장에 혜철 스님



충북 옥천사암연합회 제4대 회장에 혜철 스님이 취임했다. 9월 11일 옥천 관성회관에서 열린 취임법회에는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원해 스님과 혜봉 스님, 한용택 옥천군수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혜철 스님은 "대 사회 운동 확대와 신도회 활동 강화, 군경포교 활성화 등 10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승종 하계 종도수련법회 성료



대한불교대승종(총무원장 청하)은 9월 4~6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2007년도 종도 하계 수련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천광 스님, 총무원장 청하 스님, 종회의장 도일 스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종도 120여명이 참석했다. 천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도교육은 종단화합의 기초이며 이를 통해 중추종단의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다.

남해 망운암 중창불사 회향



남해 망운산 망운암(주지 성각)은 9월 9일 사부대중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창불사를 회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각 스님은 "미타의 신행도량 망운암에서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중창불사를 회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선(禪)문화센터 개원식 개최



부산 선(禪)문화 센터(대표 범주)가 9월 9일 개원식을 개최했다. 범주 스님은 "생활과 선이 하나가 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개원 취지를 밝혔다. 선문화센터는 앞으로 정기법회와 강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2차 연수교육

귀의삼보하옵고,
불타의 혜명을 이어받아 신도포교와 사찰불사를 위해 정진하시는 영산재보존회 회원 여러분들의 법체청안하심과 사찰의 무궁한 발전을 삼보전에 기원 드립니다.
금번 영산재보존회에서는 2008년도 영산재 시연을 통해 본 영산재를 세계문화유산(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산재보존회제 2차 연수교육을 하오니 보존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연수교육 일정 및 대상

준 회 원	2007년 10월 5일(음 8월 25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2007년 10월 6일(음 8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전수생 / 이수생	2007년 10월 12일(음 9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2007년 10월 13일(음 9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2. 연수교육 장소 : 봉원사
3. 연 수 교 육 비 : 10만원
4. 특 별 강 의 : 심만춘 스님 / 김법현 스님 / 홍윤식 교수님 / 최이송 교수님
5. 문 의 : 봉원사 종무원 02)392-3007~8

금년 연수교육은 2008년 영산재 시연 번주(총명) 및 국내,외 영산재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회 장 조환우
연수원장 이기봉

2007학년도 2학기 교육부 평가인정 대학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학습경험이 학점화되어 학점은행운영본부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어 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사학위 소지자는 해당전공 분야의 35학점 이수로 또 다른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생교육의 시대 ! 취미와 함께 학점 취득까지... www.dongbang.ac.kr

▣ **문인화 I (3학점) :** 조선시대 선비정신과 현대회화의 조형성을 접목시켜 21세기 한국현대문인화 화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 **기초동양화(3학점) :** 모필의 전통적 활용방법을 사군자를 통해 심도있게 숙지하여 대상이 가지는 물성과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도록 한다.
▣ **불교학개론(3학점) :** 불교기초교리에 대한 이해는 깨달음에 이르는 이정표로 이를 익힘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르는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고자 함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 **불교문화의 이해(3학점) :** 불교를 접하는 다양한 방법 중 문화적 측면에서 불교에 접근해 보려는 강좌이다.
▣ **명상과 단전호흡(3학점) :** 호흡과 관련된 몸,느낌, 마음, 현상을 관찰하는 다양한 방식의 호흡명상법을 익혀서 스트레스 받는 일상의 생활에서도 수련하게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함이 강의의 목표이다.
▣ **스포츠 댄스(3학점) :** 음악을 동반한 유연한 운동인 스포츠 댄스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시키며 댄스 스포츠의 기초적 실기를 습득하고, 이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한다.
▣ **공연기획과 실행(3학점) :** 문화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토대위에 다양하게 공연기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데 수업 목표가 있고, 더불어 일개 공연기획이 해당 예술단체나 문화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 **인공지능의 이론(3학점) :** 지능적인 컴퓨터를 만들기 위하여 지식의 습득, 표현 방법, 검색방법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본원리를 습득하고, 정보처리의 지능적인 방법에 관하여 교수한다.
▣ **영어 (3학점) :** 신문과 여러 인쇄물,인터뷰와 같은 넓은 범위의 장르를 통해 독서 기술, 어휘, 언어분석, 생각하게 하는 토론, 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2007년 하반기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승인받은 학점은행 평가인정과목들로 배움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시작하길 바랍니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매 해 여러분들의 배움의 열정에 문 두드리겠습니다.

■등록기간 : 2007년10월 06일(토)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동방대학원대학교 1층 문화교육원
■개강일자 : 2007년10월 08일(월) ※일부과목 이미 개강(문의 후 등록요망)
■문의전화 : 02)745-8053, 953-3500
■학교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동 방 대 학 원 대 학 교 문 화 교 육 원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따끈한 송편에 행복이 모락 모락



추석을 앞두고 송편 주문량이 부쩍 늘었다. 배순이씨가 송편을 시루에 얹고 있다.



쪄낸 송편을 식히는 모습.

대구햇빛시니어클럽의 '햇빛촌떡방'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 9월 11일 새벽 5시 30분. 대구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햇빛촌떡방에 어르신들이 한둘씩 모여들었다.

"오늘은 일거리가 적어서 좀 늦게 나온 거예요. 어젠 새벽 3시에 문을 열었거든."

5년째 방앗간을 지키고 있는 남이주(64)씨의 말이다. 이곳 햇빛촌떡방은 불교사회복지회(대표 지도) 산하 대구 햇빛시니어클럽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2년 1월 문을 연 곳이다. 50세 이상 어르신들이 떡 제조 기술을 전수받고 직접 떡방을 운영하고 있다.

"송편이랑 쑥설기, 떡케이크 2개."

아침 작업량을 확인한 배순이(59)씨가 익숙한 솜씨로 불린 찹쌀을 계량한다. 떡방의 일꾼 4명 중 오늘은 남이주씨와 배순이씨가 작업 당번이다. 남씨는 2001년 떡방 참여자 기술전수교육을 받은 후 5년째 떡방을 지키고 있는 '큰언니'고, 배씨는 이곳에서 1년째 일을 하고 있다. 둘은 별다른 대화 없이도 손발이 척척 맞는 콤비다.

분쇄기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찹쌀가루를 쏟아낼 때 쯤, 어르신 5명이 찾아왔다. 떡 제조 기술을 배우는 '견습생'이다. 어르신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일손을 도우며 떡 만드는 과정을 익히고 있다. 남씨는 이들이 좀 더 일에 익숙해지면 떡케이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팀으로 독립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시루에 불이 오르고 떡케이크에 쓸 바탕떡과 쑥설기가 먼저 앉혀졌다. 뽀얀 김이 오르는 떡방 한켠에 잘 익은 호박이 수십여 개 놓여 있다. 햇빛시니어클럽 할아버지들이 재배한 것이다.

"우리 떡방은 시니어클럽 할아버지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를 비롯해 100% 국산 재료만 사용합니다. 색소나 방부제도 쓰지 않으니 보관 기간은 짧지만 그만큼 건강음식이지요."

지하철에서 1000원에 판매하는 떡을 며칠간 상온에 두어도 굳거나 쉬지 않는 건, 그만큼 많은 양의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햇빛촌떡방의 떡은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이틀을 넘지 않는다. 소매 대신 주문 제작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찰이나 단체, 가정에서 주문을 하고 대구 남구청에서는 직원들의 생일이면 떡케이크를 선물하기도 한다.

"여기서 일하던 어르신 중에는 떡 잘 만든다고 다른 가게에 스카우트 돼 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떡방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만드니까 모양은 그리 예쁘지 않지만 손맛은 어느 가게보다도 좋다고 자부합니다."

송편 반죽을 앞에 두고 어르신들이 둘러앉았다. 여러 사람이 만들어내지만 모양이 하나같이 고르고 깔끔하다. 5개월째 일을 배우고 있는 채문자(67)씨는 "일하는 것은 뭐든지 다 즐겁고 기쁘다"고 한다.

5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
특별한 대화 없어도 손발이 '척척'
잘 만든다 소문에 스카우트 되기도
힘들고 고되도 일할 수 있어 '행복'



햇빛촌떡방의 큰언니 남이주씨(왼쪽에서 두 번째)와 배순이씨(맨 왼쪽)가 오전 작업을 끝낸 후 일을 배우고 있는 어르신들과 한 자리에 섰다. 남씨는 이들이 얼른 일을 배워 떡케이크 전문 팀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

"집에서 명절 때 마다 해먹던 떡이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떡도 만들어 보고 예쁜 케이크도 배우니 즐겁지요. 음식을 정성으로 만들고 드시는 분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떡방에서 일하는 보람이지요."

송편 600여 개가 순식간에 빚어지고, 찜통 위에 올려졌다. 30여 분 정도 지나고 뽀얀 김을 뿜어내며 송편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이주씨가 따끈한 송편 하나를 기자의 입에 넣어준다. 모양은 투박하지만 식감이 쫄깃하고 달지 않아 입맛을 당긴다.

"요즘은 처음 떡방을 열었을 때에 비하면 주문량이 3분의 1 정도 밖에 안돼요. 새벽 1~2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떡을 만들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 달에 60만원 받으며 일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떡을 즐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다 만들어진 떡을 박스에 나눠 담고 나면 이제 배달은 김주식(60)씨가 맡는다. 떡방 운영을 관리하고 배달을 맡고 있다. 김씨는 "주문량은 줄었지만, 단골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떡방의 가족 같은 분위기와,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보람을 갖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있어 즐겁게 일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벌겠다거나 요령을 피우려 하지 않고, 능력이 닿는 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떡을 만드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 그야말로 이곳이 '햇빛촌'이죠."

오전 작업이 끝나고, 김주식씨가 배달을 떠나고 나자 떡방이 조금 조용해졌다. 이들에게 '희망'이 무언지 물었다. 남이주씨가 무심한 듯 행주질을 하며 대답했다.

"이 나이에 무슨 다른 계획이 있겠어요. 그저 힘닿을 때까지 일하고, 후배들이 떡방을 잘 이끌어 나가주는 것이 바람이지요.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 햇빛촌떡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 줄 추석 송편이 시루에서 익어가듯, 어르신들의 꿈도 햇빛촌떡방에서 그렇게 영글어가고 있었다.(053)476-8090

대구/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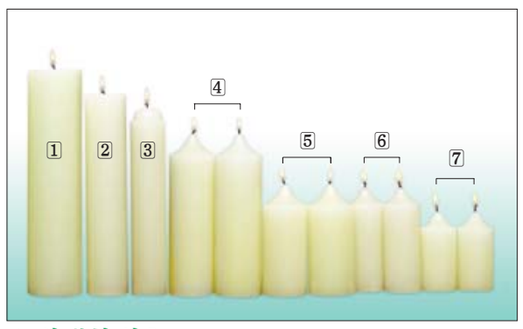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악쑥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③

(修習止觀坐禪法要)

總說 1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모든 불자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이 사구게는 지관법문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일대불법까지 모두 해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장십이부경이 이 사구게에 포괄되지 않음이 없다.

이 사구게는 문장은 쉽고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끝없이 심오하다.

"모든 악업을 짓지 말라" 함은 '止'에 해당되고 "뭇 선행을 받들어 행하라" 함은 '觀'에 해당되며 "스스로 그 의식을 정화하라" 함은 '지관불이(止觀不二)'에 해당된다. 바로 이 도리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이 사구게야 말로 불법을 수행하는데 가장 절실한 요점인 것이다.

악업을 끊고 뭇 선을 행하라

불교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으나 어떤 종파의 학문을 연구하는가에 관계없이 그 핵심은 이 사구게를 근본으로 의지해서 수행해야만 불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악업은 여전히 일어나고 뭇 선행은 올바르게 실천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총명한 지혜가 남달리 뛰어나 경율론 삼장을 정미하게 연구한다 해도 그것은 마치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헤아리는 것처럼 불법의 진실한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 끝내 불법 내에서 사견을 지닌 외도의 견해를 이룰 뿐이다.

그러나 '악업'이라는 두 글자는 막연하게 나쁜 짓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그 의미를 철저하게 세분해서 규정해야만 한다.

이 세상에 악한 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그 수많은 악업을 총략적으로 요약한다면 대략 열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행동으로 나타난 신업이 셋이고[身三] 언어로 나타난 구업이 넷이며[口四] 의식분별로 일어나는 의업이 셋이다.[意三]

신업은 살생 · 도적질 · 음행이며 구업은 이간질하는 말, 헐뜯는 말, 허망한 말, 실제에 맞지 않게 꾸미는 말이며 의업은 탐욕스러운 마음,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 사리에 어두운 마음이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십악업(十惡業)이라고 한다.

이 같은 악업은 자신만 괴로울 뿐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고통을 받게 하므로 십악업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자타가 모두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를 두고 "모든 악업을 짓지 말라"고 하였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이미 일어난 악업은 소멸시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업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만 악업의 뿌리까지가 완전히 뽑힌다는 것이다. 이 같이 행해야만 진정한 '제악막작(諸惡莫作)'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두고 불법을 올바르게 수행함이라 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매일 기상을 하면 제일 먼저 상기시켰던 "구업을 지키고 의업을 거두며 몸으로는 범하지 말라. 이같이 수행해야만 생사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수구섭의신막범 여시행자능도세(守口攝意身莫犯 如是行者能度世)]한 의미에 해당된다.

그러나 불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악업을 짓지 않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는 악업을 행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이 정도로는 지극히 소극적인 자리의 측면에만 머물게 되므로 불법을 수행하는 초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든 악업을 짓지 않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시 뭇 선 공덕을 적극 실천에 옮겨야만 하는 것이다.

단지 살생을 하지 않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방생해야 하며, 보시와 청정한 범행(梵行)을 행하고 유연한 언어와 서로를 화합시키는 말과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또 탐진치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탐진치를 대치할 수 있는 보시 · 자비 · 지혜의 마음을 일으켜야만 한다. 즉 십악업(十惡業)을 대치하는 그 자리에서 진일보하여 십선업(十善業)을 일으켜야만 한다.

모든 악업을 짓지 않은 데에 그치고 선업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소극적인 '止'방편에만 머물게 되므로 동시에 뭇 선업을 받들어 십선업을 실천해야만 적극적인 수행이 될 것이다.

이는 소극적인 자리에서 다시 적극적인 현실참여가 일어나야만 자리이타가 병진하고 자신의 구제와 세간의 구제가 동시적이어서 지관을 동시에 수행(止觀雙運)하여 불법을 진실하고 올바르게 배우는 보살행의 초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루업으로 견사혹 제거해야만 '제악막작'
계정혜 바탕둔 무루선업 진정한 '중선봉행'

그러므로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을 실천하라"한 이 두 구절이야말로 말은 지극히 평이하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옛 선사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지만 팔십이 된 늙은 노인도 막상 실천하기란 어렵다"고 가르쳤는데, 참으로 깊이 음미해야 할 법문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어떤 악업도 털끝만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 의식은 고요한 호수처럼 안정되어 다시는 뒤바뀐 망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뭇 선 공덕을 받들어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지혜광명이 일어나 마음은 평화롭고 몸의 기운마저 조화되어 항상 유연하게 사리의 올바름을 훌륭하게 따르게 될 것이다. 마음가짐과 행동, 이 둘 모두가 거칠거나 급한 모습이 없게 되면 이를 두고 "그 의식이 자연스럽게 정화된다"고 하였다.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이 두 구절의 의미는 이처럼 심오하고, '자정기의(自淨其意)'는 본질과 현상을 철저하게 꿰뚫어 일체의 의미를 해괄하였으며 그 이치는 대 · 소승불교에 두루 빠짐없이 통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무엇을 두고 '자정기의'라고 할까. 우리 중생들은 일거수 일투족을 통해 하는 일마다 찰나 찰나 집착을 일으킨다.

가령 보시행을 하면 나는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보시를 받는 대상이 되며 그 중간에 오가는 물건이 있다. 이처럼 베푸는 자, 받는 자, 중간물질이라는 삼륜(三輪)이 수레바퀴 돌 듯 하면서 그에 대한 집착이 끊이지 않으므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애증과 분별과 시비를 버리지 못한다. 이는 보시행을 하면서 일으키는 또 하나의 집착이고 번뇌인데 이를 두고 '견사혹(見思惑)' 즉 아집을 일으키는 번뇌라고 한다.

육도범부는 진여성공(眞如性空)의 이치를 미혹하여 허망한 분별 번뇌를 내적으로 일으킨다. 이 번뇌를 견혹(見惑)이라고 한다. '見'은 분별의 의미이다.

내적으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번뇌, 즉 견혹을 일으키면 일체 역순(逆順)경계를 마주했을 때 그 대상에 있어서 다시 탐심 · 진심 · 애증심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객관대상을 탐애하는 번뇌인 사혹(思惑)에 해당된다. '思'는 탐애의 뜻이다.

중생들은 '견사혹'을 따라서 끝없는 악업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삼계생사의 원인이 되어 끝내는 그에 따른 과보를 부르게 된다. 이것이 중생들의 생사윤회인과 관계이다. 즉 미혹을 일으키면 그에 상응하는 업을 짓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삼계생사의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다.[기혹조업수과(起惑造業受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간에서 유루번뇌로 십선(十善)을 행한다면 그 마음에 집착이 일어나 설사 선행을 간단없이 행한다 해도 그 의식은 청정하게 정화되지 않고 그 모두가 다시 유루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두 말할 나위 없이 반드시 집착없는 마음으로 악업을 그치고[지(止)] 견사혹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제악막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시 무루의 계정혜 삼학을 닦아 중생이 본래없는 이치를 깨닫고 아집이 끊어진 자리에서 진공(眞空)의 지혜가 나타나야만 진정 '중선봉행'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승가대 교수

http://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업(業)의 분류 ①

괴로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세 가지 행위를 알았다면 그 유형 성질에 따라 분류한 업(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관계성으로서의 업

업에는 한 개인이 짓는 불공업(不共業)과 단체 구성원이 함께 짓는 공업(共業) 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불공업'은 개인에게 국한된 행위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악업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시를 통해 선행을 쌓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 두 사람의 행위는 개인적인 것이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업'은 타인과 함께 하는 행위인데, 모든 사람들이 합작해 함께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이룬 경우입니다. 작게는 가정생활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사회의 조직이 어느 한 사람의 행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공업과 불공업은 그 성질이 외형상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호연관관계로 유지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의 행동은 그 사람에게만 국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의 행동,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
공업 · 불공업 독립적으로 존재 않아

(2) 성질적인 업

행위는 다시 그 성질상 착한 성질의 행위인 선성업(善性業), 악한 성질의 행위인 악성업(惡性業),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행위인 무기업(無記業) 등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첫째 '선업'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이익을 주고 금생과 내생 그 모든 시간대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업'을 세분하면 오계십선(五戒十善) · 육바라밀 · 사섭법(四攝法) 등이 있어 이 행위는 삼선도(三善道)나 출세간에 태어날 원인이 됩니다.

둘째 '악업'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역시 선업과 마찬가지로 신구의 삼업을 의지해서 십악업(十惡業) 등의 행위를 짓게 되는데 이 행위는 삼악도(三惡道)로 가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무기업'은 그 행위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서 자신과 타인에게 손해와 이익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착한 성질의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악한 성질의 행위라고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무기업은 그 동기에 따라서 그 행위가 선업과 악업으로 이어지기도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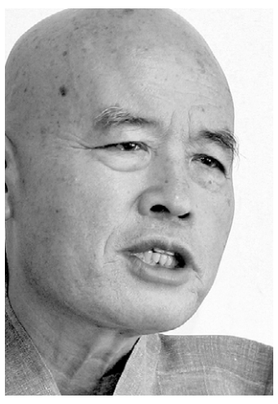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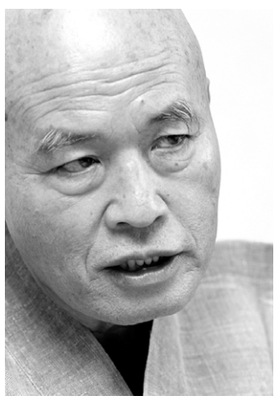
수행자는 가난해야 합니다



대선 스님 (요덕사 홍련암 주지)







선지식을 찾아서 대선

태풍주의보가 내렸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완주군에 들어서서도 지도에 없는 요덕사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앞으로 더 나아가면 길이 없을 것 같은데도 모퉁이를 돌면 길은 이어지고 그 길의 끝에 요덕사가 있었다. 세찬 비바람 속에서 대나무는 몸살을 앓고 있었고, 단국화는 이미 고개를 꺾고 말았다. 이렇게 줄기차게 내리는 우중에 대선 스님을 찾았으니 객이 더 민망스럽다.

법문을 청하자 대선 스님은 "요즈음 공부도 별로 안 했고 해서 법문 할 것이 없어. 그리고 훌륭한 스님들이 좋은 법문 다 했는데, 내 같이 어설픈 법문은 안하는 것보다 못해"라고 대답하신다. 대선 스님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 해인사 성철 스님, 춘성 스님, 금오 스님, 향곡 스님-회상에서 공부 한 분으로 이름이 나 있기에 스님의 수행담이 듣고 싶었다.

"70년대 그때 성철 스님 회상에서 80~90명이 공부했는데 노장님이 젊었을 때라 기운이 넘쳤지. 용맹정진을 할 때 물푸레나무로 깎은 장군죽비 10짐이 다 부러졌으니 참으로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그때 내가 선원장이었는데 대표로 내가 맞아야 젊은 사람들이 별 불평 없이 맞을 것 아닙니까. 그 굵은 장군죽비로 때리면 한 대가 아니라 연타로 막 날아오는데도 시원찮으면 또 때려달라고 했을 정도니 목숨 걸고 공부할 때였어요. 신심과 정진력이 없으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장군죽비로 때리는 것이 성철 스님의 가풍이지요. 지금은 그런 가풍도 사라지고 그렇게 맞아가면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곳도 가르치려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때가 그립습니다."

대선 스님은 일곱 살에 <천자문>을 뗄 정도로 영특하였다. 중학교 1학년 때 <주해강설 금강경> 서문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때부터 도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 은사스님은 상좌들에게 옷 한 벌 해주는 법이 없었고, 용돈 주는 일도 없었어요. 그때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절이 공주 갑사였는데, 심지어 빗자루로 마당을 쓸 때도 먼지를 밖으로 쓸어내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가람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근검절약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것이 혜원 스님의 가풍이야. 중의 법도는 원래 가난해야 하는 것이고…."

은사스님의 근검절약을 몸에 익힌 대선 스님은 소박한 삶을 수행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요즈음 출가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 행자들에게 호의호식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스님은 "내가 산골중이라 그런지 몰라도 수행자에게 있어서 물질은 독과 같은 것이여. 상좌들을 해외여행 보내고 하는데 그것 다 공부 망치는 길입니다. 상좌들 공부 야무지게 시켜야 우리 불교가 번창하는 것이지요."

대선 스님은 갑사의 북사자암에서 공부할 때 겨울에 불도 때지 않은 차가운 방에서 삼년을 공부하였다. 공부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줄 알았다. 사람들은 대선 스님이 이미 그때 한 경지 깨달았다고 한다. 대선 스님은 도봉산 망월사에서 욕 잘하기로 유명한 춘성 스님을 10여 년간이나 모셨다. 수좌들은 편하게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춘성 스님의 철학이었기에 망월사 선방에는 이불과 베개가 없었다.

"춘성 스님은 조실이면서도 자신의 방도 없이 선방에서 지냈으며, 팔베개하고 한두 시간 잠자는 것이 전부였어요. 밤새도록 꼿꼿하게 앉아 정진하였습니다. 춘성 스님은 <80화엄경>을 다 외울 정도로 대단한 강백이었는데도,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쫓겨났어요. 팔만대장경도 마음 심(心)자 하나를 압축해 놓은 것이고 조주 무(無)자 하나만 타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춘성 스님은 일평생 자기 밥상을 따로 받지 않고 대중들 속에서 같이 먹었으며, 바깥에서 들여 온 음식은 드시지 않았어요. 그 산에서 나는 쑥과 풀만 뜯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철칙이었어."

수행자에게 물질은 毒과 같아, 공부 야무지게 해야
어머니 모시고 정진… "복 받으려면 효도하세요"
농사지으며 공양거리 해결할 정도로 근검절약

대선 스님 또한 밥상을 따로 받지 않고 누구와도 같이 한 밥상에서 공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또 스님은 이곳 요덕사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으로만 공양거리를 마련하고 있다. 춘성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스님에게는 귀감이 되어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허 스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수행하였듯이 대선 스님은 생가(生家)를 절로 만들어 어머니가 91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공부하였다. 30여년을 선방을 돌면서 공부하였고, 어느 정도 공부가 무르익고 보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다. 그래서 지금의 홍련암 청풍선원을 만든 것이다. 대선 스님은 사람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불자의 참된 도리이며 복 받고 싶으면 부모님을 잘 모셔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어머니의 신앙생활에 스님이 관여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새벽 2시 반이면 일어나 새벽 예불을 올리고 하루에 2시간씩 사분(四分) 정근을 하였다. 대선 스님은 이곳 홍련암에서 천일기도를 3번이나 회향하였다. 어머니와 함께 20여명의 사람들이 천일기도를 했는데, 그 중 두 사람은 출가를 하여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때 대선 스님도 신심이 나서 마을 전체를 돌면서 2시간이 넘게 도량석을 하였다고 하니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산골에 불교를 심었던 것이다.

청풍선원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수좌들 네 다섯 사람과 함께 공부했는데 마을에 있다 보니 수행환경이 되지 않아 재가자들의 선방으로 바꾸었다. 요즈음에는 그렇게 엄하게 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풍선원은 결제 때는 7일 용맹정진을 하였다. 재가자들이었지만 대선 스님은 성철 스님의 가풍을 이어받아 장군죽비를 사정없이 내려쳤다.

"선방에 발을 들여놓았으면 재가자라는 생각을 떠나 깨닫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여. 이 공부는 한 번 죽었다가 깨어나야 되는 공부여."

대선 스님의 말씀은 거침없었다. 방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서 수행자의 기상이 그대로 느껴졌다. 스님은 재야에서 비승비속으로 살고 있다고 하시지만, 대선 스님의 살아오신 발자취 그대로가 산 법문이요, 근래에 보기 드문 선지식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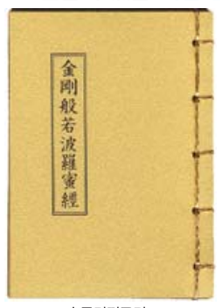
오후 7시가 되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예닐곱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 들고 선방을 찾았다. 깨닫고야 말겠다는 그들의 신심에 놀랐다. 대선 스님은 연밥 다섯송이를 내 손에 쥐어주셨다. 연밥을 받아든 나는 공부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스님의 말없는 말씀을 들었다. 숙제 한 가지를 어깨에 메고 온 느낌이다. 바람과 달빛과 별빛과 햇살을 머금고 있는 초록색 연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구멍마다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 마치 일체 중생이 불성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대선 스님은 1938년 전라도 완주군에서 태어나 14세에 <금강경>을 읽고 발심하였다. 19세에 계룡산 갑사에서 만공 스님의 제자인 혜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도봉산 망월사에서 10년 동안 춘성 스님 시봉을 들었으며, 해인사 성철 스님 회상에서 10년 동안 정진하였다. 그 후에도 금오 스님 향곡 스님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20여 년 전부터 생가에 홍련암 청풍선원을 지어 속가의 어머니를 모시고 공부에 전념하였다. 대선 스님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재가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참선만이 불교의 살길이라는 생각에 대선 스님은 수봉산내에 청풍선원을 비롯하여 요덕사 정진원과 오도암 등의 선방을 지었다.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요품(중)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금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밥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1SET(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수월 스님(4)

철우,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리까

수월, (두팔 벌려 춤추며)여시여시 하라

철우, (춤으로 화답하며)여시여시 하겠나이다

수월(1855~1928) 스님이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실로 주석하고 있을 때의 선화이다. 당시 묘향산 금선대에서는 20대의 철우(1895~1979) 수좌가 홀로 솔잎으로 연명하며 용맹정진을 거듭, 마침내 기나긴 꿈에서 깨어났다.

철우 수좌의 견성(見性)을 한눈에 알아본 수월 스님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납자를 제접하라"고 명했다.

드디어 묵언을 끝내고 입을 연 철우 수좌는 "남쪽에서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리이까?" 하고 물었다.

마침, 일주문 옆 감자밭에서 밭을 매고 있던 수월 스님은 호미를 들고 두 팔을 벌린 채 휙 돌고 춤을 추며 "여시여시(如是如是: 이렇게 이렇게) 하 라 " 고 말했다. 그러자, 철우 수좌가 밭으로 들어가 수월 스님의 호미를 건네받아 춤을 추며 "여시여시 하겠나이다"라고 화답했다.

'평상심이 곧 道' 라는 가르침 담아

동체대비 정신으로 중생 고통 포용

수월 스님은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며 깨달음을 인가했다.

철우 수좌가 남하해 경허 스님의 두 번째 제자인 혜월 스님을 찾아가자 스님 역시, 단번에 그를 인가하고 법제자로 삼았다. 이후 철우 스님은 불과 27세의 나이에 통영 용화사 도솔암과 대구 동화사 금당, 파계사 성전암, 금강산 마하연, 순천 선암사 칠전선원 등에서 '소년 조실'로 불리우며 사자후를 토했다.

그러나 그는 스승인 수월과 혜월 스님처럼 직접 호미를 들고 밭을 매고 빨래를 하며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인 삶을 살았다. 평생 묵묵히 보림공부로 일생을 마쳤으니, 깨달음의 빛을 숨긴 도인의 삶이 두 스승과 다름없었다.

위 선문답에서 수월 스님은 철우 스님에게 견성 이후의 보림공부인 불행(佛行)수행을 당부하고 있다. 수행자가 '본래 부처'임을 자각했으니, 이제는 당당한 부처 아들로서 '부처 노릇'하며 중생을 이익 되게 하라는 가르침이다.

수월 스님이 호미를 든 행위는 평상시에 밭 갈듯이 일과 오후(悟後)수행이 둘 아닌 평상심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 두 팔을 벌리고 춤을 춘 것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중생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받아들여 동사섭(同事攝)을 행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동사섭'이란 불 · 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몸을 나타내되, 그들과 생업과 이익, 고락(苦樂), 화복(禍福)을 함께 하면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 들이는 보살행을 말한다. 이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 소나 말처럼 헌신하는 '이류중행(異類中行)', 자비의 손을 드리우며 세속의 시장거리로 들어가는 '입전수수(入廛垂手)'와 같은 불행수행을 의미한다.

제자를 떠나보내는 수월 스님이 "다시는 (깨달음을)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깨달음에 별달리 기특한 것이 없으며, 다만 본래 부처로서 부처행을 하고 사는 것이 '평상심시도'의 정수임을 강조한 것이리라. 깨달음은 마른하늘에 구름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는 '호풍환우(呼風喚雨)'의 신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평상의 생활 가운데 있다.

수월 스님이 평생 짚신을 삼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혜월 스님이 직접 땅을 개간하며 농선병행(農禪竝行)의 가풍을 보여준 것이 그러한 삶이었다.

김성우 객원기자

불생불멸 '본래의 나'자각하라

혜은사, 덕산 스님 '직지' 강의 회향기념 영흥 선사 초청 법회


영흥 스님

"청풍명월을 드러내어 붉고 흰 꽃 난발하고, 산과 물을 펼쳐서 산호열매 계수열매 뿌리니, 그대가 흥대로 중생과 부처요, 그대가 흥대로 사바와 극락이구나.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부엉이가 부엉 부엉 부엉 삼천 대천세계를 삼키고, 뻐꾸기가 뻐꾹 뻐꾹 뻐꾹 삼천 대천세계를 토하는구나. 하(喝)!"

9월 5일, 충북 청원 혜은사(주지 덕산)에서는 덕산 스님이 1년4개월 여 동안 진행한 '직지(直指) 강의 회향기념 영흥 선사(진천 불뢰굴 주석) 초청법회'가 열렸다. '한국의 <벽암록>'에 해당하는 <직지심체요절>을 공부한 신도들은 서옹(1912~2003) 대종사의 인가제자인 영흥 스님의 법문을 통해 선(禪)의 진수를 체험했다. 현대 고승들과의 치열한 선문답을 기록한 책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친다>(클리어마인드)를 펴내 주목받은 영흥 스님은 토속적인 게송과 법문으로 화두 의심을 촉발시켰다.

"지금 여러분은 이 도리를 아십니까? 아시면 산과 물이요, 모르시면 해와 달입니다. 필경 어째서 그러합니까? 여러분이 콩떡 팥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50여 '직지' 공부인들은 <금강경 오가해>와 <육조단경>까지 공부해 선어록에 밝은 편이지만,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만난 듯 깜깜하기만 했다. 그럼에도 염불선을 닦으며 안목을 높여 온 혜은사 불자들은 스님의 법문에 더욱 귀 기울이며 언하대오(言下大悟)의 각오를 다졌다. 이에 스님은 신도들의 근기에 맞춘 자상한 심지(心地)법문으로 설법을 이어갔다. 다음은 이날 법문의 요지이다.

청원=김성우 객원기자

한 생각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인가?

그동안 여러분은 주지스님에게 '직지(直指)'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 '직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게 해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품을 곧바로 보기 위해 지금껏 알고 배웠던 것을 내던져 버리고, 여러분이 한 생각 하기 이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 생각 하지 않았을 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한 생각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입니까? 하!

한 생각 하기 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나와 너, 부처와 중생, 어제와 오늘, 생로병사, 깨침과 미함, 둥글고 모남, 길고 짧음, 모양과 이름이 다 멸해버려서 아무 것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없습니까? 멸하고 멸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본래의 나입니다. 그것이 불성, 본래자리, 본래면목입니다. 일체가 붙을 수 없는 이것을 자각한다면, 지금 바로 부처가 된 것입니다.

분별 없이 본 안경이 '일면불 월면불'

우리는 한 생각을 안 하고 살 순 없습니다. 지금 한 생각 일으키면 "이것이 안경이로군" 하고 압니다. 안경, 이것이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입니다. 안경이라 할 때, 사량분별이 다 떨어지고 오로지 안경이라 하는 것뿐입니다. 사심 없이 그대로 보고 들으십시오. 안경이라 하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밥 먹고 시다, 짜다 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이 마이크, 혜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각하기 전이나, 한 생각 일으킨 후나, 사라진 후나 똑 같습니다. 안경이다 하는 생각을 끝내버린 후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나와 너, 좋고 나쁨이 다 떨어져 나간 자리입니다. 하지만 다 버려도 본래의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 초월했지만 안경이라 한 '본래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 "예!"하고 대답하는데, 거기에 딴 생각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직지'라고 합니다. 이 안경을 제대로 본다면 부처님이 든 꽃을 알아본 가섭과 같습니다.

색 · 공을 쓰고 누리는 것이 본래의 나

모든 것을 초월해 쓰는 주체로서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실다운 삶을 사십시오. 색과 공을 자유로 쓰는 것은 '본래 나'입니다. 색공(色空) 역시 '본래 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래의 나가 생사(生死)를 씁니다. 본래의 나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자리입니다. '본래 나'를 모르고 극락을 간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본래 나의 입장에서 극락을 만들고, 거기에 갈 수도 있습니다. '본래 나'를 알려는 수행의 과정에서 생활도 윤택해지고 일도 원만해지며, 궁극적으로는 성불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부처인데, 왜 미(迷)한 것일까요? 본래자리는 캄캄한 무명(無明) 그대로 밝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무명이고 밝음이기에 수행을 안 하면 미해지는 것입니다. 중생놀음을 하면 중생이 되고, 부처놀음을 하면 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본래 그러하니 항상 깨어있으라 하고, 본래 부처로서 부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생과 부처를 초월해 양자에 걸림 없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해와 달, 콩떡 팥떡, 검고 흰 것이 하나의 중도실상(中道實相)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부처요 깨달음

이 볼펜이 뭡니까? 이 볼펜이 그대로 일면불 월면불입니다. 딴 생각을 붙이지 마시고, 사심 없이 볼펜과 하나가 돼야 해요.

깨달음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끄덕끄덕 하는 게 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가 부처이고 깨달음입니다. '본래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처요 진여요 무명인 것입니다.

(침묵)

스스로 '본나'가 오로지 '참나'여서 오고 가고 머물고 흥대로 중생과 부처를 누리니, 창밖에 내리는 빗속에 우담바라가 난발하는구나.


영흥 선사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는 혜은사 신도들.

수행게시판

●**칠일칠야 참회 정진**=해인사 백련암은 10월 23~30일 성철 대선사 열반 14주기 추모 칠일칠야 참회법회를 갖는다. 참선, 아비라기도, 삼천배 정진 등으로 일주일 동안 집중 기도를 진행한다. (055)932-7300

●**한가위 연휴 위빠사나 수행**=과천 보리수선원은 9월 21~26일 원장 붓다락키따 스님과 빤야완따 스님의 지도로 한가위 연휴 집중수행을 갖는다. (02)517-2841

●**영가 선사 '증도가' 특강**=서울 다보사는 매주 수요일 저녁 8~10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을 초청, 영가 선사의 〈증도가〉 특강을 갖는다. (02)475-6633

●**'금강경' 독송 및 강독**=서울 약사사 금강경 독송회는 정륜 스님을 지도법사로 매주 금요일 오후 4~6시, 〈금강경〉 2회 독송 및 강의 시간을 갖는다. (02)2662-255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필히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선물로 일반인께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제사용 백연화 강신향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추석 명절 제사부터 사용하시면 품격!
제사를 지내는 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께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어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祭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음 제주는 무릎을 꿇어 향로에 분양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천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동물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란 뜻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불심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천년이 지나도 변색 변질 되지 않게 베트린 왁시까지 처리 하였다. 자자손손 가정의 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봉우리의 백연화가 향로에 피어있고 후손의 가정가정마다 만사형통과 건강장수하게 육자대명왕진언을 넣어 가정의 천년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백배로 받아 제사때 품위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98,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名品향로
+규격:높이14cm, 폭18cm, 무게1kg

신통종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불경에 입각해 부와 명예를 얻게 제작된 영험의 지갑!!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에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각종비방의 법구와 진언이 많이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는 신묘(神妙)법구에는 "보병"과 "반장"이 있고 진언으로는 "육자대명왕진언"이 있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悲神力)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역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부처님 말씀은 '진리의 내비게이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㉜ 마음 운전 잘 하세요

목적지 없이 운전한다면

전국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놀기 좋아하던 P씨는 몇 년 전부터 마음공부를 하게 되었다. 여름 휴가 때도 운전하고 다녀 온 그는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저보고 차 운전보다 마음 운전을 잘 해야 더 행복하고 잘 살거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냥 비유만이 아니라 정말 차 운전하는 것하고 마음공부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님은 "그래요, 어떤 점이 비슷하다고 느끼셨어요?"하고 물었다.

"우선 길을 나서려면 목적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을 모르고 길을 나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자기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 다닐 직장이 있고 놀기 좋아하고 하니 별 생각없이 그냥 살아 온 것 같습니다. 눈 앞의 일, 매일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마음을 조용히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인데요. 마치 당장 운전하기 바빠서 자기가 정말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차 운전을 해도 목적지가 있는데 전 삶의 목적지도 정확히 모른 채 매일매일 눈 앞의 경치만 따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요.

누가 운전하고 가는 사람한테 '당신 어디로 가고 계시오?' 물었을 때 '글쎄, 잘 모릅니다. 그냥 남들 가는 대로 대충 가고 있어요.' 한다면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했을 거예요. 돈을 얼마 저금해야겠다, 몇 살에 은퇴하겠다, 노후엔 어떻게 살겠다, 이건 다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일 뿐이지 최종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돈, 건강, 가족, 직업, 노후대책 등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요.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것들만 따라 살다보니 정말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재미있는 비유네요. 법우님 말이 맞아요. 얼마 전 우리나라 자살 통계를 보니 작년에 하루 평균 35명이 자살하고 그 중 노인이 30%정도나 된다는군요. 그런데 자살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이 염세와 비관으로 나왔어요. 바로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보람있게 살며 오히려 남들을 도우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조건과 상황이 힘들다고 마음까지 포기하거나 절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의 목적지를 어느 방향으로 갖는가에 따라 생사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지도 따라가기

P씨는 웃으며, "스님, 전 워낙 놀기를 좋아해서요. 요즘 운전할 때 자동으로 길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인생살이에도 그런 것 좀 없나요? 안내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얼마나 편할까 싶은데요."

스님은 "허허, 왜 없어요? 마음 공부를 위한 내비게이션 안 가지셨어요?" P씨는 깜짝 놀라서 "그런 게 있었나요? 전 못받았는데요." "안 드리기는요. 원래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요. 법우님 마음 속 근본에 있는 부처님 마음이 바로 마음 내비게이션이지 뭡니까. 그 근본 마음이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 가시면 됩니다." "에이, 스님도…. 근데 부처님 마음의 소리는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도와 약도도 같이 드렸잖아요. 부처님 말씀과 팔만대장경, 교리, 법문들이 전부 얼마나 자세하게 인생길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스님, 그렇긴 합니다. 부처님표 내비게이션, 그걸 몰랐어요." "법우님,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마음 속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지도가 있어야 되요. 앞으로도 살면서 헛갈리면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표 내비게이션을 켜세요. 언제 어디서나 한 찰나에 작동해 준답니다. 충전도 따로 필요없어요. 항상 저절로 불이 켜져 있거든요."

삶을 운전하는 열쇠

차를 운전하려면 열쇠가 있어야 한다. 열쇠가 없으면 시동을 걸 수 없고 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이와 같이 열쇠가 필요하다.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해 가려면 몸과 마음에 시동을 걸 열쇠가 있어야 한다. "수억겁 광년을 끌고 온 자기 근본처가 다가오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신 속의 자성부처님이 바로 삶의 열쇠이자 참 주인인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해인사 원택 스님 초청법회=합천 해인사가 '1029일 천도법회'의 8번째 49재로 해인사 백련암 감원 원택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추석 한가위 특별법회로 마련되는 이번 법회는 9월 24일 오전 9시~오후 1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린다. 원택 스님(부산 고심정사 주지)은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20년 동안 시봉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도서출판 장경각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가 있다. (055)934-3000

●선운사 템플스테이=고창 선운사가 주말마다 진행하는 1박2일 템플스테이가 인기다. 다도, 맨발산행, 갯벌체험, 참당암 선원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을 반긴다. 10명 이상 단체가 신청하면 평일에도 2박3일 휴식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특성에 맞게 진행하기도 한다. 매일 아침 108배로 시작해 새벽산책(포행), 스님들과 차담, 나에게 쓰는 편지 쓰기 및 발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063)561-1422

●해동용궁사 중국 성지순례=부산 해동용궁사가 중국 보타 낙가산 관음원에서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10월 15~19일 자매결연 사찰인 관음원에서 특별법회를 봉행하고 성지순례도 할 계획이다. 9월 19일까지 선착순 마감 예정. 여권이 있다면 9월 27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동참금은 1인당 85만원. (051)722-7744

●조계사 9월 성지순례=서울 조계사가 9월 17~18일 팔공산 갓바위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17일 오후 6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출발한다. 동참금은 3만5000원. 28~29일에는 도솔천 내원궁(도솔암)과 선운사로 성지순례가 예정되어 있다. 동참금은 4만원, 28일 오후 2시에 출발한다. (02)732-2187

●보살계 수계법회=대전비구승가회가 대전지역 불자들을 대상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10월 13일 오후 6시 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보살계 수계법회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 스님, 원로의원 혜정 스님, 구례 화엄사 조실 도천 스님을 계사로 초청할 예정이다. (042)252-3776

●무비 스님 서장 강좌=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서장〉 강좌를 개설한다. 9월 19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무비 스님의 〈서장〉 강좌는 재가불자들의 간화선 수행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02)735-2428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9〉

정신분석과 불교-9

정신분석은 '통찰-훈습' 통해 현실 대응법 학습
불교에서의 '깨침-닦음' 수행과정과 일부 유사

정신분석의 기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해석이다. 해석에는 내용 해석, 저항 해석, 전이 해석, 꿈 해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석 과정에는 네 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내담자를 어떤 특정 사실이나 체험과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직면한 사실이나 사건, 의미 등을 더 날카롭게 초점을 잡아 명료화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계는 전체의 해석 과정에 속하는 좁은 의미의 해석으로, 분석가가 여러 상황과 정보를 커다란 의미 종합 속에서 추론하여 내담자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

네번째 단계는 훈습(working through)으로, 분석 과정에서 해석한 것을 통합하고 해석과 더불어 유발된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위 네 단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담자는 해석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통찰(insight)에 이른다.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거나 잘 모르던 동기, 관계, 느낌, 추동 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찰만 갖고는 부족하다. 내담자가 자신의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통찰을 경험했다고 해서 행동 변화가 바로 오지는 않는 것이다. 그래서 훈습이 필요하다.

훈습이란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혼자서 당면하고 일상생활 장면에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적 장면에서 이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경험하게 하는 재교육의 과정이다. 과거의 힘든 경험을 기억해 내서 반복할 뿐만 아니라, 자아가 성장하게끔 하는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다. 내담자는 훈습을 통해 자신의 억압된 감정이나 충동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바를 느끼게 되고, 그 결과로서의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직면할 수 있게 되며, 더욱 성숙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배운다.

정신분석의 통찰-훈습은 불교의 깨침-닦음의 문제와 비슷하다. 불교에는 깨침과 닦음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즉 돈오돈수(頓悟頓修), 돈오점수(頓悟漸修), 점오점수(漸悟漸修)가 그것이다. 돈오돈수란 한 번 깨달으면 완전히 깨달아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는 뜻이며, 돈오점수란 단박에 깨닫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점차 더 닦아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점오점수란 점진적으로 깨닫고, 깨달은 후에도 계속 닦아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정신분석에서 이루어 가는 통찰-훈습 과정은 점오점수에 가깝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씩 통찰해 나가고 그 통찰을 바탕으로 훈습을 통해 현실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분석의 훈습에 가장 가까운 말이 불교의 보임(保任, 보림이라고도 함)이다. 보임이란 보호임지(保護任持)의 준말로서 깨달은 사람이 그 경지를 잘 보호해 지켜가는 것이다.

정신분석의 해석 과정이 불교 수행의 어느 입장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정신분석의 통찰과 과 불교 수행의 깨달음은 비교 자체가 무리다. 불교 수행은 인간의 생사 문제를 통째로 해결하는 일대사(一大事)지만, 정신분석은 무의식에 억압되어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무엇, 주로 신경증적인 면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아무리 최고의 치료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불행'의 상태로 되돌릴 뿐"이라고 자조했을 것이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웰빙가구의 대명사 - 다심

마지막 남은 소나무(육송) 茶心마루(다심) 공장직판

도매가세일 한정판매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茶 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구분	크 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육송좌탁	1200×600×300 (小)	300,000	160,000
	1300×770×300 (中)	400,000	200,000
	1500×770×300 (大)	500,000	260,000
	1800×770×300 (특大)	600,000	300,000
침대	2100×1700×320	2,000,000	1,4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 곡선침대



• 직선좌탁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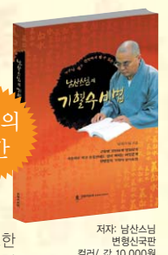
▶육송좌탁은 완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작업으로 제작.
▶소재 :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육송(춘향목) 사용
▶사용 : 차탁, 거실의 좌탁, 소파대용 의자,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제사상 등
▶사용법 :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칠(들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반질해져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짐.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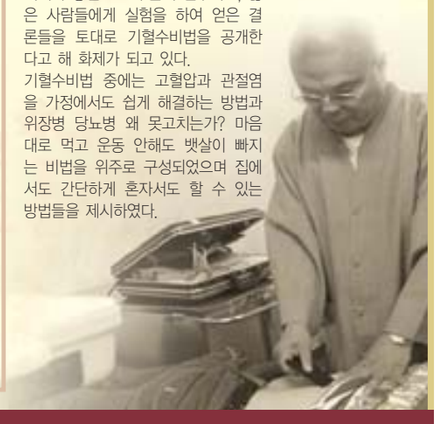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괄사 · 발란스 테이핑



물소뿔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뿔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긁어주면 된다.
또한 긁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발란스 테이핑
5cmX10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부카르마 문의: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



홀쭉! 넓적!

나만의 부처님 만들어요


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만든 나만의 부처님.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라오스불상전 어린이 교육


엄마와 함께 나만의 부처님 만들기.


아이들이 만든 불상을 보며 학예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도깨비야, 도깨비~!"

"귀는 꼭 바나나 같아. 머리에 있는 건 뿔이야?"

서울 창덕궁 근처에 있는 한국불교미술박물관. 토요일이라 부모님의 손을 잡고 박물관을 찾은 아이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그런데 박물관을 찾은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도깨비 소동일까.

현재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교의 나라 라오스 불상 특별전'을 보면 자연스레 그 의문이 풀린다. 우리가 부처님, 하면 떠올리는 것은 자비로운 미소에 살짝 감은 듯한 눈, 후덕한 얼굴과 점잖게 앉아 계신 모습 등이다. 이런 우리나라 부처님의 모습에만 익숙했던 아이들의 눈에 비친 라오스 부처님들은 "엥?" 소리가 절로 나올 만하다. 아이들 말처럼 정말 '도깨비' 같다. 익살맞은 표정의 부처님, 얼빠진 얼굴의 부처님, 고양이 얼굴을 한 부처님 등 평소엔 듣도 보도 못한 부처님의 모습들이 눈앞에 있다. 완전히 일어선 채 무릎보다 긴 두 팔을 '차렷' 자세로 늘어뜨린 부처님도 있다. 박물관 한지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준다.

"이 '차렷' 자세는 라오스에서 '비를 부르는 자세'라고 해요. 라오스에서는 5월이 되면 비를 기원하는 축제를 여는데 이 부처님 모습이 마치 로켓을 닮았죠? 하늘을 뚫어서 비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불상을 만든 것이랍니다."

그런데 라오스가 어디 있는 나라?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나라 라오스는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다. 전 국민의 90%이상이 불교신자인 이 나라에서는 숙련된 장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소망을 담아 불상을 만든다고 한다. 아, 누구나 불상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만의 개성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여러 모습을 한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이구나.

교재 통해 불상 특징 설명
부처 만들기 · OX퀴즈 등
교육 · 체험 프로그램 다양

사실 특별전에서 라오스 부처님들의 다양한 얼굴을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더 신나는 프로그램이 있다. '홀쭉! 넓죽! 나만의 부처님'이라는 교육이 바로 그것.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유치부 어린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만한 수준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우선 8페이지 분량의 교재를 하나씩 받는다. 그냥 무심히 보아왔던 불상의 특징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본다. 예를 들면 아미타 부처님은 마치 'O. K. 사인'을 보내는 것 같은 손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뜻일까. 또 불상도 있고 보살상도 있는데 차이는 뭘까. 교육은 이렇게 '불상'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신자가 아닌 아이들에게도 무리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무래도 '나만의 부처님 만들기'다. 부처님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배운 각자의 부처님을 형상화시킨다. 지점토를 이리저리 이어 붙이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애쓰는 것.

이 시간에는 라오스 불상들 못지않은 다양한 모습의 부처님들을 만나 볼 수 있다. 근육질 부처님, 여자처럼 긴 생머리의 '청순한' 부처님도 있다. 또 꼬리가 달린 부처님, 머리를 땋은 부처님도 있다. 언뜻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아이들 특유의 재기발랄함이 돋보이는 시간이다. 아이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만든 것이니 비웃어서는 곤란하다.

이밖에 'OX 퀴즈'도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통해 배웠던 내용을 퀴즈로 다시 풀어보는데, 아이들 기억력이 결코 녹록치 않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까지 둘째 넷째 토요일(놀토)에 마련된다. 단, 10명이상 단체 관람 시에는 평일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박물관 조한솔 학예사는 이번 라오스 불상 특별전을 관람하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조금 더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 가지 덧붙였다.

"불상은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문화재입니다. 불상이라고 해도 종교에 얽매이지 말고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특별전을 통해 아이들이 라오스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프로그램 쪽이 더 재미있기는 하지만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박물관의 학예선생님께 설명을 부탁드려 보자. 훨씬 깊이 있는 관람이 될 것이다.

또 라오스 불상 특별전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는 조선시대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탱화, 불상 등이 여러 점 전시 돼 있다. 게다가 박물관 2층에서 내려다보는 궁궐 경치도 꽤 괜찮으니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둘러볼 것을 권한다.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학예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신기한 불상 구경에 여념없는 어린이들.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암사동 선사주거지에서는

'보물을 찾아 떠난 사람의 이야기' 역사특강을 마련한다. 제12회 강동선사문화축제기간을 맞이해 마련한 이번 특강에서는 암사동 유적 발굴당시 직접 참여했던 고고학자의 생동감 있는 현장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특강은 10월 14일이며 50명 선착순 모집으로 현재 접수 중이다. (02)480-1410

경기 평촌아트홀에서는

'금관악기와 함께하는 즐거운 동요세상'이 펼쳐진다. 관람은 만 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9월 22일 오후 3시와 5시, 2회에 걸쳐 펼쳐진다. 예매 및 자세한 프로그램 확인은 홈페이지(spirit01.com) 참조. (02)496-4796

서울 소극장과 일원에서는

9월 20일~10월 14일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열린다. 무대와 관객, 관객과 세계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이번 축제는 16개국 34단체 총 38개 작품 초청해 연극, 무용,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한 공연예술제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홈페이지(www.spaf21.com) 참조.

강진 다산유물전시관에서는

제12회 청자문화제와 더불어 '제3회 문도공 다산 정약용 선생 유물특별전'을 연다. 이 행사는 10월 7일까지 열리며 전시기간 중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다산선생의 학예연원과 그 영향관계를 조명하고 제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 54점이 최초 공개된다. (061)430-3780~5

안동시내 일원에서는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7'이 9월 28일~10월 7일 개최된다. '신명나는 탈춤,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탈춤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maskdance.com)에서.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사계절 단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특·무명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진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풍산동 99%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무명

미끄럼 방지 (논스립 우레탄)

발볼조절가능 건강슬리퍼 바이오실리콘 조극세사(방수원단) 풍산동 99%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진회색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을 검색하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어릴 적 고향 옆집에는 더부살이하는 아저씨가 있었지요. 자라목을 하고 눈은 약간 사시(사팔눈)였어요. 일하고 나서 밥을 먹으면 소나기밥을 먹곤 했지요. 얼뜨다고 동네사람들이 뒷말을 해도 늘 웃었지요. 품앗이 외에도 부지런해 이웃집 일을 많이 도와주고 막걸리를 얻어 마시곤 했어요. 그 아저씨는 욕심이 없어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마을 구멍가게에서 마을 꼬마들에게 과자도 사주곤 했지요.

더부살이 :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해 주고 삯을 받는 일. 또는 그런 사람.(그녀는 부잣집에 더부살이로 허드렛일을 하면서 지냈다.)

얼뜨다 : 다부지지 못하여 어수룩하고 얼빠진 데가 있다.(두 눈 사이가 너무 넓어서 외모는 어딘가 바보스럽고 얼떠 보였다.)(홍성원<육이오>)

소나기밥 : 보통 때에는 얼마 먹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 밥.(그렇게 소나기밥을 먹고 하는 동안에 그녀의 위장은 엉망이 되었다.)(한무숙<생인손>)

자라목 : 보통 사람보다 짧고 밭은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그는 자라목이라서 키가 더 작아 보인다.)

품앗이 :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 '품'은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노력이나 수고를 뜻합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시대의 아픔 딛고 일어서는 예술가의 삶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김동인 作 '광염소나타'

1930년 <중앙일보>에 발표한 단편 소설로, 김동인의 유미주의 세계관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죠. 김동인은 미(美)에 대한 관심이 많아 "미도 미고, 미의 반대 것도 미며, 사랑도 미, 미움도 미, 선도 미, 악도 미"라고 했어요. 그는 삶의 현실과 윤리적 관점에 위배됨에 좌우되지 않고 미를 예술적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지요.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주인공인 '백성수'가 서술하는 경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 단편 소설, 예술가 소설, 변형된 액자 소설로 몇 십 년 후 지구상의 어느 곳이 배경이지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어떤 여름 날 저녁, 도회를 떠난 교외 어떤 강변에 두 노인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을 하는 이는 유명한 음악비평가 K씨이며, 듣고 있는 이는 사회 교화자인 모씨다. 이들은 작곡가 백성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음악비평가 K씨는 습관처럼 이른 봄 어느 날 예배당에서 명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얼마쯤 명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안으로 한 청년이 뛰어 들어 오자마자 오르간 앞에 앉아서는 무슨 곡인가를 미친 듯이 연주하고, 연주를 듣고 있던 K씨는 그 곡에 넋을 잃고 만다. 그 청년이 바로 백성수이다. 그 후 백성수의 천재성을 인정한 K씨는 그에게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백성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이한 천재성 때문에 그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K의 수업에도 따르지 않는다. 어느 날 백성수는 홀연히 사라져 버리고, 얼마쯤 지나 K씨는 백성수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백성수는 어린 시절, 자신의 심성에 영향을 끼친 이가 어머니라고 시인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기울어 가는 가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 들어가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었노라 말한다. 공장에 들어온 어느 날,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여 의사를 부르기 위해 거리를 지날 때, 비어 있는 담배 가게로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나다 주인에게 붙잡혀 6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한다. 그 사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공동묘지에서 분묘조차 발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리하여 갈 곳 없이 헤매던 그가 그날 밤 찾아온 곳이 K씨가 있던 예배당인 것이다.

작가의 유미주의 세계관 형상화
시 · 공간적 배경 드러나지 않아

백성수씨는 그 날 밤, 예전에 돈을 훔친 담배 가게 앞을 지나다 과거의 무서운 복수심이 일어 그 가게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런 심적 상태로 교회 오르간에서 연주한 것이 바로 '광염 소나타'이다. 이는 백성수의 광포하면서도 야성적인 천재성이 어머니의 어진 교육 탓에 내재되어 있다가 드디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로도 백성수는 몇 차례의 방화를 저지르고 '성난 파도'라는 곡을 탄생시키고 그 뒤로도 도처에서 일어난 방화와 사체 모욕, 살인 등의 행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히게 된다. 그의 천재성을 아깝게 생각한 예술협회의 탄원 덕에 사형은 면하나 정신병원에 수감된다. K는 힘 있고 야성으로 충일된 예술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변변치 않은 살인, 방화나 집개, 사람개는 아깝지 않으며, 오히려 변변치 않은 범죄를 구실로 예술을 없이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 여긴다.

천재성을 가진 백성수는 기존 양식의 틀을 거부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예술을 지향. 그의 시체 강간, 살인 등의 광기 어린 일탈은 예술혼의 구현을 위한 과정이죠. 광기를 통해 진정한 음악을 성취하고 있죠. 이런 백성수의 예술 행위를 통해 K는 백성수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음악 평론가로서 진정한 예술을 위해서 여타의 희생(범죄)을 감수해야 한다는, 예술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보고 있지요. 대담상대자인 사회 교화자는 예술을 위한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죠. K의 예술관은 작가의 예술관과 일맥상통하지요. 그의 유미주의에 대한 집착과 자부심은 서술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예술 창조의 욕구와 미에 대한 광기 어린 동경을 나타내는 이 작품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시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O형이 되고 싶어요

제 친구들을 보면 혈액형 O형이 대부분 성격이 좋더라고요. 공부도 잘 하고요. 전 소심하고 사교성도 별로 없고…. 아무튼 O형으로 다시 태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성격도 바뀔 수 있어요

요즘에도 혈액형별 유형 따지기가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저런 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A형은 내성적이고, B형은 한눈을 많이 팔며, O형은 사교성이 좋고, AB형은 극단을 오간다. 어느 형 남자와 어느 형 여자가 만나면 좋고, 반대로 어느 형과 어느 형은 오래 가기 힘들다…. 대개 언론사에서는 이런 이야기 마지막에는 "어느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혈액형 성격은 별 근거가 없으니 믿지 마라"고 끝내곤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파악하는 혈액형별 이야기는 나름대로 좋은 지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 무엇이든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혈액형 성격이나 별점이나 사주 등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갇히게 되지요. 여러 가지 성격 검사나 지표 검사 그 자체보다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이 구분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힘겹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게 아니라, 그런 판단과 결정을 자주 하다 보니 사람들과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 옥천암 청소년법회 지도법사 운산 스님)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스님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 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문의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결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윤으로 변합니다.

'붓길' 따라 꽃피는 정겨운 이웃마을 이야기







그리운 이웃은 마을에 산다
이호신 쓰고 그림
학고재 펴냄 | 1만5800원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반 고흐의 말이다. 서양화가의 이 철학이 동양화가 이호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 화백은 말로 답하지 않는다. 산천을 두루 쏘다니며 그림이 될 만한 자연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붓을 놀린다. 눈에 보이는 풍경만 담는 게 아니다. 풍경의 이면과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는다. 자연 뿐이랴? 사람을 그릴 때도 현재의 보이는 모습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그려낸다. 방랑시인 김삿갓처럼 산천을 떠도는 이 화백의 붓질은 자연과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다. 그의 붓길은 자연을 향해 떠나고 사람을 만나 정겨운 꽃으로 피어난다.

이 화백은 <그리운 이웃은 마을에 산다> 한 권으로 고흐의 철학을 말한다. 우리나라 마을 서른 곳의 풍경과 삶과 애환 그리고 기쁨과 희망 이야기가 330컷의 그림과 함께 담겼다.

이 화백은 마을을 찾아가면 반드시 그 마을에서 잠을 자고 밥을 얻어(?) 먹고 마을 사람들과 긴 이야기를 나눈다. 대처로 보낸 자식 이야기와 농사 이야기, 마을의 역사와 산과 들에 피어난 풀꽃들의 이야기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마을을 통째로 이해하기 위한 프로정신 때문만은 아니다. 가슴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마을과 이웃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바로 그 그리움이 마을을 찾아 떠나게 하고 화첩을 꺼내놓고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그림을 그리는 원동력이다.

책의 제목이 이를 잘 대변한다. 그리움, 이웃, 마을. 이 화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 단어로써 한 권의 책을 다 썼고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 단어로써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다.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서른 개의 마을에 스며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읽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움과 이웃과 마을'을 키워드로 하는 이화백의 글과 그림을 읽은 독자는 하나의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상생(相生). <그리운 이웃은 마을에 산다>는 상생의 이야기다. 이 화백은 전통 가치관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마을에 펼쳐진 고단한 삶이 자연과 희망을 만나 어우러지는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화첩과 원고지에 담았다. 그리하여 현실과 꿈, 자연과 개발논리, 지고한 가르침과 현실적 욕망, 돈과 체면, 도시와 농촌 등 모든 길항을 상생의 마을로 불러 모은다. 상생의 마을에서 만난 이웃들의 푼푼한 사랑과 인정이야 말로 '극락'이 아닌가?

<그리운 이웃은 마을에 산다>에는 이 화백이 승용차도 없이 5년간 쏘다니며 갈무리한 서른 개 마을의 이야기가 주제별로 다섯 묶음으로 나눠 실렸다. 화가 특유의 세심함과 온화함이 물씬 풍기는 글맛은 금방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마을 풍광과 사람들의 그림은 불쑥 튀어 나올 것 같이 선명하다. 마을 구석구석을 뒤진 정성이 책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한가위가 다가온다. 이호신 화백과 함께 가슴 어느 구석에 묻혀 있는 그리운 마을을 찾아 떠나보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유불선(儒佛仙)의 틀을 깬
전통 종교사에 대한 고찰



최준식의 한국 종교사 바로보기
최준식 지음
한올아카데미 펴냄 | 1만8000원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가 지은 책으로 '유불선(儒佛仙)의 틀을 깨라'는 부제가 붙었다. 저자는 "한국의 종교 전통은 유불선에 있다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나 한국 종교사에서 도교(선도)는 교단, 조직, 사원이 존재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가 도교를 한국의 종교전통으로 포함시켜온 것은 중국적 세계관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런 시각에서 저자는 '유불선'의 '선'을 '무(巫)'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신으로 치부돼온 무교(巫敎)야말로 한국 전통의 종교이며, 이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주요 종교로 올려놓은 신도(神道)와 비교할 때 종교적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저자는 "'유불선'이 종교 전통이 된 것은 중국의 종교 전통을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썼기 때문"이라며 "특히 19세기 말 등장한 신민족 종교는 '무유불도(巫儒佛道)'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결과물이어서 이 시기를 '한국의 종교 개혁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불교와 기독교의 유입이라든지 유교의 국교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한국의 종교사가 변천해온 과정, 통일신라를 전후한 불교의 융성과 한말 동학을 위시한 신종교의 태동, 외래 종교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킨 사례 등을 고찰한 글이 실렸다.

김주일 기자

참법수행을 위한 화엄예찬문 축약본



대예참문
해월 편역
정우서적 펴냄 | 2000원

삼십여 조문의 길지 않은 문장 안에 불법승 삼보의 총체적인 모습이 들어있는 <대예참문>. <대예참문>은 <화엄참문>의 구십조문 가운데 지나치게 번다한 부분을 줄이고 축약하여 긴요한 요점을 모아 놓아 참법수행을 하도록 한 것. <대예참문> 번역본은 뒤에 풀이를 싣고 하단에 단어의 사전적인 풀이를 위해 홍법원간 불교학 대사전 페이지를 표시하여 참고하도록 했다. 또 내용중 풀이하기 불분명한 것은 아래에 다른 풀이를 실어 놓았다. 역자인 해월 스님(공주 원효사 주지)은 "마음을 기울여 <대예참문>을 지송하면서 하나하나 문장이 지닌 뜻과 의미를 천착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큰 힘을 얻을 것"이라며 "참선이나 다라니, 절 수행, 경전지송, 염불 등을 하면서 조금 부족하다 느끼신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 브뤼넬	솔바람
4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화, 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툽텐 초드론	미디어 윌
8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9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10	절수행입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짤막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주옥같은 글 모음



나를 찾는 지혜, 풍경소리1
풍경소리 지음| 정병례 그림
풍경소리 펴냄 | 9000원

만일 사람들이 그대를 나쁘게 말하거든
오로지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들이 틀렸다면 그들을 무시해 버려라.
만일 그들이 맞다면 그들에게 배워라.
어느 쪽이든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아짠 차 대선사>

지하철을 타거나 군부대를 방문해 보면 한 쪽 벽면의 게시판 속에 전각 그림과 함께 들어 있는 글을 목격할 수 있다. 이 짤막한 잠언들은 일상에 지친 도시인이나 군 장병들의 발길을 한동안 잡아놓을 만큼 가슴 속에 오랜 여운을 남긴다. 또한 일상에 매몰돼 잊고 살았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어떤 이들은 잊고 있던 평생의 좌우명을 여기서 재발견했다고도 하고 혹자는 생활의 지혜를 되찾았다고도 한다.

이 게시판 작업은 바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풍경소리가 1999년부터 지하철과 철도 역사를 비롯해 학교, 군부대, 병원, 교도소 등 공공장소 3000여 곳에 해 왔다. 이 내용을 묶은 것이 이번에 출간한 <나를 찾는 지혜, 풍경소리1>이다. 이 책은 샘터사가 출간한 <풍경소리>의 내용에 2권 이후에 게시된 새로운 내용 15편을 추가해 개정 증보판으로 출판된 것이며 24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인내' '마음' '처음 그것' 등 오랫동안 머리맡에 두며 인생의 고비 때마다 들쳐보며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주옥같은 글들이 가득하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250g 5,000원
보급형 민속죽염 500g 8,000원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현대칼라지붕공사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보응당 문성→회응당 상균→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 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30% 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가귀감 10월 서울 서울법회는
10월 7일(日) 열립니다.
10월부터 법회장소가 사당에서 도봉으로 변경됩니다.

*서울선원 ☎ 02-3494-0122(매월 첫째 일요일)오전 11시
*광주선원 ☎ 062-944-4088
선문염송/10월 21일 오후 2시
*부산선원 ☎ 051-545-2460(매월 넷째 일요일)
반야심경/10월 28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찬불가 대중화에 큰 업적"

지휘자 정옥녀 선생 추모음악회 20일 KBS홀서



살아 생전 열정적인 지휘로 관객을 사로잡은 故 정옥녀씨.

한 평생을 찬불가와 사랑을 나누며 불꽃처럼 살다간 불교계 최초의 전문 여성 지휘자 故 정옥녀. 그녀를 기리는 음악회가 열린다. 바라오페라단과 청룡마야합창단은 9월 20일 오후 7시 30분 여의도 KBS홀에서 '故 정옥녀 선생 1주기 추모음악회-떠나는 이 마음 그리고 가을교차'를 마련한다.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될 노래들은 청룡사 주지 법운 스님의 시에 정부기 중앙대 교수가 곡을 붙인 창작곡들. 법운 스님이 지난 7월 발표한 시집 <망루>에서 가려뽑은 15편의 시에 정부기 교수가 곡을 붙였다. 이 중 '떠나는 이 마음'은 정옥녀씨가 남긴 유작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정씨가 불교 음악계에 남긴 업적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불교계 유명 음악 단체들도 이번 음악회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와 삼보불교음악협회가 리허설에 한창이다. 무대에는 이외에도 청룡마야합창단과 묘각사 합창단, 불교방송합창단, 삼보불교음악협회 산하 관음회, 바라오페라단이 음성공양을 니르바나 관현악단이 반주를 맡는다.



1부는 평소 정옥녀 씨와 절친했던 메조 소프라노 연정숙씨의 '보내는 이 마음'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바리톤 김성범씨가 '환희의 찬가'와 '통일의 노래'를, 니르바나관현악단 강형진 단장이 '바이올린 독주'를 선사한다. 바라오페라단도 '촛불' '무지개' 등의 중창과 '경배하러 오시네' '부처님의 감로법' 등의 합창을 들려준다.

2부 역시 독창과 독주, 중창과 합창으로 꾸며진다. '가을교차' '당신' '온화한 여정' '님의 사랑' 등이 연주된다.

정부기 교수는 "불교음악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불심이 강했던 정옥녀씨는 살아생전 사찰 합창단 창단의 확산과 찬불가 대중화에 큰 공헌을 세웠다"며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꾸준히 그녀의 불교음악 사랑을 기리는 연주회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02)2612-0609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교계 음악단체 음성공양 유작시 '떠나는 마음' 연주

■ 정옥녀 선생은?

정옥녀 선생은 고대 경영대학원과 영국 옥스퍼드대학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당시로서는 불교계의 극히 드문 이력을 지닌 재원이었다. 1976년부터 조계사 합창단과 함께 교계 최초로 창단된 청룡마야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 故 김용호 선생에게 음악이론과 지휘를, 김규환 선생에게 작곡을, 지소영 선생에게 발성법을 사사한 후 본격적인 불교계 전문 지휘자의 길을 걸으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10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2개의 교계 사찰 합창단을 지휘했다. 특히 정씨는 국내는 물론 독일, 대만, 일본, 미국 등 각국에서 해외 순회공연을 하며 한국불교음악을 해외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깊고 진한 울림 선사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장사익 단독 콘서트로 진행



미국순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온 소리꾼 장사익(사진)이 청량사에서 깊고 진한 울림을 선사한다.

경북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는 10월 6일 오후 7시부터 특설무대에서 '2007 청량사 산사음악회-장사익의 별빛 나들이'를 마련한다. 음악회는 장사익의 지난 6월 미국순회 공연을 그대로 옮겨 놓은 단독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된다.

참여 음악인들 또한 당시 미국공연에 함께 했던 재즈 그룹 정재열 밴드, 색소포니스트 최선배,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트, 사물놀이팀이 출연해 '찔레꽃', '국밥집에서', '하늘가는 길', '동백아가씨', '희망한단' 등을 연주한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가을밤 고즈넉한 산사에서 맛보는 장사익씨의 열정적인 음성공양은 지역 주민들과 불자들이 좀처럼 만나기 힘든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속세의 번뇌를 노래로 날려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54)672-1446 김주일 기자

황룡사탑의 환생…경주로 오이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10월 26일까지…테마별 행사 풍성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10월 26일까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4년 만에 다시 열리고 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800년 전 몽골에 의해 불타 사라졌던 신라불교의 상징 황룡사 9층 목탑이 경주타워(사진)로 환생해 모습을 드러냈다. 경주타워는 아파트 30층 높이인 82m 짜리 대형 건축물이다.

타워는 황룡사 9층 목탑의 형상이 터널처럼 뚫려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대형 건축물에 목탑이 음각된 것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타워 전체가 유리로 덮혀 있으며 최상층에는 고공전망대와 디지털 문화전시관이 자리 잡았다.

엑스포 조직위는 경주를 상징하는 건축물인 '경주타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440억 원을 투자했다.

이번 엑스포 최대의 볼거리는 경주타워를 스크린삼아 펼쳐지는 멀티미디어쇼다. 조직위는 멀티미디어쇼를 위해 첨단 영상 프로젝터인 PIGI와 화려한 레이저 그래픽을 활용해 천년고도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해 국보 91호인 '도제기 마인물상'을 의인화한 3D입체 애니메이션 '토우대장 차차'와 세계 유명 테마파크에서 상영 중인 입체영화들이 매일 상영된다. 'CT체험관'에서 '토우대장 차차'의 판타지 세계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고 '신라 왕경숲 로하스 축제'에서는 삼국유사 미로체험, 신라유물 발굴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계 20개국의 공연예술단이 참여하는 '세계공연예술축제'와 '월드 B-boy 페스티벌', '세계꼭두극축제', 한국의 신화와 복식, 건축 등의 전통문화가 디지털로 되살아나는 '한국디지털문화원형전'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행사기간동안 엑스포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는 '백남준 특별전'도 열린다. 이 전시에는 '108번뇌'와 같은 유명 작품들과 백선생의 그림, 글씨, 습작 등의 작품 100여 점이 공개된다. 김주일 기자

대구·경북 금석문 탁본전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김정완)은 10월 14일까지 기획전시실 1실에서 '선현의 향기 - 대구·경북 금석문 탁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대구 동방금석문연구회 동호회 회원들이 제작한 동화사 마애불 탁본을 비롯해 동화사 동종 인악대사비, 영천 은해사 추사 김정희 편액, 포항 법광사 석가불사리탑 중수비 등 대구와 경북지역의 불교유물과 금석문 탁본 등 50여 점이 전시된다.(053)768-6051 김주일 기자

詩書로 떠나는 암자기행 ㉒

무등산 규봉암

장인성 시인

바람은 댓잎을 쓰다듬고
댓잎은 바람을 쓰다듬는
무등의 평화여
오늘도 우리는 경건히 살았다고
규봉암 부처님께 두 손 모으는
입석대 선바위의 지극한 불심이여



규봉암(圭峰菴)-무등산 우뚝우뚝한 바위를 울타리로 삼고 바람에 서걱이는 조릿대를 카펫처럼 깔고 있는 절경 속의 암자
그림 : 이상배 화백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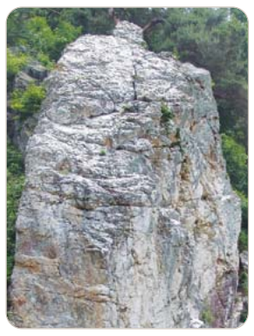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미암사에 모셨습니다.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요.



세계 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다층 탑인,33층의 불사리 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과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쌀바위 컨설
(충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할머니가 공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미암(쌀바위)이라불렀으며, 바위에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건강한 기운을 느낄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서 밝고 훤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집요한 책략가의 딸…어질고 자애롭지만 '단명'



8대 예종 원비 장순왕후 - 공릉

장순왕후 1445~1461(17세)

'압구정동엔 출구가 없다' 어느 시인의 시집 제목이다. 필자는 매일 지하철 압구정역을 지나다닌다. '압구정(狎鷗亭)'은 한명회가 노년에 권좌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갈매기와 벗하며 지내고 싶다하여 한강변에 지은 정자다. 지금 압구정동엔 압구정이 없다. 갈매기도 없다. 대한민국 대표적 부촌의 대명사, 강남 1번지로 자리매김 한 곳, 고급 패션, 외제차가 넘치고 성형외과가 즐비한 곳이 압구정동이다.

역사에는 위대한 인물이 있고 드라마틱한 인물, 문제적 인물이 있다. 한명회는 후자에 속한다. 사극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할 만큼 캐릭터가 강하다. 드라마, 소설은 평범한 위인보다 자극적이고 절묘한 캐릭터를 선호한다. 역사는 교훈의 창고만이 아니라 재미의 샘이다. 교훈은 숙성이 끝난 후 훈습되는 차맛 같은 것이다. 재미는 혀끝을 짜르르 쏘는 청량음료다. 한명회의 삶은 팔팔한 재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절세의 처세가요 탁월한 책략가, 모사가다. 딸들을 예종, 성종에게 시집보내 세조와 겹사돈을 맺은 유능하고 뻔뻔한 아비다. 셋째 딸이 예종 비 장순왕후, 넷째 딸은 성종 비 공혜왕후다. 셋째는 넷째의 언니임과 동시에 시숙모가 된다. 권력과 연루된 기묘한 촌수다. 위의 두 딸은 이미 출가하여 왕가에 헌납할 수 없었다.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한씨는 한명회와 부인 민씨의 셋째 딸이다. 아비는 희대의 모사꾼이지만 딸들은 잘 키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직간접으로 접한, 손가락질 받는 정치가, 군인, 사업가들도 자식 교육만은 열성적이고 진지하다. 심지어 조폭 냄새나는 이들도 자식은 반듯하게 키운다. '그 아비에 그 자식'이란 말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한씨는 아름답고 정숙하여 1460년 4월 11일, 16세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그 책문(冊文)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대 한씨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유하고 아름답고 정숙하여 종묘의 제사를 도울 만하다. 이제 효령대군 보(補)와 우의정 이인손 등을 보내 그대에게 책보(冊寶)를 주어 왕세자빈으로 삼는다. 그대는 지아비를 공경하고 도와서 궁중의 법도를 어기지 말고 왕업을 융성하게 하라.'

세자빈으로 책봉된 지 1년 7개월만인 1461년(세조 7년) 11월 30일 원손 인성대군을 낳고, 산후병으로 닷새 후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는다. 목숨 바쳐 나은 자식도 네 살 때 죽었다. 세조는 생전에 맏아들 잃고 며느리 잃고 손자까지 앞세웠다. 세조는 재위 중 초상을 치르고 묘역을 조성하느라 늘 바빴다. 아버지 세종, 형 문종의 국상도 그가 발 벗고 나서야할 책무였다.

그런 세조에게 한명회는 필요한 인물이었다. 어린 단종이 즉위하여 김종서, 황보인 등이 전횡을 휘두르자 수양대군은 지략과 용맹을 갖춘 참모가 필요했다. 한명회는 대세를 읽었다. 1415년(태종 15년) 예문관 제학 한상질(조선 개국 당시 명나라에 파견되어 '조선'이란 국호를 확정 짓고 돌아온 공신)의 손자, 한 기의 아들. 본관은 청주, 자는 자준, 호는 압구정, 사우당이다. 왜소하고 볼품없는 칠삭둥이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다. 과거 운이 없어 늘 낙방하여 공신의 자손은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 문음(門蔭)제도로 1452년(문종2년), 38세에 개성 경덕궁직으로 관직에 들어갔다.

수양대군에게 가장 먼저 접근한 수양의 좌장 권람의 주선으로 한명회는 수양의 '장량', 수양의 최고 책사가 된다. 1453년 계유정난 때 자신이 끌어들인 무사 홍달손 등이 김종서를 살해하고 살생부를 만들어 정적을 제거한다. 세조의 즉위와 함께 그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 좌부승지, 우승지, 도승지, 이조판서,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이 그의 이력이다. 일개 궁직에 불과했던 그가 13년 만에 52세의 나이로 조정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의 지략은 집요했다. 세조와 사돈을 맺어 딸을 예종 비, 성종 비로 만들어 2대에 걸쳐 왕후로 삼게 했다. 집현전 학사 출신 중 세조의 신임이 두터운 신숙주와 인척 관계를 맺고 친구인 권람과도 사돈 관계를 맺는다. 한명회는 세조~성종에 이르기까지 요직을 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 압구정동이 부촌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닌가보다.

세조, 예종, 성종에 이르기까지 절대 권력을 행사한 한명회는 네 번이나 1등 공신으로 추대되어 많은 토지와 노비를 상으로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1487년(성종 18년) 73세의 나이로 이승을 하직했다. 청년 시절의 삶은 꼬질꼬질했지만 중년 이후의 삶은 찬란했다. 뛰어난 지략, 권력의 양지쪽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거기에 아름다운 딸들의 헌신적 희생도 한몫을 했다. 아비의 야심에 의해 세자빈이 되었다가 열일곱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장순왕후의 음덕을 아비는 알까.

그 후 한명회는 1504년(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생모 윤씨 폐사에 관련했다하여 부관참시 되었으나 뒤에 복권되었다. 무덤에서 썩은 시신을 꺼내 토막 내는 수모를 당했으나 살아생전은 털끝 하나 뽑히지 않았다.

아비의 정략적 야심이 아니었다면 장순왕후는 세자빈이 될 일도, 17세에 요절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공릉을 바라보니 어린 장순왕후는 말없이 누워 있고 아비는 능침 위에서 여전히 천하의 주무르는 재주를 부리고 있다. 지금도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이들이 자욱하다. 부디 자식을 방석으로 삼거나 재물로 삼지 말지어다.

공릉은 애초 세자빈 묘로 조성되었다. 봉분의 난간석, 병풍석, 망주석이 모두 생략되었고 무인석도 없다. 아담한 문인석 곁에 갈 곳 없는 게으른 석마가 졸고 있다. 소풍 나온 여학생들에게 물어볼까. '네 꿈이 뭐니?'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왕비요!'라고. '너, 열일곱 살에 죽어도 왕비 되고 싶니?'라고 되물어 볼까. 허허허! 실없는 농담이다. 결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 앞에선 경건해진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공릉 전경.

한명회 세조와 겹사돈 맺으며 예종·성종 2대 요직 장악
장순왕후는 17세 때 원손 인성대군 낳고 닷새 후 눈 감아
공릉, 세자빈 묘로 조성…무인석 하나없이 문인석과 석마만


남산에서 내려다본 한강 압구정 부근. 아파트 숲에 역사가 묻혀 있다.

공릉(恭陵)은…
8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한씨의 능이다. 장순왕후는 한명회의 셋째 딸이다. 의경세자가 죽고 둘째 아들(예종)이 왕세자에 책봉되자 한명회는 1460년 그의 딸을 세자빈 자리에 앉혔다. 장순왕후는 아름답고 정숙하여 시아버지인 세조의 사랑을 받았다. 세조는 왕세자빈에게 장순(章順)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온순하고 너그럽고 아름다우며(章), 어질고 자애롭도다(順). 1470년(성종1년) 능호를 공릉이라 했고, 1472년 장순왕후로 추존되었다.

공순영릉(恭順永陵)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의 공릉,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의 순릉, 영조의 맏아들 진종과 그의 비 효순왕후의 영릉이 모여 있다. 사적 제205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산4-1번지. 면적 132만3105㎡ (4만239평)


공릉의 정자각.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www.wonjulife.co.kr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자연의 건강한 맛에 빠져보세요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건강에 행복을 더한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의 영양 원주흑선식 2개월분 90,000원
천하의 명약으로 알려진 히말라야 석청 1kg 300,000원
맛과 영양에서 탁월한 원주장류
▸원주청국장환(1kg): 25,000원
▸원주청국장분말(1kg): 20,000원
▸원주된장(2kg): 20,000원
▸원주고추장(2kg): 25,000원
전국대리점 모 집 중 무상사
주문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산28-3번지
소비자상담실 (053) 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대한불교 조계종 만인회 약수사 만탑 불사 모연문
탑이란 누겁다생으로 갈고 닦아 이룬 소원성취의 결정체이며 옛부터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소원성취 만탑불사에 신남신녀 여러분의 수희동참을 앙망하옵니다.
일체중생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만탑불사는 역사이래 보기드문 대작 불사이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다라니 기도를 매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국내최초, 최다 만탑 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자손대대로 무량대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
◆동 참 금 : 1인 1탑 30만원(10회 분할가능)
◆구좌번호 : 농 협 525-01-176510 (예금주 : 약수사)
우체국 400051-01-007539 (예금주 : 조계종만인회)
◈ 만인회 회원도 모집합니다. (월회비 1만원)
◈ 회원 가입시 각종 혜택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시 만인회 책자 무료우송
◆동참문의 : 063)625-6831/010-9115-6831
약사여래기도도량
지리산 약수암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 183-2번지
※약수사 참배시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습니다.

설법 연수 무료특강
15년의 전통을 지닌 본원에서는 "실기위주의 맞춤식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설법을 잘 하기 위한 대인불안, 공포해소, 표현력, 설득력, 호소력, 화술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특강에 오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무료강좌 / 선착순 15명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7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아넨)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행사 문의 바랍니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서울 강동구
011-445-9549
기원 합장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제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껏집전하여
드립니다
<수시접수>
011-9837-8668
원명사 주지 심산스님합장

물어보세요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기도 회향방법 지도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빙 의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픈 분
신병 · 무병 · 알콜중독 ·
우울증 · 컴퓨터오락중독
www.jijangsw.com
054)383-8553
(부처골 지장선원)

수(數)수리 수인작법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 (기본적)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그
◆숫자가 사람 또는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교재 : 수(數)수리 수인작법서 무료 증(시중에 절판된 책)
◆소량의 분량재고 선착순 판매
031)633-1517
010-9593-5537

범음 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다라,
승무작법
010-2570-3847

명리학, 육효, 수강생 모집
용 덕 사
(명리배우면서 절 살림 도우실 여자분 모십니다. 출/퇴근 가능)
051)506-403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041)673-233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지역
011-527-5908

"염불" 전문스님입니다
산수 수려한 명산에서
기도(부전) 원합니다
054)433-6315
010-4520-678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전후, 중국교포 환영)
▷경기도 성남
011-212-911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근교
053)852-6561
053)851-4558
017-803-020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합니다
(65세 이상) ▷서울 정릉
02)917-3363

기도하면서 지내실
노부부 모십니다
기도하실스님,
스님하실 행자님,
처사님 모십니다
011-561-6644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55)674-6673
055)674-6625

같이 불사와
포교를 함께 하실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74-330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051)542-4848
011-551-171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 산사
054)772-4133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군
010-4573-831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제천
043)643-4732
043)643-4733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하여 스님이 될
행자(女)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199-709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화주 보살님 및
종무원을 구합니다
행자모집(사미계수료후
중앙승가대 입학가능)
011-324-5103

노전스님
모십니다
▷칠곡 송림사
054)976-8116

총무보살님 및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493-1121

사찰 운영하실 스님 모십니다
천 년 고 찰 터
●신축 큰 사찰 (광주시에서 20~30분 거리에 있음)
●산과 물이 좋음
●40대 전후 비구, 비구니 스님을 모시고자 함
●원력 크신 스님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061)381-8844 / 061)381-0234
011-611-1516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이 통화중 일때
02)574-3427 로 걸어주세요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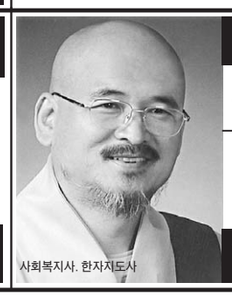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행 자 구 함
내가 사는 절은 대중과 항상 접하는 도심 사찰입니다
세상살이 힘들지 않습니까?
입산해서 수행하는 것도 인생일대의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 하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와 결단을 내리십시오.
● 입산자격 : 만 18세 - 43세, 독신남자 (고등이나 동등한 자격)
054)452-0845/011-539-0845

사찰 행사 49재, 천도재, 불상점안, 산사음악회 (범음범패, 바라, 작법무, 화청, 전통무용)
영산회상 예술포교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일겸합장)
문의 051)557-1130/011-482-2091
홈페이지 : www.천도재.kr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스님들이나 법사들의 포교방편 최고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 기로써 퇴마를 치유한다
2. 즉석에서 우주와 결합시킨다
3. 손 끝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다
※ 세상에 이런 신통기공사는 한명 뿐
※ 사찰 입종 환영, 행지승 모집!!
▸웰빙 건강 최고의 건강 수련법◂
각종 질병이 수련시 치유되며 즉석에서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수기간 :3개월 완성 ●속성반 :2개월 완성
*연락주시면 동영상 CD를 보내 드립니다.
*스님들 법사님들 우선순위 환영 하며
*타종교와 일반인도 환영 합니다.
대한선챔불교조계종총무원
*법인 : 삼삼구 불기공 전국 총 연합 본부 (5호선 명일역 3번 출구 부근)
TEL 02)426-4774 / FAX 02)426-5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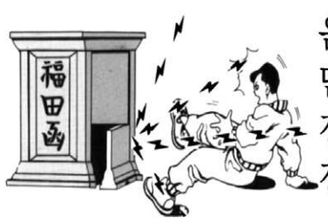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군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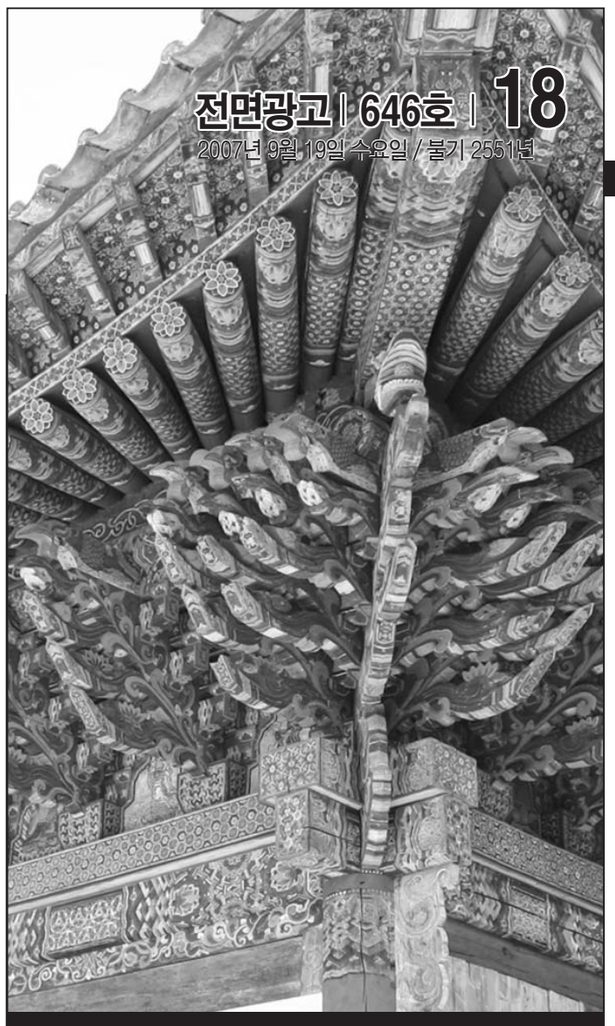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데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담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할말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범 음 · 범 패 수강생 모집
교육과정
1. 49재 및 천도재 의식 (6개월 과정)
● 천수바라 ● 사다라니바라
● 도량게 ● 다게작법
※49재 및 천도재의식 후 점안의식 강의(포함)
2. 상주권공재 의식 (1년 과정)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송강 범음·범패 전문강원
●원장 : 오송강(중요무형문화재 준 보유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
011-258-0314

대중포교 친견고민 끝!
"효사육임복변집"
- 드디어 공부할 필요없이 쉽게 활용되도록 해 놨습니다-
이 육임활용서는 효사 육임래정비법 의 최신 "완결판" 입니다. 60갑자를 매일별로 3장 6면에 편성, 독립제본(A4,A3용지크기 2종류)
하여 ①왜 왔는가? ②어떤 정황인간? ③형이상각법 (작사귀 병귀 침범여부 및 그명칭, 부정빌미침범여부 및 그 명칭, 산소탈 침범여부 및 그 망자육친, 산소탈 이유, 후손재해, 묘지경관, 묘지물형좌, 묘지속상태, 각각의 해소지침) ④당면운세 판단 ⑤띠별 나이별 길흉 ⑥묻는 목적사 23항목별 성부 ⑦1년 월별 신수 ⑧원전 육임직지요결 등등을 또박또박 기입해 놓아
■정확도 ■효과성 ■간편성을 담보시켰습니다.
표시된 방문시간과 표시된 해당국수만 주-욱 보고서 보듯 보아나가면 정곡을 찌르는 위력 이 있게 됩니다.
이외, 실생활에 적용되는 즉시적 능동적 육임활용간단비법들을 순서에 맞춰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 책 60갑자 60권, 동일한 각일치 3장 6면의 양식구성에만 무려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것은, 정확도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학습하지 않고도 만족스럽게 활용하여 효과가 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굳이 말씀 드립니다.
■ 주문 : 02)993-8680 (60갑자일 각 순 10권씩, 6순 60권 독립제본, 8월 20일부터 1-6차 발송함)
■ 입금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주)
농 협 170338-56-155880 김나형
■ 대금 : 250만원
육 임 나 라
www.taoetmple.net
효사육임강론 序六版과 기존 강론 · 강의록 교환접수합니다.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CD프로그램과 기존 Ⅰ·Ⅱ·Ⅲ 과 교환접수합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영도 바닷가
- 부지 : 130평 (시유지30평 포함)
- 법당 목조 25평, 요사채2동
- 주변경관 바다전망 최고
- 120년 역사 전통 사찰
- 가액 : 3억 2천
- 위치 : 삼랑진역 10분 거리
- 총평수 : 110,000㎡(3만3천평)
- 총교용지 : 1,530평+밭550평+임야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12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가액 : 4억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해안도시
- 법당 : 90㎡(27평)
- 요사 : 36㎡(10평외20평)
- 부지 : 1,179^{75}(357평)
- 가액 : 3억2천
- 위치: 강원 동해
- 법당 : 82㎡(25)목조
- 요사 : 217㎡(66)목조
- 부지 : 891㎡(270)목조
- 가액 : 4억(급양도)
- 위치: 마산지역
- 법당 : 79㎡(24)목조
- 요사 : 396㎡(120)목조
- 명부전 : 660㎡(200)목조
- 부지 : 3,960㎡(1,200)목조
  국유지 4950㎡(1500)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 교 원 안 내

포교원 및 경전연구실 최적지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송정 중심가 (부산-울산 25m 국도변)
- 용도 : 상업지(1, 2층 주차장 완비)
- 부지 : 122㎡(37평)
- 가액 : 1억5천만원(융자 3천만원 있음)

011-582-0029

사찰(급)안내

- 복지 추모사업을 위한 "절"(분할지불도 가능)
- 위치 : 경북 고령 국도변대구에서 30여분)
- 대지 약800평, 건평 약80평 (임 2천평 유입가능)
- 법당 25평, 방 9개, 주차장 약500평
- 요양원 및 추모(사리불 안치) 사업 진행중
- 동참 및 운영할 분 요망
- 인수가 : 2억5천만원(융 9700만 있음)

053)471-3123
017-501-2315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20평
- 시골 흙집(황토)
- 건평 28평
- 외딴곳 마지막 주택
- 가액 : 4천5백만원

010-3161-1613

사 찰 안 내

- 평수 120평
- 1층 16평, 2층 법당 20평
- 요사채 1, 산신각 1
- 경주 터미널 15분 거리
- 집기 일체
- 가액 : 9천만원

011-544-9777

사찰(급) 안내

- 위치 : 전남 고흥군 동강면
- 땅 591평
- 법당 21평(조립식)
- 요사채 26평(조립식)
- 화장실 3개, 방3개
- 가액 : 1억 2천5백만원

061)832-2314
010-3635-18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402평, 임야 30평 (실사용평수 약 600평)
- 대웅전 33평,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7층 석탑, 정남향,
- 산세수려, 진입로 포장
- 가액 : 7억5천만원

011-9411-530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포항시육거리 (구, 시청앞)
- 건평 35평(2층)
- 법당 잘 꾸며져 있음
- 몸만들어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옆 건물은 다방(살림도 가능)
- 가액 : 1200만원 (시설비, 보증금 포함)

011-9798-846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기도 경계 (원 도봉산)
- 시위지 약 300평 (신축 건물(3년)
- 임법당, 건평 45평, 별채 18평
- 경내에 칠층석탑, 관음석불 있음. 심야보일러
- 1호선 망월사 전철역에서 5분거리. 지하수 및 수도시설
- 공기청정, 조용하고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2천만원

016-337-951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
- 대지 : 250평
- 대웅전 25평
- 요사채 : 20평
- 화장실 3칸외 시설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 꼭 하실분 전화요망

010-9333-847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 평수 : 57평,법당 20평
- 방4개, 공양간, 창고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6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특징 : 신흥 주거지역 대단위아파트인접 즉시법회가능

017-517-0097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 (고속도로 10월말 개통)
- 청주에서 30분 거리 서상주 IC 3분 거리, 길접함 산밑 야산, 옛절터
- 대지 630평 (국유지 150평 접함)
- 현 거주중(25평 구 가옥 있음)
- 가액 : 7,500만원

011-718-4059
011-669-957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 강북구 우이동
- 평수 : 30평(3층)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2)902-4070

사 찰 안 내

- 위치 : 단양
- 대지 : 270평
- 요사채 : 50평
- 법당 : 30평
- 가액 : 1억 6백만원

010-9959-1026

암 자 안 내

- 위치 : 마산
- 가액 : 4200만원
- 법사님,보살님,비구니, 노스님적합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 몸만오시면됨

010-9235-9318

인천지역 포교원 안내

- 건물 37평(계단, 화장실, 주차공간 제한평수)
- 3층 신건물, 2층 전체사용
-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佛), 영가단
- 사무실, 접견실 겸 공양실, 주방, 에어컨 2대 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주차시설완비

010-6261-6117
진공스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율동
- 대지 : 120평
- 법당(삼존불 모셔져 있음)
- 시설 : 요사채(부엌, 방5)
- 특징 : 교통편리
- 가액 : 1억3천만원

016-525-032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 평수 : 약50평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1-582-1865

명 산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90평, 밭 590평
- 진입로 포장, 심야보일러 농어촌 전기, 조립주택 28평 미타삼존불탱화, 방4, 입식부엌
- 구획 외 지역으로 건축이 자유롭다
- 가액 1억 3천만원

017-407-002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중심지
- 요사채, 법당 갖춰짐(슬라브)
- 가액 : 2억
- 국유지 5년 분할조건 계약하여 불하받는중에 2년 상환함(78.8평)
- 25년 된 사찰(명당터)

051)633-163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평수 : 1,200평
- 답사 후 가격결정
- 산세 좋고, 교통편리함

011-568-4417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소재 (전철역 3분거리)
  교통편리, 주변환경 조용함
- 대지 : 44평(단독)
- 2층 법당, 지하1층
- 가액 : 6억8천만원 (시설비 포함)
-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랍니다

016-565-2527
(오후에 상담요망)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 550평, 공유지 500여평
- 법당 :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25평
- 요사 : 24평(2층), 부속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대구 30분 거리
- 특징 : 강변 고절처로 기도처 최고 포교와 노후생활에 최적지
- 가액 : 2억9천5백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4600-0408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법당 : (실평수) 65평(2층) 시설 특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8-632-20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대구, 마산, 창원 인접)
- 평수 : 1,350여평 법당, 용왕당(연못있음) 칠성각, 요사채, 총100평정도
- 가액 : 3억 5천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2592-152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031)405-4181
010-6321-163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역 부근
- 평수 : 약 45평
- 4층 건물중 3,4층(옥상사용)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단, 주불 약사불 100불, 영가단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스님이 불사관계상 급 양도함 역학보시는 분 환영

011-225-8344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37-658번지 약산 향림사
- 시유지 : 600여평 사용 60여년된 사찰
- 특징 : 도심 가까이 있는 포교 최적지
- 가액 : 1억5천만원

011-891-293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내당동 7호광장
- 2층 독채
- 법당, 방2, 공양간, 욕실
- 1년(월세) : 200만원 (전세 2천만원) 시설비 350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0-7459-5110

포 교 당 안 내 (임대도 가능)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평수 : 30평(3층)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2)902-407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광명시 소하동 (서울 시흥대교 지나 바로 앞)
- 평수 70평 4층 건물중 4층,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스님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9564-6669

도심 암자 안내

- 위치 : 마산시 완월동 산복도로변 주변아파트 솔밭 공터내
- 건평 40평, 대지 200평 독립가옥 텃밭 있음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 관음)
- 보증금, 시설비 2,000만원 월세 20만원
- 도심에 위치한 조용한 암자에서 포교 원하시는 분, 스님, 보살, 역학원 누구든 좋은 자리입니다

010-5363-1027
055)352-3722

포 교 당 안 내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 동해시 단독주택 건물
- 법당 외 방 3개, 주방 및 화장실 옥상, 텃밭,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없음
- 교통편리(고속버스터미널 역전근교)
- 역학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위치

010-8726-1357(법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 4층 건물중 3층 포교원 90평
- 시설 A급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4877-590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대산면
- 대지 100평 중 법당 20평
- 공양간겸 스님방 1개, 화장실1
- 건축된지 3년
- 가액 : 80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0-9183-0654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중산리 방면
- 대웅전,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친견실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1-863-0622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6-271-2545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 427㎡(약140평)
- 블럭주택 20평(거실, 부엌, 방3)
- 전원주택 적지(정원 잔디밭)
- 현지까지 진입로 포장완비
- 가액 : 4천5백만원

016-533-5100

사 찰 중 계

- 위치 : 경기 동남부
- 부지 : 3500평
- 가액 : 7억
- 부지 : 1천평
- 가액 : 15억
- 위치 : 경기 남부
- 부지 : 42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63평
- 가액 : 9억(급안내)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지리산 사찰 양도

- 해발700미터 웅장한 일자혈에 계곡
- 소나무 기암의 임야15000평 대지1000여평
- 현대식요사채3동 통유리 벽난로 황토선방 무문관수행위한 4개독립선실 전기도로 완비
- 양도가는 방문후협상

연락처 010-4650-5730
(정진 중이니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 부동산 전문안내

- 대구 · 경북권 지역

석불 · 석등(석조각 불교제품)

- 제작, 공급합니다

011-822-8000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1.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7-373-5998

2. 위치 : 춘천시
- 대지 200여평, 조립식 임법당 30평 외 부속건물 10여평 ● 가액 : 1억5천만원

010-6739-642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온양온천)
- 특징 : 상가 아파트 밀지지역. 2층 건물 2층
- 역학, 보살, 스님, 조건양호, 법당(시설완벽)
- 상담실, 스님방, 거실, 욕실, 주방
- 보증금 3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집기일체 포함) 1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도심포교 사찰안내

- 위치 : 청주시 주산인 우암산 중턱 ● 대지 : 53평
- 건평 : 대지전체 건물측조 (※2005년리모델링건축함)
  ①1층-전통흙벽돌 및 목조건축 53평
  ②2층-준 2층이며 목조 및 캐노피발코니건축 25평
- 양도가 : 2억 7천만원 ① 승계가능한 융자5천만원 포함
  ② 현사찰기능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모두 포함
- 사찰특징 : ① 쾌적한 환경 및 시내조망권최상
  ② 현재 포교활동 및 사찰 운영 재정상태 원활함
  ③ 도심포교와 연계하여 공동체 마을 운영중
  ④ "공동체마을"까지 인수하실 경우 "도심선방"으로도 연계 사용가능함
  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소재"공동체마을 규모"
- 대지 : 200평 건물 : 법당45평,공양간45평
- 공동체 마을 인수금 : 1억원

016-401-6254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4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0-9598-9117

멋진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고령
- 대지 2,000평, 대웅전 단청 40평, 요사채 큰방4개, 현대식주방2개, 목욕탕 실내화장실, 소형 연못
- 요사채 1층 원룸 15개, 2층 원룸 15개 다락큰방 2개, 현대식 신축, 2007년 5월 올 수리
- 16억 짜리 융자 2억 안고 4억에 급 매도

주인 직 011-869-8608
011-872-7073



가족이 먼저? 종교가 먼저?

다종교 가정, 현명한 명절나기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차례 준비에 몸살을 겪는 주부나 입시와 취직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 · 취업준비생이라면 명절은 피하고 싶은 시간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차례를 둘러싼 가족들의 갈등도 빈번히 일어난다. 종교가 다른 가족구성원들 간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빚기도 하고, 종교 문제를 둘러싼 언쟁도 오가게 된다. 올 추석을 가정 내 '종교전쟁' 대신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

맏며느리 · 장남 개신교일 경우 갈등 많아
불교 · 가톨릭 · 원불교 등 제사 계승 찬성
종교 일치 사고 지양…묵념 등 해결 방법도

58살의 K씨는 명절이 괴롭다.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맏며느리인 아내가 집안의 차례와 제사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른바 '종교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개신교인인 아내는 "제사는 우상숭배"라며 제사 지내기를 거부했고, 동생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수 음식을 사서라도 제사를 지내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못하는 K씨의 입장 때문에 명절 때마다 동생들과 데면데면하게 돼 버렸다.

직장인 Y씨는 즐겁기만 하던 명절이 '일 년 중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로 변해 버렸다. 대대로 불교를 믿던 집안에서 큰누나가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난 후 명절 때마다 친정에 찾아와 "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냐"며 잔소리를 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며 일일이 붙잡고 개종을 권유하기 때문이다. Y씨 역시 독실한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누나 때문에 가족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마뜩치 않다.

대전에 사는 주부 L씨는 2년 전부터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게 됐다. 장남인 L씨의 남편은 차례를 지내야 한다고 고집했지만, 가톨릭 신자인 동생 두 명이 "차례를 지내는 대신 명절 음식을 먹으며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후로 고집을 꺾었다. L씨의 남편은 결국 "차례를 지내지 않는 대신 기도나 찬송 등의 종교행위도 하지 말 것"을 동생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6월 열린 '동아시아 종교학의 현재와 미래' 주제의 한국종교학회 학술대회에서 송현동 교수(건양대 예식산업학과)는 종교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갈등을 사례별로 제시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족 내 종교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시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종교 갈등은 제사나 차례, 상 · 장례 등을 직접 주관하는 맏며느리나 장남이 개신교 등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믿게 될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성표 교수(울산대 사회학화)는 이날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 갈등 가능성과 잠재적 요인'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불교나 가톨릭, 원불교 및 무종교인들은 제사를 계승해야 할 문화적 유산이자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반면, 개신교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교와 가톨릭 신자의 경우 자신의 종교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수록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나, 개신교 신자들은 종교 몰입도가 높을수록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가족 중 개신교도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종교 갈등의 소지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가족 간의 종교 갈등을 겪다 못해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도 늘고 있다. 제사 · 차례를 지내지 않는 대신 기일이나 명절에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 뜻을 기리는 것이다. 아예 명절에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교통 혼잡이 없는 주말에 모여 식사를 하는 것으로 명절을 나는 가정도 해마다 늘고 있다.

그렇다면 한 가정 내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불교식 차례의식 보급에 나서고 있는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차례의 진정한 의미를 먼저 되새겨 보라"고 말한다. "차례란 한 해의 수확을 다함께 축하하고 조상께 감사하는 뜻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가족의 응집력을 높이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방편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차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법현 스님은 "갈등은 '내가 옳다, 너는 그르다'라는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족의 다른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내려놓고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사단법인 한국주부클럽연합회는 "절대 상대의 종교를 비난하지 말 것"을 명절수칙 1조로 꼽는다. 서로의 종교를 비방하거나, 종교를 소재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삼가고 서로의 건강과 생활 등 공통의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으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교가 일치해야 한다는 편협한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열린가족상담센터 김현의 상담팀장은 "가족 간의 종교 갈등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평소 가족애가 두텁고 대화를 충분히 하는 가족일 경우 종교가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의 폭이 크고 상대의 입장을 수용하는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례를 지내되, 종교가 다른 구성원은 절을 하지 않거나 절을 하는 대신 묵념으로 대신하는 식이다. 김 팀장은 "종교문제를 떠나 평소 서로에게 섭섭한 점이 있다면 대화로서 갈등의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조언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3. 명절증후군

오랜만에 흩어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즐거운 추석이지만 주부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적지 않다. 얼마 전 주부 김 모(43)씨는 추석문제로 걱정되어 심한 두통과 가슴이 뛰는 증상을 보여 내원했다. 이와 같은 증상은 주부들의 84%가 겪고 있다는 소위 '명절증후군'이다.

명절증후군은 명절만 다가오면 자신도 모르게 과거 명절 때 겪은 스트레스 경험이 떠올라 다양한 정신적 · 육체적 증상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하나이다. 이러한 증상은 주부들에게 특히 심각한데, 이는 한국 주부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불안 · 초조 · 근육통 경험…심하면 우울증으로
적절히 휴식 취하며 스트레칭으로 피로 풀어야

대한민국 주부들이 겪는 명절증후군은 대체로 명절 전부터 시작돼 연휴가 끝난 후까지 이어진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대게 두통과 불안, 초조, 우울증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연휴 동안 무리한 가사노동으로 인해 요통, 근육통, 만성피로 등을 경험하게 된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 어지럼증, 위장장애, 손발마비, 호흡곤란 등으로 이어져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곧 해소되긴 하지만 심할 경우 주부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다. 이번 추석 때는 명절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지압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붙여 허리와 다리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 바닥에 앉아 일할 경우 양반다리나 한쪽 무릎을 세워 허리를 곧게 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을 부치다 보면, 오래앉아 있어서 무릎에 통증이 온다. 이때는 바로 일어나 무릎을 굽혔다 폈다하는 것이 오히려 무릎관절과 엉덩이뼈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곧게 편 다음 양 발목을 좌우로 가볍고 빠르게 흔들어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한 후 일어서는 게 좋다.

목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첫마디, 허리에 통증이 온다면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를 꼭꼭 주무른다. 또한 오랫동안 주방에 서서 일을 하다보면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짬을 내 허리체조를 해주는 것도 좋다.

잠시라도 적절한 휴식을 자주 취해서 육체적 피로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초래되는 근육긴장의 이완을 위해 심호흡을 하거나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연휴가 지나 갑자기 통증이 몰려오면 찜질이 효과적이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관절이 부었을 땐 냉찜질을 해 부기를 가라앉히고, 3~4일 통증이 계속될 땐 온찜질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한다. 통증이 심해지면 침이나, 물리치료, 부항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뒷목이 뻣뻣하거나, 수면장애, 혈액순환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청심온담탕'으로 치료한다. 또한 신경성으로 인한 소화 장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 초조하고 잘 놀라고 기운 없고 피곤한 증상에는 '자음건비탕' 이나 '귀비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사암등록 및 행자모집

◈ 각 사암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 행자, 동자(예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한 청정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여 행자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시고져 하는 분은 이 곳 고원사에서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행자 및 동자 자격기준
◆나이 : 남자 55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
◆학력 : 고졸이상
◆나이 : 동자 5세이상 12세이하
◆6개월 교육후 수계(예비스님)
◆문의 : 총무실장 010-4802-5288
010-2039-528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참선기도 도량 고 원 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 054)383-5005, 054)382-3397

전통불교대학 삼 보 선 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대자비심으로 중생들 극락정토로 인도



그림1 : 일본 기부현(岐阜縣) 동광사(東光寺) 소장 '관세음보살도'의 상체부분, 고려시대 14세기

불화 속의 명장면 (33)

日 기부현 동광사 소장- '관세음보살도' (상)

아득한 명상(冥想)의 작은 배는 가이없이 출렁거리는 달빛의 물결에 표류되어, 멀고 먼 별나라를 넘고 또 넘어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에는 어린 아기의 미소와 봄 아침과 바다 소리가 합하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은 옥새의 귀한 줄도 모르고, 황금을 밟고 다니고, 미인의 청춘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이 나라 사람은 웃음을 좋아하고, 푸른 하늘을 좋아합니다.

명상의 배를 이 나라의 궁전에 매었더니, 이 나라 사람들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님이 오시면, 그의 가슴에 천국을 꾸미려고 돌아왔습니다.

달빛의 물결은 흰 구슬을 머리에 이고, 춤추는 어린 풀의 장단을 맞추어 우쭐거립니다.

'명상(冥想), 만해 한용운'

-

누구나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통에 처하면, 천국을 꿈꾸게 된다. 그 천국이 내 어릴적 꽃나무 만발한 정원이건,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던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이건, 순결한 첫 눈 같은 여자 친구의 모습이건, 이 상상력의 힘으로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 나아간다. 천국은 눈감으면 그렇게 상상 속에서 한줄기 환한 빛으로 미소 짓고 있다.

만해(萬海) 한용운은 '명상'이라는 시에서, 그가 꿈꾸던 천국과 그가 어울리고 싶었던 천진난만한 사람들을, 그 특유의 맑고도 아름다운 시어(詩語)로 풀어내고 있다. '명상의 작은 배'를 타고 출렁이는 달빛 물결을 넘어 황금의 땅 극락에 가 닿았으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님'을 위해, '님의 가슴에 천국을 꾸미려고' 다시 돌아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님'은 읽는 독자의 마음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만해에게 있어서는 '중생'일 것이다. 만해의 평생에 걸친 화두는 '중생 구제'였다. 이 시에는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衆生)'라는 보살행(菩薩行)의 참의미가, 애잔한 어휘로 잘 묘사되어 있다. 만해가 일생을 걸고 주력했던 것은 불교의 대중화 혹은 민중화였는데, 그는 '산간(山間)에서 길거리(街頭)로! 승려(僧侶)에서 대중(大衆)으로!'라고, 그의 저술 <불교유신론>에서 부르짖고 있다. 물론 불교의 대중화란 '보살행'이라는 실천적 행위로 가능하고, 또 보살행은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기도 하다.

'자신을 위한 수행과 함께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自利利他)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기본 개념이다. 성불(成佛)할 수 있으나, 이를 미루어 두고 당장 중생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보살이다. 지혜, 행원, 희사 등을 상징하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등 많은 보살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살의 희생정신을 대표하는 보살 중의 보살로는 '관세음보살'을 꼽을 수 있겠다.

옛 우리 조상들이 친견하기를 염원했던 관세음보살의 환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본 교토국립박물관에는 일본 동광사에 소장되어 있던 고려시대 '관세음보살도'가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다.(그림1) 고려시대의 관음보살은, 대개 아미타불의 좌측에 서 있는 협시로 '아미타삼존불도'에서 찾아볼 수 있거나, 또는 선재동자가 보타라카산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관음보살을 묘사한 '수월관음도'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작품은 관세음보살이 정면을 하고 서있는 모습의 독립상으로, 관세음보살이 협시로서의 의미에서 벗어나 대중적 유행에 호응하여, 단독 신앙으로 숭배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관음보살은 푸른 연꽃을 밟고 서서, 왼손으로 오른팔 손목을 잡고 있다. 앞으로 다소곳이 모아지는 보살의 팔 위로는 투명한 비단 베일이 층층이 결을 내며 흘러 내려온다.(그림2) 극세사로 짜여진 투명 사라는 관음보살의 높은 보관을 덮고 관음보살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있다. 사라의 육각형 바탕문양 위로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인 듯 또는 날아오르는 봉황인 듯, 금 안료로 그려진 구름과 봉황 문양이 한 데 어우러져 그 섬세함과 유려함을 한껏 자랑하고 있다. 관음보살의 화려하고도 높은 보관에는 붉은 대의(大衣)를 두른 화불(化佛)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미타 부처님이다.(그림3)



그림3 : 관세음보살의 보관 속 아미타부처님.

독립상은 협시 의미 벗어나 단독 신앙으로 숭배
금으로 그린 구름 · 봉황 문양 등 섬세함의 극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불 이신동체 의미

관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정수리에 모시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관음보살의 정수리에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이유는, 관음보살의 '자비'라는 방편으로 중생을 아미타불이 계신 곳, 즉 '극락'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음은 아미타불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마치 메신저(使者)와 같이 극락과 속세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자비심이라는 따듯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극락정토로 안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동해 해변에 낙산사를 짓고 최초의 관음도량(또는 백화도량白華道場)을 연 의상법사는 그의 <백화도량발원문>에서 '관세음보살이 이마 위에 아미타여래를 이고 계심과 같이, 나도 또한 관음대성을 이마 위에 이고, 관세음보살을 본사(本師)로 삼겠다'고 하며, '널리 법계 중생과 같이 일체 중생이 대비주(大悲呪)와 보살의 명호를 염송하여 모두 원통 삼매의 바다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의상은 중생을 정토로 인도하고자 관음의 성지를 동해 바닷가에 열었던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염불은 누구에게 익숙한 염불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둘이 아니고 하나(不二)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아미타와 관음의 이러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을 가리켜 이신동체(二身同體)라고 일컫기도 한다. 중생을 자비로 보듬는 관음신앙을 자연스레 극락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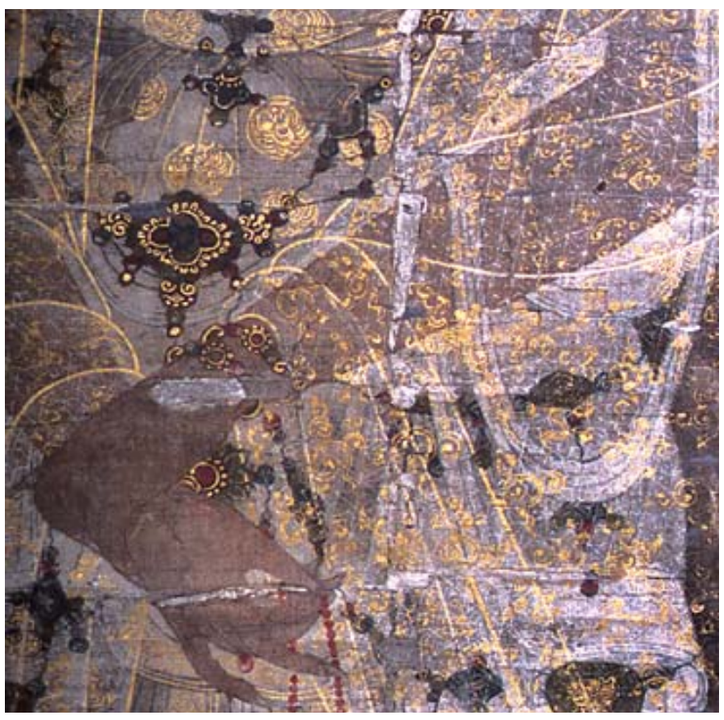


그림2 : 관세음보살의 중심부분 디테일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株)泙建이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美를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우러 지는 멋들어진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 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株)泙建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construction & design PYECONGKEON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일체 만법을 다 닥치는 대로 말겨 놓고 넘어가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이 부모를 위해서 예수재를 지내 드리는 것은, 부모가 이다음에 환토해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오실 때에 무의 통장을 해 가지고 나오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有)에서 물질적으로 궁색하지 않게 잘 사실 수 있다는 뜻에서 예수재를 해 드리는 거죠.

또 돈이 있다면 스님들한테 몇십만 원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몇천만 원이라도 갖다 드리면서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육을 받아서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피와 살, 뼈를 다 받은데다가 열 달 내내 뱃속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머리를 깎아서 신을 삼아 드려도 다 못 갚는데, 더군다나 마른자리 진자리를 바꿔 뉘어 주시고 맛있는 걸 골라 먹이면서 이렇게 길러 주셨는데 무엇으로 다 빚을 갚으오리까? 그러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였으니 부모님이 바로 부처님 자리와 한자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서 시주를 한다면, 부모의 이름을 쓰고 하지 않아도 시주를 해 드리는 것만은 아주 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도 없는데 빚을 얻어다가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병이 나서 고통이 무척 심하다면 지금 급하니까 내 형편대로 여기 부처님 앞에 갖다 놓고 정성들이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 거를 계기로 삼아서 공부하면서 정성을 들인다면 빚도 안 지고 여러분의 병 나으니 좋고, 또 그 돈 모아서 도량을 지으니 좋고, 또 마음공부를 하니 지혜가 넓어지면서 풍부해지고, 이도리를 아니 저승과 이승을 서로 회전해 가면서 삼라만상의 구경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세세생생 창살 없는 창살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주의 근본을, 뿌리를, 섭류를 다 알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유인이 됐을 때, 비로소 부처라고 하고 또는 자유인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내면 법신이요 몸을 움죽거리면 화신입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바로 문수, 자기 몸을 위하면 바로 보신입니다. 자기가 명이 짧은 듯하면 '나는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소?' 하고 자기한테 물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고, 또 '나는 몸을 벗고 가겠소.' 할 땐 그냥 자유껏 그렇게 갈 수 있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으로, 고등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90%, 100%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산호세 지원이 있고 알래스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지원이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무슨 정신 질환이든 뭐든 병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그것밖엔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야 "네 마음속에 주인공이 있으니, 그 보배가 거기에 있으니 거기서 하게 해라." 이럴 텐데 전화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심부름을 해 줘야만 되는 입장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 심부름은 무슨 둘이 돼서 심부름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심부름입니다.

여북하면 옛날에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 "똥 친 막대기니라." 하셨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똥간에다가 막대기를 기다랗게 하나 세워 놓고선 거기다가 쓱쓱 씻었거든요. 씻을 종이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똥 친 막대기니라." 그랬거든요. 똥 씻은 막대기니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말입니다. 어떤 게 부처냐고 물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여러분이 여기 가득 차 있지만 내 이 모습은 뇌두고도 모습 없는 모습들이, 내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내가 다 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멋진 묘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고등 동물입니다. 여러분이 천안통 즉, 천체망원경도 가지고 계시고 천이통이라는 천체무전기 즉, 듣는 것도 다 가지고 계시고 타심통, 즉 말하자면 남의 속을 다 알 수 있는 거를 다 가지고 계시고 숙명통 즉, 남이 지나온 거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신족통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굴리는 것이 바로 법륜입니다, 법륜! 그리고 누진통은 책정기라고 할 수 있겠죠. 책정기 즉, 누진통이 이 다섯 가지를 다 굴릴 수 있어야 자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는 것도 도가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도가 아니고 듣는 것도 도가 아닙니다. 전체 다 듣는다 하더라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에서는 모든 걸 종합해서 '주인공' 하나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사대 오온이 다 공해서 삼천대천세계가 다 공했으니까 '주인공' 할 수밖엔 없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도록 이런 얘기를 잠깐 할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에 아버지 되시는 분들을 예로 들어 봅시다. 때에 따라서 금방 자식이 쫓아 들어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도 없이 금방 "그래, 너 어디 갔다 들어왔니? 왜 늦게 들어왔니?" 이러거든요. 이건 자동적입니다. 금방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그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여보!" 그러거든요. 그러니 금방 남편이 됐죠. 또 안에서 부모가 말입니다, "아무개 아범아!" 하고 부르니까 "예."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금방 5분, 10분 사이에 몇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가지 행을 하셨습니까? 하하하…, 그랬으니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찰나찰나 나투고 돌아가기 때문에 '주인공' 했습니다. 공했다 이겁니다, 주인공!

그러니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찰나찰나 나투면서 일분일초도 떠나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뜻을 비유한다면, 인간과 나무들이 공생 공용 하고 공체로서 이렇게 공기를 서로 주고받고, 즉 말하자면 이산화탄소나 산소 같은 것을 서로 공급하면서 먹고 살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 밖으로 저 시계 같은 걸 던져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쉴 사이 없이 돌아갈 겁니다, 아마. 이런 걸 입증을 해서 지금 물질과학으로써 얼마나 광대무변하게 발전이 됐습니까? 그러나 심성과학으로써 천체심성물리학이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연구했겠습니까? 마음 없이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주도에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에 복잡한 생각들이 느껴졌는데, 나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한다면 복잡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주인공, 그 보배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일체 만법을 다 닥치는 대로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안되는 거를 '이거, 주인공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되는데….' 이런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되는 것도 법이기 때문에 안되는 거는 안되는 것대로 '어! 당신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 안되는 것도 당신이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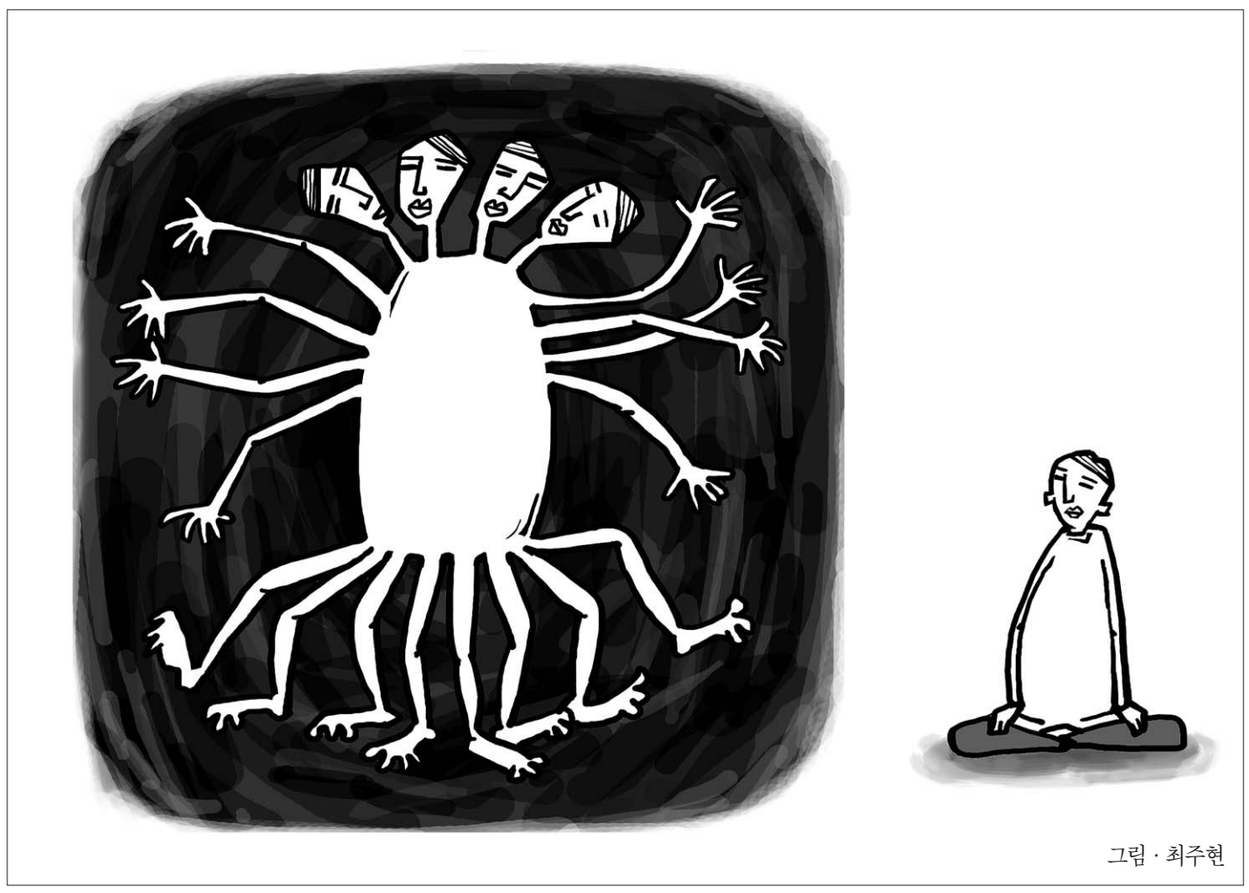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교의식(범음 · 범패) 단기 속성 수련생 모집
(제9기 교육)

본 교육원 에서는 실제로 상용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를 여법하게 집전 할 수 있도록 집중(단기속성 7일간) 교육을 받을 **제 9기 학인스님을 모집** 합니다
제방에서 수행과 기도 정진으로 교화와 포교에 전력을 하시는 스님들께옵서는 범 종단 차원으로 실시하는 이번 제 9차 범음 범패 의식 교육에 수희 동참 하시는 시절 인연을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 교 육 일 시 : **불기 2551년 10월 1일(음 8월 21일) 월요일 - 10월 7일(음 8월 27일) 일요일**
■ 교 육 장 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미륵골 무각사
■ 제 출 서 류 : 수강신청서(본 회에서 배부) / 주민등록 초본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동참비 : 일십만원(교육교재 지급/숙식 등 제반편의제공)
■ 접 수 기 간 : **불기 2551년 10월 1일 까지**(교육 입소 당일 접수가능)
■ 접 수 : 011-604-8902(회장), 011-613-6497(총무)
011-604-9584(교무), 010-3639-2946(재무)
■ 생활 습의는 대중 처소와 같이 합니다.**(가사, 장삼, 목탁, 필기도구 지참요망)**

■ 교육과목

안채비	(1) 의식편 (상단, 중단, 하단 의식 불공 등) (2) 제의식편 (시련, 대령, 관욕, 시식 등)
겉채비	(1) 사물다루는법 / (2) 민바라 / (3) 천수바라 / (4) 다게(나비춤)

※ 실제 법회에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 방법을 이론 / 실기 / 현장실습 교육 방법으로 초심자라도 집전을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수료증 수여 : 준회원 자격부여, 우수한 스님은 선별 심사후 정회원 입회자격 및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실습 기회 제공

사단법인 전통불교 영산회 대중스님 일동 합장

내 마음속에 주인공이 있으니 거기서 하게 하세요!

☞21면에서 계속

안되게 했으니까 안되는 거지.'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자비 되는 것도 자비입니다.

예전에 저 원주에서 있었던 얘깁니다. 어느 신도가 열 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3대가 살았는데 그 3대 중에 뼈가 없어서 몸을 못 쓰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다 되도록 누워서 고개도 못 쳐드는 거예요. 그런데 밥은 잘 먹거든요. 고개만 이렇게 받쳐서 들어 주면 한 그릇씩 먹고선 똥은 그냥 받아 내는 거지요. 그러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열 식구가 다 고생을 하는 겁니다. 죽어도 내내 잊지 못하는 건 그 부모일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식이기 때문에 수발을 다 들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가 그렇게 해 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날더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좋은 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마 서른 안짝이었으니까요. "무슨 좋은 일인데요?"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저 살아 있을 때 이걸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내가 그런 거 처리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네들은 백화점을 했습니다. 돈도 참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절 지을 때니까, 주인공밖에는 처리를 못한다고 믿고 맡기고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서 당신 형편대로 시주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했던지 그 애가 그만 가 버렸습니다. 가 버린 게 아니라 바뀌진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로 태어났느냐 하면 형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거 믿지 않으실 테죠? 그런데 그 아이는 요기 점이 요렇게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태어난 그 아이가 똑같이 그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을 바꿔서 몸을 성하게 해 줬으니 죽이는 것도 자비요 살리는 것도 자비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얼마나 자비입니까, 그게? 열 사람 살렸지요, 걔 몸 바꿔 줬으니 살렸지요. 또 그 아들이 불쌍해서 애썼으니 그거를 다 풀라고 또 그 집의 손자로 태어나게 했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이렇게 일거삼득으로 좋은 일만 생기니 여러분도 그 보배 하나 가지면 일체 만법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했죠?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식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친구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그거와 똑같다고요. 일체 만법을 다 적용시킬 수 있어서 닥치는 대로 놓으면 놓는 대로 작용된다고요. 아파서 놓으면, 맡기면 즉, 일임하면 금방 의사가 됐다가 또 가난을 면하고자 놓으면 금방 관세음보살이 됐다가…, 금방 이렇게 자꾸자꾸 자동적으로 화해서 나투니까요.



세세생생 창살 없는 창살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주의 근본을, 뿌리를, 섭류를
다 알 수 있는 능력있는 자유인이 됐을 때
비로소 부처라고 하고
자유인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로 해 줘서 알게 하는 건 안 됐지만,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생활 속에서 좀 더 자기를 유익하게 건지면서 나가다 보면 신심도 아주 돈독하게 되고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애쓰게 되면서 능력이 생겨서 남까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원에 청년법회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청년이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회장이 언젠가 와서 자기 사촌 동생이 폐병을 앓아서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빽 썼습니다. "네 보배는 어디다 두고 누구더러 해 달라느냐?" 그러고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알았다고 그랬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알았다고 했을까 이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한 두어 서너 달 지났는데 그때 와서 "진작 말씀을 드려야 할 거를 못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의 감응을 받았고 그 아이를 고쳤습니다. 스님, 뜻으로써 고치는 방법을 제가 알았으니 머리를 잘라서 신을 삼아 드린들 이 은덕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바로 네가 한 것이다. 나의 은덕이 아니라 바로 너의 은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일체 만법을 그 보배 하나로 할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수없이 바뀌지면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보배 구슬이 여러분한테 있으니 말입니다.

용(龍)도 여의주가 있어야 하늘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체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바로 용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주를 물지 않으면' 하는 거는 '오신통을 자기가 굴릴 줄 모른다면'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걸 여의주라고 했고 구슬이라고 했고 보배라고 한 것입니다. 그걸 굴리지 못하면 하늘에 못 올라간다 이 소립니다. 말이 하고 싶어도, 또 어떤 때는 하려고 하다가도 딴 데로 달아나가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글쎄. 참….

끝으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옛날에 수많은 조사들께서 주장자를 들고 한 번 땅! 치고선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일러 봐라." 하신 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예가 있지만 말입니다. "이 주장자의 눈을 봤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판치생모(板齒生毛)니라." 하는 그 천칠백 공안들을 하나하나 내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얘기 가지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없이 대답을, 특별한 대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실제 비구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근데 비구니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 실제 비구니에 대하여 도승으로서의 일화를 남겨 놓지도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 삿갓을 쓰고 석장을 짚고선 금화산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다녔느냐 하면 공부를 웬만큼 했으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절로 다니면서 스님네들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금화산의 주지 스님이 바로 구지 스님인데 깨치지 못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이 스님이 들어오더니 아무 소리도, 인사도 없이 빙글빙글 세 번을 돌았습니다. 세 번을 돌고선 딱 섰습니다. 그런데 이 주지가 뭔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알아야 대답을 하지요.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그 주지 스님 입장이었더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중에서 한번 일러 보십시오. 그거는 그럼 의정으로, 교재로 놔두고요.

그 스님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분해 가지고는 그날 보따리를 부둥부둥 쌌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귀가 아프시도록 많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거긴 두 가지 여건이 있죠? 실제 스님이 돈 거하고, 구지 스님이 동자의 손가락을 자른 거하고, 거기에 아주 묘한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분해서 '대장부로서 입산을 해서 주지로서 있으면서 그래, 비구니한테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다니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선 그날 밤새도록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하면서 '내가 인제 내일 새벽이면 떠나겠다. 나도 공부해야지.' 하고 있다가 밤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수염이 하얗게 센 산신이 나타나더니만 "앞으로 너를 인도해 줄 천룡 스님이 오실 테니까 너는 가만히 기다려라. 그렇게 그쪽으로 가서 공부할 힘이 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니라. 자리가 똑같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스님이 오시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스님,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세상에 남자로 나서 비구니한테 이렇게 그냥 당했습니다." 하고 철철 우니까 아무 소리 없이 손가락 하나를 번쩍!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까닭입니까? 거기에서, 그 주지 스님은 고만 손가락을 드는 바람에 "아하!" 하고는 그 손가락에 삼천대천세계 우주가 들리는 거를 본 겁니다. '바로 이거로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에서는 모든 걸 종합해서
주인공 하나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사대오온이 다 공해서
삼천대천세계가 다 공했으니까
'주인공!' 할 수밖에 없죠

그 스님은 그 다음부터는 항상 "부처님이 계십니까?" 하면 손가락을 들고 "공양 드셨습니까?" 해도 손가락! "부처님이 어딨습니까?" 해도 손가락!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해도 손가락! 손가락으로 평생을, 어떤 질문을 해도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동자가 고거를 흉내를 냈단 말입니다. 손님들이 와서 물으니까 자기 은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손가락을 쳐들었지요. 또 그것도 잘했다고 스님이 오시니까 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 아무개야!" 불러선 쳐드는 손가락을 탁 잘랐단 말입니다. 막 그걸 붙들고 울면서 달아나가는데 말입니다, 묘한 건 요기에 있어요. 달아나가는데 "아무개야!" 부르는 소리에 돌아다보면서 무의식중에 손가락을 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손가락을 들려고 보니까 손가락이 잘리고 없잖아요.

이건 내 얘깁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없는 걸 보고선 동자도 '이거구나!' 하고 알았더랍니다. 그 소소한 내막은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말끝을, 말꼬리를 잡고 여러분이 말을 배워서 하시면 정말 오산입니다. 그러니 그 꼬리 잡고 늘어질까 봐 걱정이죠. 옛날에 그 수많은 선사들도 꼬리 잡을까 봐 천칠백 공안을 다 던져도 꼬리 잡지 못하게 했죠. 하나 둘, 요 따위나 가지고선 한번 대답했다간 그냥 큰코다치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올려놨다 내려놨다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개인이 나한테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만 있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그 만법을 다, 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아픈 거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시험 문제라든지 뭐, 무슨 건이든지 다 어디서 해결을 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주인공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 주인공에서 해결하게 하되 그저 내 성의껏,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성의껏 시주하면서 정성을 들이시고 자주 드나드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봅니다. 난 장담합니다.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달렸습니다. 요다음에 또 한 번 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을 키우셔서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한 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여기 부처님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에는 항상 보일 겁니다.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신다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자유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8년 8월 22일 제주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Ānapānasati

붓다의 호흡법
아나빠나사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핵심 수행법, 아나빠나삿띠



붓다의 호흡법 아나빠나사띠 | 붓다다사 스님 지음 • 김열권·이승훈 옮김 | 신국판 576면 • 값 25,000원

"깨달음을 얻고 싶으세요? 먼저 부처님처럼 호흡하세요" __ 조선일보
'붓다의 숨결' 따라가는 깨달음의 길 __ 문화일보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핵심 수행 호흡법 __ 세계일보
"들숨 날숨 조화 속에 부처 되는 비법 담겨" __ 주간불교신문
"위빠싸나 수행의 핵심, 아나빠나삿띠 수행에 관한 책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세하고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지침서"
__ 동아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서울경제, 뉴시스, 불교신문





불광출판사 추천도서 / 선 & 위빠싸나

- 육조단경 | 광덕 역주 | 신국판 양장본 398면 | 값 16,000원
- 서장 | 대혜 종고 지음 · 지상 주해 | 신국판 양장본 552면 | 값 18,000원
- 임제록 강설 | 무비 지음 | 신국판 양장본 372면 | 값 15,000원
- 대승지관법문 | 남악혜사 스님 지음, 원경 스님 옮김 | 신국판 양장본 382면 | 값 15,000원
- 방거사 어록 강설 | 혜담지상 스님 강설 | 신국판 양장본 328면 | 값 15,000원
- 위빠싸나 1,2 | 김열권 편저 | 신국판 352면, 544면 | 각권 값 12,000원, 15,000원
- 위빠싸나 열두 선사 | 김열권 옮김 | 신국판 340면 | 값 9,000원
- 그냥 바라만 볼 뿐이다 | William Hart 지음, 서광 편역 | 신국판 224면 | 값 6,000원
- 위빠싸나 성자 아짠 문 | 아짠 마하 부와 엮음, 김열권 옮김 | 신국판 398면 | 값 8,500원
- 위빠싸나 수행 | 김재성 옮김 | 4·6판 176면 | 값 5,000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5-14 _____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_____ homepage: http//www.bulkwang.or.kr

불광출판사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월간 불광을 만나면
삶이 밝아집니다

행복은 손에 잡히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33년 동안 한결같은 도반 월간「불광」을 품에 안으십시오.
마음 지킴이 월간「불광」이
생활 속의 지혜를 밝혀 행복을 설계해 드립니다.

http://www.bulkwang.org

1년 구독료 : 38,000원 | 2년 구독료 : 70,000원 | 3년 구독료 : 100,000원

구독문의 02)420-3200 팩스 02)420-3400
e-mail : webmaster@bulkwang.org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해마다 느는 자살 인구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10일)'이 있고 나라마다 고을마다 '자살예방협회'라는 것이 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최우선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거나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되거나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고개를 끄덕일만한 여러 준칙도 있다.

자살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더구나 한국은 2003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국 가운데 10위의 자살률을 보여주더니 해마다 순위가 올라 지금은 상위 자리를 다툰다고 하니 자살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이제 세계적 주목국이 된 셈이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IT문화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인터넷에는 자살을 부추기는 사이트도 있고 이런 사이트는 자살을 도와주기까지 한다. 여기서 '생명존엄' 어쩌고 하는 것은 '김이 빠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자살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금기시돼 왔다고 알고 있다. 여기서 대부분이라 한 것은 금기시되지 않았던 문화도 있었고 또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발생 전 서양에는 '자살학교'라는 것이 있었고 여기서는 '공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거나 명예의 손상, 국가적 위기에 자살'하는 것 등을 권장하기도 했다. 지난세기까지만 해도 이웃 일본에서 비슷한 명분으로 자기 배를 칼로 갈라 죽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기도 했으니 인간들의 생각은 동서양이 비슷했던 모양이다.

한국역사에도 이런 종류의 자살은 금기시되지 않았다. 낙화암의 삼천궁녀도 있고, 여인들이 지녔던 은장도의 용도도 그러려니와 전쟁사에서 외국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굴욕보다 오히려 자살을 택한 군인들에 대한 기록도 적지 않다.

이런 저런 종교에서 더러 '거룩한 자살'이라 불러 온 것도 있다. 그런데 왜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되거나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날 은근히 권장되기도 했던 자살에 대한 명분들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거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안다. 그러니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처럼 '명분 있는 자살'을 선택할 리 없다. 그런 것은 이제 아주 드물기도 할뿐더러 감동을 주지도 않는다.

대신 현대인은 개인이나 가족의 불행, 사회적 응력의 부족, 욕망 충족에 대한 좌절과 절망, 배반, 비관, 우울증 등 개인의 인내력으로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자살을 결행한다. 그렇다고 문제가 단순히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부조리와 더불어 잘못 얽힌 그 물처럼 된 사회적 관계가 개인을 자살로 몰기 때문이다.

절대 가난 속에 사는 후진국 보다 잘 사는 선진국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상대적 빈곤이라든가 선진국적 부조리 탓일 것이다.

낯이 없는 겨울을 보내야 하는 나라,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로 세계 자살률 통계에서 한 번도 상위를 양보해 보지 않은 나라 핀란드, 그 나라의 대표적 작가인 아르토 파실린나가 쓴 소설 '기발한 자살여행'을 보면 한번쯤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현대인의 유형이 모두 나온다.

파경에 이른 부부, 파산, 육체적 정신적 고통, 왕따, 노화, 여기에 그냥 살기 싫어 죽고 싶은 사람까지 수많은 이유를 가진 자살 지망생들이 버스 하나를 탈취해서 '죽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 결국은 '왜 이 아름다운 세상의 좋은 삶을…' 하면서 각자 흩어지는 블랙 코미디로 넘치는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생명 존엄성' 운운하는 정색하는 자살 예방 구호 보다 더 절실한 삶의 가치와 자살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한편 정색하는 자살예방 대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든다.

불자의 눈

법계 바로서야 승단이 바로 선다

학력과 경력 위조 문제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신정아 前 동국대 교수의 허위학력 의혹 제기는 이제 그 범위를 넓힐 대로 넓혀 정치권과 종단까지 뒤흔들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불자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다. 한 순간의 욕망이 지어낸 거짓이 종국에는 범죄로 이어지는 이 엄연한 인과의 고리를 바라보며 누구나 오탁악세의 요지경 속을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마저 느낀다. 인간에게 희망은 없는가? 바야흐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

그런 가운데 조계종 법계위원회가 희망적인 결단을 내렸다. 법계 심사에서 해당자의 범죄 기록 유무를 따지고 경력과 호적관계까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를 이루는 데는 행정적 원칙이라 할 법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종단의 인적 질서가 유지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장치다. 법계는 스님들의 경력과 업적 등을 망라해 승가 내부에서 정한 계급적 질서이기 때문이다.

이 법계는 그동안 시간성에 의존된 경향이 있었다. 어느 품계를 받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의 품계로 올라가는 데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종단 내부에서 큰 물의를 빚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경우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으로 인식됐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법계위원회의 결정은 그런 관례를 부정하고 있다. 품계가 갖는 권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기본적인 방법은 품계에 걸 맞는 대상자에게만 품계를 주는 것이다.

이번 법계위원회의 결단이 시류적인 것이 아니라 종단의 근간을 튼튼하게 지키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 승단을 유지하는 내부 골격이 반듯하지 않고서는 급변하는 세속의 현실에 '당당한 승단'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송과 투서' 악습 못 버리나

조계종의 고질적인 병폐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괴문서' '투서'라 불리는 유언비어의 살포다. 돌이켜 보면 조계종의 현대사는 이 두 악습 때문에 멍들고 상처 났다.

최근의 조계종도 악습에 휘말리고 있다. 소위 '신정아 사건'으로 위상이 땅에 떨어진 종립 동국대학에서 장학금 유용 사실이 드러났다. 유용의 당사자인 중진급 교수가 불교대학장을 맡고 있는 교수(스님)의 중·고교 학력 문제를 들춰냈다.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동원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시점'에 '그런 문제'를 '그런 사람'이 터트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땅에 떨어진 학교 권위를 아예 짓밟아 뭉개는 처사"라고 밖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상대로 중원 스님이 낸 각종 소송도 불교계를 바라보는 대중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음사 사태가 최근의 조계종 위신 실추의 한 축이었는데 '관음사의 오랜 주인'이었던 중원 스님이 소송의 당사자로 나선 것이 불자와 국민들에게는 좋게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내부문제를 사회법으로 끌고 갈 때는 '오죽하면'이란 면피성 술어가 따라 붙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큰 틀에서의 종단 상황을 보는 혜안이 절실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종교자유' 칼럼

29. 아프간의 교훈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국내·외 과도한 선교활동 제한 법제화 필요

두 명의 선교활동가의 희생과 함께 온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탈레반 피랍 사태가 종결되었다. 그런데 뒷맛이 씁쓸하고 마음이 착잡하다. 이 사건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 때문이리라. 문제의 핵심은 개신교의 무분별한 해외선교, 정부의 미숙한 대처, 그리고 구상권 청구 논란 등 세 가지가 아닐까 싶다.

첫째, 개신교의 무모한 선교전략이다. '타문화와 타종교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을 선교성과로 자랑스럽게 내세워왔던 한국의 개신교 근본주의 전통이 이번 사태의 배경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개신교인들의 무례한 전도행태에 대해 그동안 경고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그때마다 사회문제화 하지 못하고 관대했던 것이 오히려 내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자조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해외선교 소동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격언을 다시 상기시킨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태가 종결되자마자 "잘못한 것 없다. 모든 게 신의 뜻이고 이번 석방도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주장한다니 기가 찰 일이다. 두 사람의 죽음도 그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죽은 이들 가족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질을 해대고, 함께 정신적인 인질이 되어 심리적 고통을 당했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선교파송 책임자인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는 한 술 더 떠 "이번 사태로 선교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3000명의 배형규가 나와야 한다"며 선동적인 설교를 했고, 심지어 어느 피랍자의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별별 소리를 다하며 떠들고 난리를 부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고 결과를 내실 것인지 기대가 크고, 속으로 신나고 재미있다"고 신앙간증을 했다니, 그 비이성적인 언행과 변절에 할 말을 잊는다.

'사회와 소통이 안 되는 딴 세상 사람들' 같은 일부 개신교인들과 '죽을지언정 개종은 없다'는 이슬람교인들이 부딪쳤으니 사고는 당연히 예견된 것이었다. 헌팅턴이 우려했던 '문명의 충돌'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던가.

둘째, 정부의 안이하고 무원칙한 대처다. 사상 초유의 피랍사태에서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한 것을 잘했다고 국정원장이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것도 영 믿음직스럽지 못한데, 몸값 지불설, 테러집단과의 협상불가라는 국제원칙 무시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긴 것은 더 큰 문제다.



샘물교회의 단기선교 보고회 모습. 뒷벽 왼쪽에 아프가니스탄 국기가 걸려 있다.

이 사태의 여파로 아프간이 여행제한국에서 한 단계 높은 여행금지국이 됨에 따라 모든 걸 포기하고 귀국해야만 하는 아무 죄 없는 200여 교민들과 순수 봉사자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더구나 이러한 정부의 직접 개입 선례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이 납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셋째, 국가와 개인의 관계 설정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제기된 '국가의 국민보호 책임의 한계'에 관한 근본적인 명제로서, 급한 상황에서 국가가 먼저 쓴 경비에 대해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가 초점일 것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고 해서 생사의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할 수 있는가. 공무집행이나 순수 생업도 아닌데다가, 단순한 경솔 또는 실수가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위험을 자초하는 경우마저 무한정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특히 종교적 신념으로 선택한 모든 상황을 국가가 끝까지 지켜주어야 하나.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물적·정신적 피해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국가가 극성스런 종교인들의 선교사업 뒤치다꺼리 하는 데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국가의 특정종교 지원으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런 일에 함께 휘말리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국민의 90% 이상이 정부의 구상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성은 잠깐 하는 척 하고 앞으로도 교묘히 눈속임하며 무리한 선교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은가. 초자연적 존재로서의 신을 믿는 그들에겐 국가는 한낱 천국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국가의 입장에서 신의 사업에 끼어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부당하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종교인들이 벌이는 구호 및 봉사활동이 말 그대로 '자랑거리'인 봉사인지, 아니면 '화근덩어리'인 선교인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국내외에서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선교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구체적인 법제화를 통해 국가와 개인 간의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또 다시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 전체를 볼모로 온 나라를 마비시키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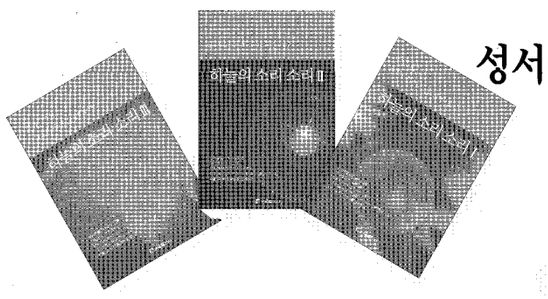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하늘의 소리 소리 Ⅰ·Ⅱ·Ⅲ권

화제의 신간



김성갑 지음 / 신국판
Ⅰ권 336쪽, Ⅱ권 344쪽, Ⅲ권 344쪽 / 각 권 10,000원

성서(聖書)의 Word(말씀) 〈수능엄경〉의 관음법문

요가 대수행자의 마지막 수행처 선가(仙家)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상단전의 비밀' 오늘, 그 비기(秘記)를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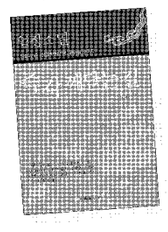
'무소의 뿔처럼' '백척간두에 진일보' 보다 먼저 바로 볼 수 있는 정견(正見)을 가져야 한다.

불성이 곧 본성(本性)이며, 업장멸은 위대한 실체다.

즉각 깨닫는 길

전국 서점 판매중

'간화선의 화두' '남방의 위빠사나'도 아니다.
오직, 묘촉을 만나야 하며 관음을 득해야 한다.
묘촉(妙觸)은 업장의 현주소이며 맑음의 바로메타,
관음(觀音)은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으로 천상의 음악이다.



"좋은 분들께 선물, 감동을 주는 책"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0,000원

신 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양장본/송월 스님/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신국판/양장본/김백만 편저/50,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글로벌작명학의 디자인 — 신국판/양장본/박수병 지음/2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문의 : 02-2004-8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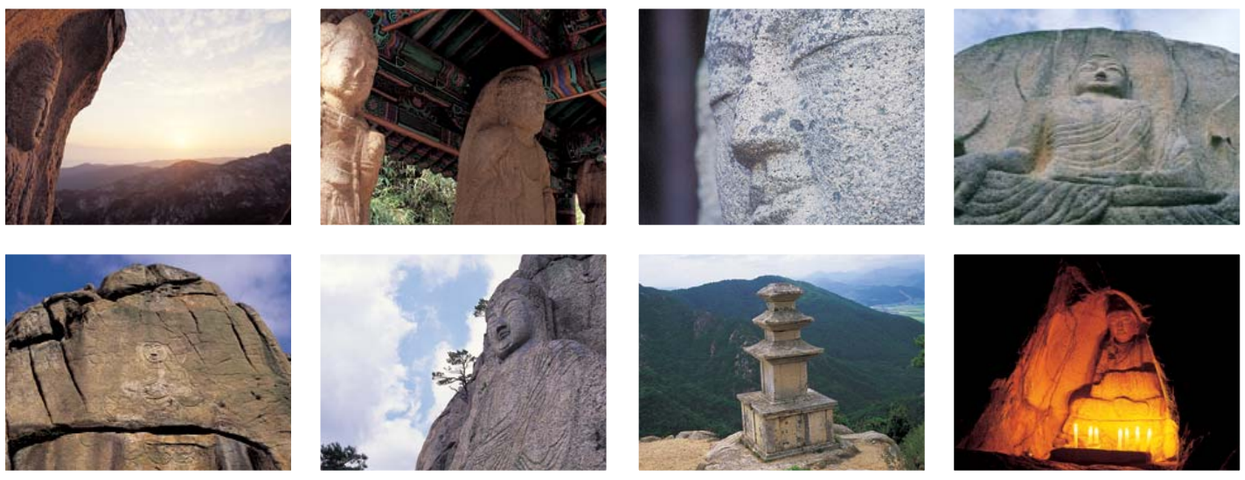
희상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하나로 돌아가기
작품 : 희상 스님_ 크기 : 30.5 × 30.5

현대불교신문 새로운2008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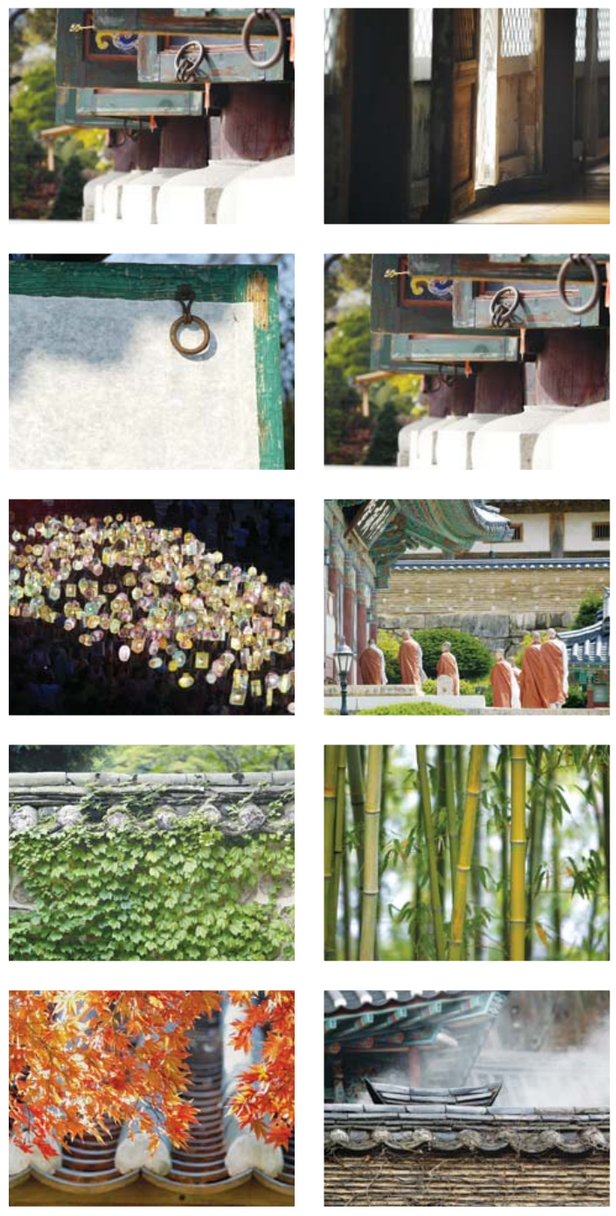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NEW CALENDAR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독자적으로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 제작한 달력으로 한층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국정토 남산 사진 : 고영배 기자_ 크기 : 26.5 × 26.5



절의 미학 사진 : 박재완 기자_ 크기 : 26.5 × 26.5



沈香과 白檀의 순수함으로 사용하시는 이의
價値와 品格을 더욱 높여 드릴 것입니다.

순수 침향만을 사용한
명향심공침향

"至高의 香"이라고 불리우는 沈香
沈香은 예로부터 국왕과 고급관료만이
사용할 정도로 매우 귀한 향으로
그 藥材的 效能과 香으로서의 價値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沈香의 고귀한 느낌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명향심공침향에 다른 향재는
전혀 첨가하지 않고 침향 자연그대로의
순수함을 정성들여 담았습니다.

이젠 침향의 깊고 순수한 맛을
명향심공침향을 통해서 느껴보세요.

침향은 진정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한약재로도 사용되어져 왔으며, 최근 藥材로서의 효능도 널리 알려지면서 침향의 수요가 급증해 희소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성분 : 침향, 남목피

부드럽고 달콤한 백단의 향
명향일광백단

일광백단은 부드럽고 달콤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 받아 왔던 白檀만을
사용한 천연향으로 여러분들께
진정한 백단의 맛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백단은 동양적인 향조의 기본이 되며, 30년 이상 자란 나무여야 직경 3cm정도의 심부분이 생겨난다. 이 심 부분에서 나는 향이 白檀 고유의 향으로, 향을 제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香材이다.



성분 : 백단, 남목피

無첨가·無색소
100%천연향재사용

100% 천연 침향, 백단을 사용하여 건강에 유익하며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향은 100%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여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북돋아 주며 인체에 해가 없는 유익한 향으로서 사찰과 거실, 공부방 또는 명상, 요가 등 마음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시간에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품규격 - 장:27×230×25mm (약 50분 연소)/단:57×152×32mm (약 25분 연소)

만복향당

화사한 수련의 향기 - 화노시
花の詩
2007년 만복향당 신제품

연꽃의 향기는 영원한 시의 노래처럼..
백단 30%와 로즈, 바이올렛, 제라늄 등이 주요 성분으로 화사한 수련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백단을 기본으로 한 꽃가루의 달콤함과 화사한 향기가 꽃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온화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선향입니다. "하나노시"는 문화와 전통을 현대에 계승하고 있는 일본향당의 수준 높은 향조기술과 엄선된 원료를 사용하여 일본향당과 한국의 만복향당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선향입니다.

제품규격 - 장:33×266×30mm (약 50분 연소)/55g
- 중:84×135×33mm (약 25분 연소)/60g
- 단:65×156×28mm (약 25분 연소)/140g

水蓮

만복향당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74-3번지 봉우시티 302호 전화 02)577-4155/02)577-0745 팩스 02)577-0746 홈페이지 www.mbhd.co.kr